

2023

昌寧文化

제43호



창녕문화원

문화원 원훈(slogan)

더 아름답게

(法/古/創/新)

- 1. 나누자(大) [건강/일깨움]
- 1. 받들자(明) [사랑/복돋움]
- 1. 누리자(充) [행복/꽃피움]

○ 창녕문화원이 바야흐로 성장 70년을 기반으로, 미래 희망 100년을 ‘더 아름답게’ 꽃 피워 가야할 절박한 시점을 맞았다.
행함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行不無得)

따라서 옛 것을 본받아(法古), 새로운 것을 창조해(創新)가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더 아름답게 ‘나눔’을 중점 실천한다.

○ 원훈(slogan)은 ‘군중 속의 깃발’ 같은 것이다.
몸담아 있는 직원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좌표다.
일상에서 창녕문화원 가족들이 함께 실천해 나갈 행동강령이다.

○ 역사는 미래의 희망,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자 성장동력이다.
어떤 삶을 담을 것인가?
변화(change)를 통해 기회(chance)를 창출해 나가야한다.

○ 나누면(큰 마음/건강), 자연스럽게 받들게 되고(밝은 마음/사랑).
누리게 된다(충만한 마음/행복).

- ‘나눔’이란 ‘나를 내려놓음’이다. ‘겸손’이자 ‘연결’이며 ‘소통’이다.
하늘(天)처럼 나누면, 땅(地)처럼 받들게 되고, 사람(人)답게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전한 만큼 알게 되고, 베푼 만큼 가지게 된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품격이 높아진다 (文質彬彬)
서로가 살리고 살리는 ‘살림살이’, 상생(相生)의 삶을 살 수 있다.

백범 김구선생, ‘백범일지(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富強)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고 해줄 수 있다.”

※昌寧(창녕) →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곳.

□ 아름다움 → ‘문화(文化)’의 다른 이름

- * 삶은 아름답게 디자인 하는 것
 -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
- * 자기다움, 나답게 사는 것, 나누고, 받들고, 누리는 것.
- * 비웠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텅 빈 충만)
 - ‘개체’로서 ‘전체’를 인식하며 살아감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 나누재(大) → 건강(지혜) / 일깨움

- * ‘나(我)를 내려놓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이다.
- * 집착을 놓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 * 나누면 적어지는게 아니라 크게 된다.
- * ‘불취심(不取心/취하지 않는 마음)’이다.
- *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다.
- * 상대보다 나에게 더 이롭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리(自利)의 마음’이다.

□ 받들자(明) → 사랑(존중) / 불돋움

- * 상대를 존중하고 보듬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 * 받아들여서 받들면 밝아진다.
- * ‘불사심(不捨心/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 * ‘발고여락(拔苦與樂)’이다.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함께한다.
- * 상대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타(利他)의 마음’이다.
- ※ 사랑은 「나」와 「상대」, 「나눔」과 「누림」,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자양 분이다.

□ 누리자(充) → 행복(조화) / 꽃피움

- * 누리면 마음이 보름달처럼 늘 충만해진다.
 - 행복은 미래의 희망이 아닌 현재의 선택이다.
- * ‘불식심(不息心/늘 좋은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마음)’이면서,
‘원력심(願力心/모두를 잘 되게 하는 마음)’이다.
- * ‘법희선열(法喜禪悅/감사하는 마음)’이다.
세상의 이치(진리)를 깨닫는데서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다.
- *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워,
모두에게 좋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이다.



《 문예중흥선언문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년 10월 20일



《 문화비전선언문 》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기다들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CONTENTS • 차례

❁ 문화원 원훈	
❁ 문예중흥 선언문	
❁ 문화비전 선언문	
❁ 발간사	
• 창녕문화원장_ 한삼윤	012
❁ 축사	
• 창녕군수_ 성낙인	014
• 창녕군 의회 의장_ 김재한	015
• 창녕경찰서장_ 이호	016
•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_ 김종식	017
❁ 2023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019
❁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와 문화단체 우호협약	055
❁ 우포늪 할매.할배들의 이바구(유튜브)	056
❁ 손에 잡히는 인문학, 창녕문화원에서 만나다!	058
❁ 좋은 생각 좋은 글	
• 영화 <오징어게임>과 한국사회의 갈등_ 문경주	068
• 최후의 보루(堡壘), 연전연승 홍범도 장군의 귀환_ 문경주	075
• 계산마을 문해교실_ 배종만	089



- 과유불급에 당황하는 전제 장군_ 전점석 091
- 두 번 살려주신 이유_ 김동식 101
- 인간관계 내면소통과 행동_ 진영출 105
- 양과 같은 사람_ 심재만 108
- 인생 (人生)_ 진태홍 111
- 만옥정공원 팔십년의 변천(變遷)_ 김동주 114
- 용의 눈물_ 이성춘 124
-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 한다_ 이성춘 126
- 청보리밭의 오솔길_ 주영숙 128

❁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기_ 심재만 132
- 창녕읍 보물찾기 (부제:창녕읍 팔경 돌아보기)_ 심재만 142
- 비사벌(창녕)의 군사지정학적 위치_ 남중희 147

❁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 정옥이의 일기_ 최정옥 152

❁ **시와 한시 / 서예 작품**

-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_ 하재훈 156
- 평양 공작대 - 팔경대_ 신익교 157
- 문암공_ 신익교 158
- 늪_ 이우걸 159

CONTENTS 차례

- 도동서원 가는 길_ 김희덕..... 160
- 서예작품_ 청아 사공 순/석호 하명술/고야 최상교/우만 성태기/덕산 신한순/성지 김동식/인곡 하인종
효산 김경옥/여실 김애영/김영수/이두채 161

❁ 역사문화 및 여행기

-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방문 기고문_곽정기 168
- 보훈사적지 문화탐방을 다녀오다_한삼윤 177
- 대마도 문화탐방에 대한 소고_한삼윤 183
- 전남 백양사, 전북 고창 청보리밭을 다녀와서_정숙연 193

❁ 교양 및 정보

- 왜 한자를 배워야 하는가?_성낙은 198
- 주역으로 보는 2024 갑진년 _한삼윤 202

❁ 회원동정 및 수상소식

- 제3회 창녕군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수상소식 208
- 영산향교 신용태 전교 사진 회사 209
- 사단법인 신돈역사연구회「편조왕사 신돈 이야기」출판기념회 210
- 향토사연구소‘김화영 위원’ 제23회 황우문화상 수상 211
- 글길 문경주 시인, 문집 출판기념회 212
-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하진돈 위원’ 국민포장 수상! 213
- ‘창녕 도천농악단’ 제14기 경상남도지사기 경남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214
- 윤수근 회원 (사)한국조경수협회 중앙회장 취임 215



- ‘최정옥’ 회원 제17회 경상남도지사배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대회 장려상 수상..... 216
- 제34회 비사별문화제(시조창발표회, 수석전시, 서예전시)..... 217
- ❁ **창녕을 빛낸 사건**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 220
- 창녕 부곡온천,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221
- 창녕 성산 각료암 전통사찰 지정 222
-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물로 지정 223
- 창녕 도암재 강당 도문화재자료 지정 224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 지정 225
- ❁ **창녕문화원 70년사 발간**..... 226
- ❁ **2024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227
- ❁ **2024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 229
- ❁ **창녕문화원 조직도** 230
- ❁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현황** 231
- ❁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233

발간사



창녕문화원장
한삼운

나누고 받들고 누리는, '더 아름다운 창녕문화'

창녕문화원이 지난 해 개원 70년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범한 계묘년이 가고 갑진년 청룡의 새해를 맞아, 창녕문화지 제43호를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 문화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자축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녕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신 문화원 임직원과 전 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1일 부터 제25대 창녕문화원장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와의 우호협정을 시작으로,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친선과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창녕문화 창달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낙인 군수님과 김재한 군의회의장님, 유관기관 단체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임기동안 흔들림 없이 전임 원장님들께서 이룩해 놓은 탄탄한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더욱 새롭고 아름다운 창녕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나누고 받들며 누리는 창녕문화가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떤 삶을 담을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살리는 상생(相生)의 살림살이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처럼 나누고, 땅처럼 받들며, 사람답게 누리는 삶’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이 ‘손에 잡히는 인문학’입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새로운 백년을 꽃 피워 나가는 일련의 제반 문화 나눔 사업에 더욱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문화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축사



창녕군수
성낙인

우리 지역의 유구한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계묘년 한 해 동안 창녕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정리한「제
43호 창녕문화」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주역으로 창녕의 문화발전
을 위해 책임과 소명을 다하시는 창녕문화원 한삼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녕은 가야연맹체 가운데 하나인 비화가야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비화가야가 남긴 소중한 자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의 인정을 받은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문화 도시입니다.

이러한 창녕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창녕문화 발간을 통
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수호하고 나아가 계승·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소중한 창녕문화를 담은 자료집의 꾸준한 발간이 우리 군민
의 자긍심 향상과 우리 고장의 고유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자
료가 되어 지역 문화창달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제43호 창녕문화」발간을 축하드리며, 창녕문화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축사

창녕의 고유문화를 계발·보급·전승시키고, 향토문화를 발굴·조사·보존하여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제43호「창녕문화」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창녕문화」발간을 위해 고생하시고, 우리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한삼윤 창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며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와 창작 활동을 모아 책으로 엮음으로서 우리 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곧 그 지역이 가진 힘이며, 올해로 43호를 맞는「창녕문화」의 발간은 우리 지역이 가진 독자적인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녕군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창녕문화」가 꾸준히 발간되어 창녕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창녕문화」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 창녕의 고유한 문화를 이끌어 가는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창녕군의회위원장
김재한



축사



창녕경찰서장
이 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경찰서장 이 호입니다.
「창녕문화」제43호 발간을 창녕경찰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한삼운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향토사 연구와 책자발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은 선사시대부터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유·무형문화재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한삼운 문화원장님의 말씀처럼 “나누고 받들고 누리는 창녕문화”를 위해서는 문화재를 잘 보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널리 알리고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려 지역의 각종 축제와 우포늪·화왕산·부곡온천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나가는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경찰도 문화도시의 긍지를 갖고 따뜻한 경찰로서 문화재보호 활동과 홍보는 물론 살기 좋은 창녕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창녕문화」발간으로 창녕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재의 지킴이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창녕군민 모두와 「창녕문화」 발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12월

축사

가을이 내린 우포늪과 화왕산의 단풍이 그려내는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비화가야의 문화를 계승하여 현재 창녕의 문화를 담아 미래의 창녕 얼을 선도할 「제43호 창녕문화」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빛의 땅 창녕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창녕의 문화를 받들어 창녕인에게 나누고 누리게 하여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삼운 원장님 외 창녕문화원 관계자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창녕은 세계적인 습지 우포늪을 비롯하여 영남의 물줄기 낙동강이 흐르는 자연이 아름다운 고장이며, 국민 휴양지 부곡온천,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된 송현동과 교동의 가야 고분군 등 우수한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가 빛나는 고장입니다.

창녕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은 군민들의 자긍심이며, 창녕인의 숨결과 정신을 이끌어 가는 창녕문화의 정수로 미래의 더 높은 창녕 문화를 선도해 가는 원동력이라 확신합니다.

창녕의 고유문화와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창녕의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창녕의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녕문화학교를 운영하며 지역문화 계승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창녕문화」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창녕의 문화와 정신을 담아내는 문화 소식지로 건승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종 식

2023년 12월

2023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3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3년 제1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1. 6. (금) 13:30 · 장소 : 별관 3층 1강의실
- 대상 : 이사, 감사 23명 참석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임원(원장)선거일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23년 창녕문화원 계묘년 설 합동 세배회

- 일시 : 1. 26. (목) 11:00 · 장소 : 본관 3층 강당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300여명 참석
- 내용 : 1부- 합동 세배회, 2부- 옷놀이 13개 부설단체 참여



2023년 제25대 신입 원장 당선증 전달식

- 일시 : 1. 27. (금) · 장소 : 원장실
- 대상 : 신입원장 한삼윤
- 내용 : 제25대 신입원장 당선증 전달식



2023년 제2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2. 8. (수) 11:00 · 장소 : 본관2층 회의실
- 대상 : 이사, 감사 19명 참석.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의결 건, 제70차 정기총회일 결정의 건



2023년 제70차 정기총회

- 일시 : 2. 24. (금) 11:00
- 장소 : 본관 3층 강당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400여명 참석



2023년 제22~24대·제25대 창녕문화원장 이·취임식

- 일시 : 3. 10. (금) 14:00
- 장소 : 본관 3층 강당
- 대상 : 제22~24대 이임원장 이수영, 제25대 취임원장 한삼운
- 기관 및 사회단체,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300여명 참석

2023년 문화학교 개강



- 일시 : 3 ~ 12 (10개월)
- 대상 : 문화원 회원
- 과목 : 시조창, 요가, 서예, 건강체조, 한문, 민요,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사진, 난타, 색소폰 (A,B), 바둑.

• 장소 : 문화원



2023년 제3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4. 1. (목) 14:00
- 대상 : 이사, 감사 19명 참석.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임원 인준의 건
- 장소 : 본관2층 회의실



2023년 신입 군수 방문

- 일시 : 4. 7. (금) 15:00
- 대상 : 군수, 원장, 임원
- 장소 : 창녕문화원 원장실



2023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 일시 : 4. 17. (월)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대상 : 향토사 연구위원 및 고문 24명 참석.
- 내용 : 제25대 향토사연구위원 위촉장 수여, 신입 연구위원 상견례, 창녕문화원 소개



2023 색소폰 B반 초청공연 '노인복지회관'

- 일시 : 4. 17. (월) 14:00 • 장소 : 창녕 노인복지회관
- 대상 : 색소폰 B반
- 내용 : 색소폰 B반(초급반) 수차례 초청공연



2023 KNN (찬란한 유산 100선) 인터뷰 방영

- 일시 : 5. 13. (토) 09:00
- 촬영장소 :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 인터뷰 : 한삼윤 원장
- 촬영목적 :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부산 경남의 중요 문화유산 소개



2023 창녕문화원·일본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와 문화단체 우호협약 체결 및 합동공연

- 일시 : 5. 19. (금) ~ 5. 22.(월)
- 장소 :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 대상 : 한국무용, 난타, 임원 및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약 35명
- 내용 : 창녕문화원·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와 협약식, 문화교류 합동공연



2023 KNN (찬란한 유산 100선) 인터뷰 방영

- 일시 : 5. 20. (토) 09:00
- 촬영장소 :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 인터뷰 : 한삼운 원장
- 촬영목적 :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부산 경남의 중요 문화유산 소개



2023 색소폰 B반 초청공연 '계성 청련사'

- 일시 : 5. 27. (토)
- 장소 : 계성 청련사
- 대상 : 색소폰 B반
- 내용 :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계성 청련사에서 색소폰 B반이 초청을 받아 공연.



2023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일시 : 6. 19.(월) 11:00
- 참여 : 한삼윤 원장
- 내용 :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



2023 제4차 이사회

- 일시 : 6. 21.(수)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 이사, 감사 20명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기타 보고사항 등



2023 제1차 국내 보훈사적지 시설 탐방

- 일시 : 6. 23.(금) 07:40
- 장소 : 진해 웅천읍성,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 통영 케이블카, 고성 옥천사
- 참석 : 42명
- 주최 : 경남동부보훈지청

2023 제3차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 참석

- 일시 : 6. 28. (수) 11:00
- 장소 : 하동 물꽃정원펜션
- 참석 : 한삼윤 원장
- 안건 : 경상남도 지원금 운영방안의건, 신입 운영위원 위촉의 건 외 보고사항



2023 창녕문화원 인문학특강

- 일시 : 7. 3. (월) 14:00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참가대상 :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창녕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70여명
- 내용 : 1부 - 강사 오세란 / 주제 : 초한지(楚漢志)에서 성공의 리더십을 배운다!
2부 - 강사 남용우 / 주제 : 세한도에서 읽는 처세훈



2023 색소폰 B반 초청공연 '대한노인회 제4회 창녕군지회장배 한궁대회'

- 일시 : 7. 14. (금)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대상 : 색소폰 B반 16명
- 내용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주관으로 '제4회 창녕군지회장배한궁대회'에서 색소폰 B반 문화나눔 봉사공연



2023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 일시 : 7. 20. (목)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 24명
- 내용 : 향토사 연구 책자 발간, 제2차 인문학 강의 강사모집, 안내 등



2023 색소폰 B반 초청공연 '계성 반야노블카운티'

- 일시 : 7. 21. (금)
- 장소 : 반야노블카운티
- 대상 : 색소폰 B반 16명
- 내용 : 색소폰 B반(초급반) 수차례 초청공연



2023 경남문화원연합회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우포늪 할매·할배들의 이바구’ 유튜브 영상촬영 (1차 촬영)

- 일시 : 8. 17. (목) 14:00
- 장소 : 우포생태체험장 및 우포늪 사랑나무
- 대상 : 향토사연구위원 노용호박사 외 출연진 할머니·할아버지 8명
- 내용 : 우포늪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생태춤을 배우면서 창녕홍보



2023 경남문화원연합회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우포늪 할매·할배들의 이바구’ 유튜브 영상 촬영(2차 촬영)

- 일시 : 8. 18. (금) 09:00
- 장소 : 창녕 상설시장, 창녕읍 주변
- 대상 : 출연진 할머니·할아버지 5명
- 내용 : 우포늪 주변 어르신을 모시고 3.8장날 구경과 도시 나들이하며 시골에서 드시기 힘든 스파게티, 빙수 등등 경험해보기.



☉ 2023 제2차 국내 보훈사적지 시설 탐방

- 일시 : 8. 25. (금) 08:00
- 장소 : 마산 3.1의거 발원지 기념관, 거제 지심도 등
- 참석 : 38명
- 주최 : 경남동부보훈지청

☉ 2023 제4차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 참석

- 일시 : 9. 1. (금) 11:00
- 장소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 참석 : 문화원장
- 안건 : 행사개최 계획 심의, 의병연구소(안)심의 외 보고사항



☉ 2023 색소폰 B반 초청공연 '제6회 고암면민 화합의 장'

- 일시 : 9. 8. (금)
- 장소 : 창녕 노인복지회관
- 대상 : 색소폰 B반
- 내용 : 색소폰 B반(초급반) 수차례 초청공연, 문화나눔 봉사공연을 실천함.



2023 향토사연구위원 워크숍

- 일시 : 9. 8. (금) 10:00
- 장소 : 남해문화센터
- 참가대상 : 향토사연구위원
- 참석 : 12명 (임원 및 연구위원)
- 내용 : 지역사연구위원 업적 공유 및 지역사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 남해지역 문화탐방



2023 제3회 창녕군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참가

- 일시 : 9. 12. (화) 08:00
- 장소 : 유어파크골프장
- 참석 : 창녕문화원 울타리 파크골프 동아리
- 수상내역 : 남자부 1등 색소폰 동아리 회원 김명수 / 여자부 1등 창녕문화원 이사 하창선

2023 경남문화원연합회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우포늪 할매·할배들의 이바구' 유튜브 영상 촬영 (3차 촬영)

- 일시 : 9. 13. (수) 09:00
- 장소 : 우포늪 소야마을 주변, 창녕 상설시장
- 대상 : 우포 육지해녀 임봉순 할머니
- 내용 : 육지해녀 임봉순 할머니의 일터 우포늪에서의 활동과 창녕 상설시장에서 판매





2023 향토연구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

- 일시 : 9. 14. (목) 08:00
- 장소 : 4구간 (함안 대산면 장암마을 ~ 도천면 우강리 망우정)
- 참여 : 8명 (향토사연구위원, 회원)
- 내용 : 낙동강 창녕구간 150리(약 62km)에 있는 문화재, 정자, 나무, 사찰 등을 조사, 연구하고자 함.



2023 색소폰 B반 초청공연 '창녕 노인복지회관'

- 일시 : 9. 18. (월) 14:00
- 대상 : 색소폰 B반
- 내용 : 색소폰 B반(초급반) 수차례 초청공연
- 장소 : 창녕 노인복지회관



2023 제5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9. 22. (금)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 이사, 감사 24명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기타 보고사항 등



2023 향토연구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

- 일시 : 9. 24. (일) 08:00
- 장소 : 3구간 (이이목나루 ~ 남지읍 용산마을)
- 참여 : 7명 (향토사연구위원, 회원)
- 내용 : 낙동강 창녕구간 150리(약 62km)에 있는 문화재, 정자, 나루, 사찰 등을 조사, 연구 하고자 함.



● 2023 창녕문화원 인문학특강

- 일시 : 9. 26. (화) 14:00
- 참여 : 창녕군민 70여명
- 내용 : 강사 -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심재만
주제 - 관룡사 보물찾기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2023 색소폰 B반 초청공연 '제27회 노인의날 기념식'

- 일시 : 10. 5. (목) 09:40
- 대상 : 색소폰 B반
- 내용 : 색소폰 B반(초급반) 수차례 초청공연
- 장소 : 창녕 군민체육관



2023 경남문화원연합회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우포늪 할매·할배들의 이바구’ 유튜브 영상 촬영 (4차 촬영)

- 일시 : 10. 7. (토) 09:00
- 대상 : 출연진 우포늪 할머니 10명
- 내용 : 이방면에 위치한 산토끼노래동산을 방문하여 소개하고 ‘이일래’선생님의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산토끼노래도 부르고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촬영.



2023 향토연구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

- 일시 : 10. 9. (월) 08:00
- 참여 : 5명 (향토사연구위원, 회원)
- 내용 : 낙동강 창녕구간 150리(약 62km)에 있는 문화재, 정자, 나무, 사찰 등을 조사, 연구하고자 함.



▲ 제14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대회



▲ 2023년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 2023 제14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대회 및 문화유적지 탐방

- 일시 : 10. 13. (금) 07:40
- 장소 : 산청 엑스포 축제장
- 참석 : 45명
- 어르신 농악대회 참가팀 : 도천농악단(장려상 수상)



2023 제37회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비사벌문화제 ‘창녕문화원 부설단체 문화나눔공연’

- 일시 : 10. 14. (토) 16:00
- 장소 : 비사벌문화광장
- 참석 : 부설단체 80여명
- 공연팀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우포의 향기 댄스스포츠, 우포 따오기 민요, 디딤새 한국무용, 관소리 명창, 비사벌 난타, 휘파람 색소폰 동아리,



2023 제34회 창녕 시조창 발표회

- 일시 : 10. 15. (일) 10:00
- 장소 : 비사벌문화광장 특설무대
- 주최 :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 in 경남 '강상도 할매·할배들의 "단디! 다안디!" 유튜브' 동영상 시연 심사 및 공연

- 일시 : 10. 18. (수) 10:00
- 장소 : 함안문화원 대강당 2층
- 대상 : 유튜브 출연진, 참여단체, 경남 20개 시·군 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 내용 : 어르신 문화활동을 한 자리에 모아 각자의 활동 사례를 선보이고 교류하고 수행과제 단체 유튜브 시연 및 심사



2023 남해문화재 야행 퍼레이드 초청참여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

- 일시 : 10. 21. (토) 17:30
- 장소 : 남해 효자문 ~ 남해읍 사거리
- 대상 :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
- 내용 : 창녕의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이 남해문화재 야행 퍼레이드에 경남 대표로 초청되어 남해의 중·고등학생과 남해군민, 방문객 700여명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가.



2023 창녕문화원 인문학특강

- 일시 : 10. 23. (월) 14:00
- 참여 : 창녕군민 50여명
- 내용 : 강사 - 남용우 교수
주제 - 한국 경제 성장과정 (경제개발의 종착돈)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3 향토연구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

- 일시 : 10. 24 (화) 08:00
- 참여 : 5명 (향토사연구위원, 회원)
- 내용 : 낙동강 창녕구간 150리(약 62km)에 있는 문화재, 정자, 나무, 사찰 등을 조사, 연구 하고자 함.
- 장소 : 5구간 (도천면 우강리 ~ 부곡면 노리)



2023 창녕읍 파출소 보이스피싱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

- 일시 : 10. 25. (수) 1050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 대상 : 창녕문화원 동아리 건강체조교실
- 내용 : 창녕 파출소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 창녕문화원 동아리 건강체조 교실 어르신 25명 대상으로 진행.



2023 색소폰 B반 문화나눔공연

- 일시 : 10. 26. (목) 14:00
- 장소 : 남지종합복지관
- 대상 : 색소폰 B반
- 내용 : 색소폰 B반(초급반) 수차례 초청공연



☉ 2023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대표단 정기교류

- 일시 : 11. 1. (수) 15:30~
- 장소 : 군청2층 군정회의실, 부곡스파디움 파오기호텔
- 참석 : 한삼운 원장
- 내용 : 해외 우호협력도시인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대표단이 정기교류를 위해 방문. 창녕문화원장(한삼운 원장)이 대표단 환담 및 환영만찬회 참석.



☉ 2023 창녕 행복교육 나눔축제

- 일시 : 11. 3. (금) 10:30~
- 참석 : 한삼운 원장
- 장소 : 우포늪 생태체험장 일원
- 주최 : 경상남도 창녕 교육지원청



2023 색소폰 B반 문화나눔공연

- 일시 : 11. 3. (금) 10:30
- 대상 : 색소폰 B반
- 내용 : 색소폰 B반(초급반) 수차례 초청공연
- 장소 : 계성 노블카운터



2023 창녕문화원 인문학특강

- 일시 : 11. 6. (월) 14:00
- 참여 : 창녕군민 60여명
- 내용 : 강사 - 향토사연구위원 성낙은
- 주제 : 고전의 향기 (옛시조)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3 경남문화원연합회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우포늪 할매·할배들의 이바구’ 유튜브 영상 촬영 (5차·6차 촬영)

- 일시 : 11. 9. (목) 14:00
- 장소 : 우포늪생태체험장, 우포늪 징검다리
- 대상 : 출연진 25여명
- 내용 : 우포늪 징검다리에서 노용호박사님의 생태춤 2탄 촬영과 마지막 6차 촬영으로 생태체험장에서 창녕문화원 동아리 공연 및 판소리 공연을 보며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사업을 마무리 시간을 가짐.



2023 향토연구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

- 일시 : 11. 13 (월) 08:00
- 장소 : 6구간 (부곡면 노리 ~ 청도천)
- 참여 : 7명 (향토사연구위원, 회원)
- 내용 : 낙동강 창녕구간 150리(약 62km)에 있는 문화재, 정자, 나루, 사찰 등을 조사, 연구하고자 함.

2023 제2회 창녕군수배 파크골프대회

- 일시 : 11. 14. (화) 10:30
- 장소 : 유어파크골프장
- 참석 : 창녕문화원 울타리 파크골프 동아리

2023 색소폰 A반 초청공연 '대한노인회 한마음대회'

- 일시 : 11. 14. (화) 10:45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내용 : 색소폰 A반(중급반) 오랫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창녕의 곳곳에 돌아다니며 멋진 공연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고자 여러차례 문화나눔 봉사공연을 실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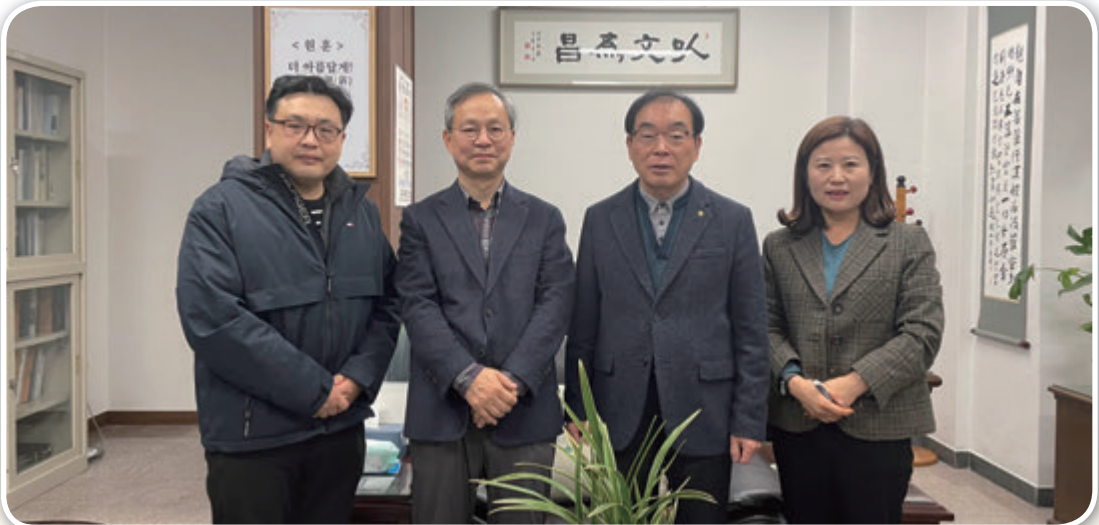
2023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 일시 : 11. 20. (월) ~ 21.(화)
- 장소 : 일본 대마도
- 참석 : 원장 및 임원 23명



2023 창녕문화원 인문학특강

- 일시 : 11. 27. (월) 14:00
- 참여 : 창녕군민 70여명
- 내용 : 강사 - 이우걸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주제 : 인생 2막, 어떻게 살 것인가



2023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사 문화나눔행사에 협찬

- 일시 : 12. 12. (화) 11:00
- 협찬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장소 : 창녕문화원 원장실



2023 창녕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나눔공연

- 일시 : 12. 15. (금) 10:30
- 장소 : 창녕문화원 본관 3층 강당
- 대상 : 색소폰(A,B), 건강체조, 민요,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난타, 판소리명창, 시조창·시낭송
- 내용 : 문화학교 활동을 통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문화 예술적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며 군민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



2023 제17회 경상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 말하기대회

- 일시 : 12. 18. (월)
- 장소 : 마산문화원
- 참석 : 일반부 창녕읍 최정옥(장려상 수상)



2023 제3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 일시 : 12. 27. (수) 11:00
- 대상 : 향토사 연구위원 및 고문
- 내용 : 공지 및 보고사항, 기타 토의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2023 창녕문화원 인문학특강

- 일시 : 12. 27. (수) 14:00
- 참여 : 창녕군민
- 내용 : 강사 - 황선열
- 주제 : 음악(音樂)과 인문학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창녕문화원,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와 문화단체 우호협약 체결




〈문화단체 우호협약서〉

함께 문화단체 우호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창녕문화원 (원장 한삼윤)은 2023.5.19.(금) ~ 5.22.(월) 4일간 일본 사쓰마센다이시를 방문해 창녕문화원 부설단체 한국무용과 난타의 공연으로 한국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여 일본 문화협회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28일 양 도시 문화단체 간 교류를 시작한 이래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류가 어려웠지만 작년 6월에는 영상으로 문화교류를 하고 이번에 일본 문화협회의 초청으로 방문하여 공연과

창녕문화원장은 “과거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양국 관계지만 국경을 초월한 문화나눔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2023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 경남지역 사업

☑ 갯상도 할매·할배들의 ‘단디!다안디’ 유튜브

- 지역 어르신들이 전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

☑ 창녕 - 우포늪 할매·할배들의 이바구

경남 중심의 어르신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 유쾌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1. 우포늪 주위의 마을 어르신들이 우포늪과 지역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김.
2.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며 노년층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살아가며 체득한 경험, 삶을 미디어에 담아 공유
3. 앞으로 더 늘어날 실버세대의 어르신들이 주인공으로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해나가며 창녕의 대표 유튜브로서 활동을 기대

000

유튜브 영상 시청

1. 어플에 ‘유튜브’를 설치 →
2. 단디! 단디TV 검색 →
3. 창녕동영상을 찾아서 시청
4. 창녕동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손에 잡히는 인문학, 창녕문화원에서 만나다!

우리 지역에 관한 문화와 역사, 철학, 향토사, 지명사 등 인문(人文)관련 다양한 소재거리를 접목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식 강연으로 지역사회의 명사를 초빙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과 배움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

- ◎ 23. 7. 3. 제1차 오세란 박사 - 초한지에서 성공의 리더십을 배운다
남용우 교수 -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서 읽는 처세훈
- ◎ 23. 8. 29. 제2차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관룡사 보물 찾기
- ◎ 23. 10. 23. 제3차 남용우 교수 -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경제개발의 종착돈)
- ◎ 23. 11. 6. 제4차 성낙은 향토사 연구위원 - 고전의 향기 (옛시조)
- ◎ 23. 11. 27. 제5차 이우걸 시인 - 인생 2막, 어떻게 살 것인가
- ◎ 23. 12. 27. 제6차 황선열 박사 - 음악과 인문학



〈제1차 인문학 특강 - 남용우 교수, 오세란 박사〉



〈제2차 인문학 특강-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제3차 인문학 특강- 남용우 교수〉



〈제4차 인문학 특강- 성낙은 향토사연구위원〉



〈제5차 인문학 특강- 이우걸 시인〉



〈제6차 인문학 특강 - 황선열 박사〉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경제개발의 종착돈)



남응우 강사

창녕군 인구추이

단위: 세리, 명

연월	세월	총인구						인구증감률	5대 사업 인구	5대 사업 비율	인구 밀도	면적 (km ²)	
		남	여	전	남	여	전						
2016	3090	4627	3117	3299	6190	3175	3247	220	130	238	3190	344	5296
2017	3126	4617	3190	3107	6130	3144	3257	246	106	205	3124	345	5296
2018	3149	4634	3176	3272	6156	3185	3181	270	101	193	3054	345	5296
2019	3194	4518	3292	3248	6211	3185	3136	279	107	182	3152	322	5296
2020	3233	4364	3233	3143	6130	3142	3049	233	130	72	3107	314	5296
2021	3249	4229	3187	3067	6129	2948	3018	230	149	48	3160	318	5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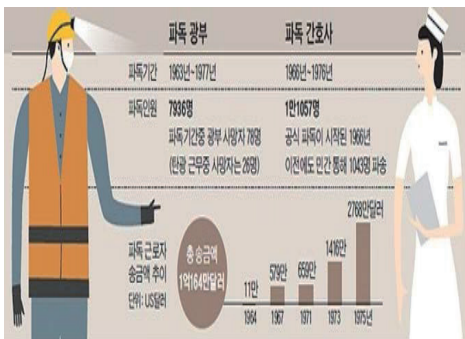
년도별 소득지표

계정항목별	1953	1961	1972	1979	1987	1997	2012	2017	2022
국민총소득(명목, 달러표시) (억달러)	13.6	21.8	108.9	645.6	1,467.8	5,668.0	12,913.3	16,299.2	16,978.4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달러표시) (달러)	66.5	64.7	324.9	1,720.1	3,512.2	12,334.2	25,729.7	31,734.1	32,886.0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 (%)	-	6.9	7.2	8.7	12.7	6.2	2.4	3.2	2.6

파죽 광부. 간호사

- 1) 1억 5천만 DM(3000만\$) 산업차관 요청->지급보증 요구-> 인력보증 아이디어
 - 63년 500명 모집-> 46,000명 응모
 - 대우: 600DM/월(160\$)-> 45,000원(한국 임금의 10배 수준)
 - 쌀 1가마: 3,000원, 고급공무원: 3,300원/월
 - 63. 12. 27-> 제1진 123명 출국
 - 동생의 보다 나은 교육기회 제공,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는 밀천
 - 실업과 가난에서의 탈출을 꿈꾸던 젊은이들에 대해 부분 경제적 이유로 파죽신청
 - 63년 1인당 GNP: 72\$
- 2) 평판도에 힘입어 1차 산업차관(3천만\$)에 이어 추가차관(7,500만\$)이 가능
- 3) 파죽광부, 간호사의 임금 본국송금액: 1억 164만\$
 - > 임금의 국내송금과 산업차관이 경제성장의 불쏘시개

포항종합제철 건설



건설자금과 기술이전의 막후 협력자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嘉寛 1904~1987), 아소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 1898~1983), 세지마 유히(瀬島龍三 1911~2007)

포항제철 성립과정 요약

한국정부- KISA 계약	KISA 일반 기술계획 세. 가. 개. 서 제출	한국정부, KISA의 차 관고성	IECOK 중 회에서 한국 종합 채철안 부 결	이 수출입 은행이 차관 거절 =KISA인 화결	세 계획안 작성 및 대일 협력 요청	일본의 자 군, 기술 협력 고성	일본의 자 군, 기술 협력 협약
1967.10	1968.12	1969.1~3	1969.4	1969.5	1969.6~7	1969.8~11	1969.12

포항제철소 건설

- 일본 JG (아하타제철-후지제철-니폰강관=신일
본제철)의 전폭적 협력 : 설계-구매-건설 자문,
직원 연수
→ 포스코는 한일협력의 상징
- 박태준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영 위임, 보호,
박태준의 뛰어난 경영능력
- 임직원의 헌신적 노력, 뛰어난 학습

청구권자금 백서<경제기획원, 1976>

- 1기 사업(68.4.1~73.7.3)
내자 : 542억
외자 : 1억 6800만불 중 7723만불이 청구권자금(45%)
- 2기 사업(73.12.1~76.5.31)
내자 : 983억(810억이 1기사업 준공이후 3년간 이익금으로 충당)
외자 : 3억 4100만불 중 4200만불이 청구권자금(12.4%)
- 청구권자금 중 포철 투입자금
무상 3억불의 10%인 3080만불, 유상 2억불의 45%인 8868만불이 투입->1억 1948만불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총 5억불 중 23.9% 해당

역사적 교훈과 시사점

- 가계, 기업, 국가의 흥망사-> 역사의 반복성
- 공통적 사이클-> 예외가 없다
- 과거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 나침판
榮辱을 도색하는 것이 역사
- 쇠잔의 징후-> 정체성의 상실(天下興亡 匹夫有責)

초한지(楚漢志)에서 성공의 리더십을 배운다!



오 세 란 강사

초한지는 기원전 200년쯤 발생했던 일로 주인공은 항우와 유방이다.

진말한초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하대사를 경륜하고 지모 계략을 엮고
펼치던 수많은 영웅호걸과 정객 모사들의 인간상을 부조하면서 파란
만장의 사건들을 그려낸 역사 소설

(진시황제 죽음 BC210년 ~ 한고조 즉위 BC202년)

- 명나라 때 종산거사(終山居士)가 쓴 서한연의가 그 원본이라 하나 그 인물 자체도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진짜 저자는 알 수 없음.
- 전국시대를 제패한 진시황제의 죽음 이후, 억압받던 민중들이 난을 일으키자, 초나라 귀족이던 항량과 조카 항우가 난세를 틈타 대두하고, 한편에선 유방이 몸을 일으켜 천하를 놓고 대립하다가 유방의 승리로 끝나는 내용.

1. 진시황제의 최후 [기원전 259년 1월 ~ 기원전 210년 9월 10일 (50세)]

- 불로장생의 욕심, 만리장성, 아방궁
- 분서갱유(焚書坑儒)
 - 의약, 복서, 농사에 관한 책 외 모두 불에 태움.
- 진시황제의 죽음과 태자 부소
- 간신들의 득세(조고, 이사 등)
 - 거짓 조서로 태자 부소를 자결케 하고, 2세 호해를 즉위시킴.
- 2세 황제(호해)의 폭정
- 다시 혼란의 시기 (육국의 부흥)
 - ※육국 : 한,조,위,연,초,제+ 1(진)

2. 참시기의(斬蛇起義), 역발산기개세(力拔山 氣蓋世)

- 유방, 패현의 동읍 고을 정장
 - 흰 뱀을 죽이고 반란의 기치를 올리다
 - 패현의 현령이되다
- 항우, 楚 대장 항연의 손자
 - 숙부 항량의 휘하로 반란에 가담하다
 - 범중과 영포가 항량(→항우)의 모사가 되다
 - 오추마를 얻다
 - 우일공, 그의 딸 우희(虞姬)를 항우에게 주다
(항우, 맹약의 증거로 초강검을 우희에게 주다)
 - 유방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들어옴.

3. 초군의 연전연승

- 진나라 장수 장한(30만 대군), 항우의 숙부 항량을 죽이다.
- 대장군 항우, 장한을 연이어 격파하다
- 2세 황제(호해)와 환관 조고의 지록위마(指鹿爲馬)
 ※ 指鹿爲馬: 조고, 2세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아뢰다
 ☞ 조고의 간계로 이사(李斯)가 요참(腰斬)에 처해지다
- 장한, 항우에게 항복하다

4. 진(秦)의 수도 함양성 입성(1)

- 조고의 최후와 3세 황제 (자영-태자 부소의장자)의 즉위
- 유방, 함양성 먼저 입성(서정한지 8개월)과 민심을 얻다
 - 항자불살(降子不殺), 약법삼장(約法三章)
 (1) 살인자(殺人者)는 사형(死刑)하고,
 (2) 남을 상(傷)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벌하며,
 (3) 진의 법은 모두 폐한다
- 진의 멸망(自中之亂)
 - 천하통일 26년 만이고, 3세 자영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6일째
- 항우의 위약과 항백의 의리
 - 항우는 진나라 장졸 20만명을 죽여, 신안 땅에 묻음.
 - 항우의 숙부뻘 되는 항백장군은 항우의 기습작전에 자기의 절친 장량을 살리기 위해 갔다가 장량의 계략으로 유방과 사돈이 된다.

5. 진(秦)의 수도 함양성 입성(2)

- 범중의 계교 (홍문의연회)
 - 상책: 패공(유방)이 도착하는 즉시 그 죄를 물어 목을 벤
 - 중책: 2백 명의 도부수를 매복시켜 때에 맞춰 죽임
 - 하책: 만취하게 하여 실수하면 그 죄를 물어 목을 벤
- 홍문연에서 장량의 기지로 구사일생, 살아남은 유방
 - 중책, 하책 모두 실패한 범중은 항장장군에게 검무를 추게 만드나 이를 눈치챈 장량은 항백을 내세워 쌍무를 하여 유방을 지켜내고 번쾌를 연회장으로 들여 말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항우가 먼저 취해 쓰러진 틈을 타서 유방을 피신시킨다.
- 항우, 서초 패왕이 되다
 - 항복하러 온 진시황의 3세왕 자영의 목을 벤 (영포)
 - 그것을 보고 통곡한 백성 5천여명을 도륙

6. 서초 패왕과 한왕

- 항우의 논공행상(論功行賞)과 초왕 의제의 죽음
 - 논공행상을 위해 시황묘를 파다
 - 아방궁을 불태우다

- 유방, 촉으로 쫓겨가고(파촉)…
 - 항우는 장한, 사마흔, 동예를 삼진(三晉)의 왕으로 세워 촉의 길목을 지키게 하고, 한신을 집극량으로 임명함.
- 장량이 유방과 이별하다
 - 1) 항우로 하여금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게 하여, 대왕(유방)을 위해 함양을 비워 두게 하는 일.
 - 2) 천하의 제후들을 설복시켜 항우를 버리고, 대왕을 돕게 하는 일
 - 3) 초나라를 쳐서 항우를 사로잡을 만한 대원수 재목을 구해 대왕께 보내는 일
- 장량이 잔도를 불태우다.

7. 장량의 동분서주(東奔西走)

- 친구 항백의 집에서 우연히 한신이 올린 상소문을 보고 인재임을 알고 설득하여 대원수로 천거.
- 아이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여 항우가 고향 팽성으로 도읍을 하도록 유도함.
- 침주로 이궁하라는 항우의 말에 격노한 회왕(의제)을 영포를 통해 죽이라고 명하였고, 회왕(의제)은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짐.
- 우여곡절 끝에 소하의 지혜로 한신은 파초대원수로 봉해지고 초패왕 (유방)으로부터 부월(斧鉞)을 하사 받는다.

8. 동정복진

- 파초대원수 한신의 활약
 - 빨래 할미에게 밥을 빌어먹고, 건달의 가량이 밭을 긴 자
 - 엄한 군령(17개조)을 세운 한신은 훈련 시간에 늦게 온 은개장군을 유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형을 시켜 군율을 바로 세운다.
 - 위장공사(번쾌): 1만 군사로 한달 내 잔도 완성
 - 출기불의(出起不意: 뜻밖에도 어떤 일이 생김)의 계략
 - 45만의 군사를 4개대 (번쾌/ 하우영/ 한신/ 유방)로 나누어 출정
 - 삼진 (장평/ 장한/ 사마흔) 장악
 - 함양성(사마이/ 여신) 수복: 여마통을 초나라의 구원병으로 위장
- 장량의 설득 공작
 - 위왕(위표), 하남왕(신양)을 한나라에 귀복.

9. 팽성대전

- 유방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팽성으로 진군하다
- 팽성진군을 반대한 한신이 사표를 내고 함양으로 떠나고, 위표를 원수로 임명
- 팽성을 지키던 팽월은 유방의 서찰을 보고 바로 투항.
-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항우는 군사 3만 5천을 이끌고 팽성 30리 밖 수수강가에 진을 치고 결전의 전서를 유방에게 보냄.
- 유방은 제1대는 은왕 사마양, 제2대는 하남왕 신양, 제3대는 상산왕 장이, 제4대는 유방, 제5대는 위왕 위표로 편성하고 결전에 임함.
- 항우의 초천검에 제1대장 은왕, 제2대장 신양의 목이 떨어짐

- 쫓기던 유방이 예상치 않는 일진광풍과 짙은 안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
- 정공 장군이 유방을 놓아 준다.
-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유방은 군을 재정비하고 장량의 역강자구책을 통하여 직장 영포와 팽월이 항복하다.
- 장량의 지혜로 다시 한신이 복귀하고 비밀병기 전거 3천승을 영양성 30리 밖 광활한 평야에 진을 치고 결전하여 대승을 거둠.
- 팽성으로 되돌아갈 때 항우의 군사는 30만명에서 10만으로 줄어듬.

10. 배수의 진

- 한신은 대, 조, 연을 잇따라 복속시키다
 - 범중, 대한 4년 무술년 4월에 숨을 거둠 (나이 71세)
 - 조나라 (조왕혈, 진여장군)와 싸움에서 금만수 물가에서 편 한신의 전술 (배수의 진)
 - 조나라 책사 이좌거의 조언으로 한신은 군사를 재정비하고, 사절을 보내어 연왕장도 (책사:괴철)를 귀복시킴
- 반간지계(反間之計)로 범중을 몰아내다
 - 장량과 진평은 황금 4만근을 풀어 초나라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 범중과 종리매 장군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의심 많은 항우가 범중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화친의 사자로 온 종리매에게 범중의 위조 편지를 보게하여 결국은 범중을 고향으로 내 몰았다
 - 낙향한 범중은 율화가 화병이 되어 주먹만한 종기가 났고, 와우산에 거하는 스승 양진인에게 영약을 부탁했으나 덕있는 명주를 섬기라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로 약을 주지 않음.

11. 광무산 대전

- 제1진은 변괘와 관영, 제2진은 주발과 주창, 제3진은 근흡과 노관, 제4진은 장이와 장창, 제5진은 번장 누번, 제6진은 하우영과 왕릉, 제7진은 조참과 시무, 제8진은 영포, 제9진은 유방, 그리고 별동대는 한신이 맡음
- 한신이 항우와 맞대결 하면서 광무산으로 유인하고, 미리 매복해 있던 유방의 군사들이 일제히 공격하여 대승을 거둠
- 살아서 돌아간 항우의 군사는 겨우 5만명
- 허울 좋은 휴전
 - 볼모로 잡혀있던 유방의 부친 태공과 일가권속이 모두 돌아옴
 - 휴전에 들어간 항우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 우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2. 천하통일(1)

- 최후의 일전, 구리산 대전과 사면초가(四面楚歌)
 - 유방은 한신을 삼제왕으로 봉해 제나라전역을 다스리게 하고, 영포를 회남왕으로, 팽월을 대량왕으로 그 지위를 크게 높여 사기를 진작하였다

- 미친자처럼 떠돌아다니던 괴철이 불쑥 한신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삼국정립을 제언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한왕에게 반드시 응징당함을 예언함
- 120만의 한군이 성고와 영양 사이 2백리 지구에 진을 치다
- 초군은 50만 대군, 마지막 결전 앞에 범증을 생각하면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항우
- 세객으로 들어온 이좌거를 항백이 항우에게 천거하다
- 구리산 대결전: 대한 5년 8월, 기원전 202년
- 우희도 중군하다
- 항우는 하룻밤 사이에 칼과 창을 번갈아 쓰면서 한나라 장수 50여명 겨름

12. 천하통일(2)

- 사면초가(四面楚歌)
 - 장량은 음률에 소질있는 수백명의 군사를 선발하여 초가(楚歌)를 가르쳐서 불게하여 한군들의 애간장을 녹임
 - 고향의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초군은 하나둘씩 탈영을 하였고 남은 군사들이라곤 겨우 1천도 채 되지 않음
 - 군졸은 물론 장수(항백, 계포, 종리매, 우자기 등)들마저도 도망쳤으나 끝까지 남은 장수는 주란과 환초였다
 - 우희는 해하가를 남기고 자결한다
 - 주란과 환초도 자결한다
 - 항우와 마지막까지 남은 군사는 불가 28명뿐 , 그러나 마지막까지 항우는 한군 대장 9명과 천여명의 사졸을 죽였다.

12. 천하통일(3)

- 항우, 오강에서 쓰러지다
 - 정장에게 준 오추마는 스스로 오강에 뛰어들어 죽고, 마지막까지 추적해 온 친구 사마통앞에서 초천검으로 자기 목을 찌
 - 대한 5년, 기원전 202년 겨울 12월, 그의 나이 불과 31세였음
- 천하통일과 권력무상
 - 초나라의 충신이었던 옹치는 십만 후에 봉하고, 간신이었던 정공은 참수형
 - 제나라의 왕으로 봉했던 한신을 초왕으로 옮기게 하여 사후를 대비했으며, 종리매를 숨긴 죄를 물어 초왕을 거두고 연행하여 궁궐(낙양)로 데려왔고 실언(유방은 10만정도를 거느릴수 있는 그릇이고, 자기는 100 대군도 능히 거느릴 수 있는 사람)함으로 토사구팽(兎死狗烹)함.
 - 결국, 한신은 진희를 띄여 모반을 꾸미려다 발각되어 참수 당함 (기원전 196년 9월 11일)
 - 괴철은 유방에게 한신의 수급을 받아 한신의 고향 회음땅에 장사 지냄
 - 장량은 유후의 관직을 사양하고, 병을 핑계삼아 종남산으로 들어감.

좋은 생각 좋은 글



- ◇ 영화 <오징어게임>과 한국사회의 갈등
- ◇ 최후의 보루(堡壘), 연전연승 홍범도 장군의 귀환
- ◇ 계산마을 문해교실
- ◇ 과유불급에 당황하는 전제 장군
- ◇ 두 번 살려주신 이유
- ◇ 인간관계 내면소통과 행동
- ◇ 양과 같은 사람
- ◇ 인생 (人生)
- ◇ 만옥정공원 팔십년의 변천(變遷)
- ◇ 용의 눈물
- ◇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 한다
- ◇ 청보리밭의 오솔길

문경주
문경주
배종만
전점석
김동식
진영출
심재만
진태홍
김동주
이성춘
이성춘
주영숙

영화 <오징어게임>과 한국사회의 갈등

문 경 주
회 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 · 1889~1977)

한국 사회의 계층 갈등은 학벌과 학력 차별의 벽은 높다.

가짜 학위 이력서가 활보하였고 서열 중심의 교육 구조가 만들어낸 병폐이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코인, 부동산, 주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비루해지는지 극렬히 보여주는 서사극이다. 자산 가격 폭등은 계층 고착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 오징어게임은 힘겨루기와 집단적 전략이 땅에 오징어 그림(○□△)을 그려 놓고 즐기는 우리나라만의 민속놀이이다. 경계선을 그어 놓고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는데 넘으면 두 발 공격조와 이를 막으려는 넘으면 두 발 수비조가 영키면서 氣(에너지)가 집중된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빗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넷플릭스에서 2021년 9월 17일부터 방영한 한국 오리지널 영화 <오징어게임>은 456명의 사람들이 상금에 목숨을 담보로 걸고 진행되는 ‘죽음의 게임’이다.

“지면, 몸으로 때우면 되는 게임! 오징어게임” 어릴 적 골목 놀이인 오징어에서 따 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빗에 쫓기어 거액의 상금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린다. ‘참가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게임이 중단될 경우 사망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이 지급되며 게임이 끝나고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전원 무사 귀환한다는 조항의 규칙대로 156명이 오징어게임에 참가, 그곳에서 단 한 명의 우승자만이 156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게 되는 서바이벌게임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활고에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상금을 놓고 벌이는 잔인한 폭력과 경쟁을 통해 인생을 바꿀 단 한번의 기회에 목숨을 바치기로 한다.

새로운 출발선은 낮설고, 어렵고, 잔인하고 냉혹하기 그지없다. 관리자들은 핫핑크 색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참가자들을 관리한다. 잔혹함에도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이 따뜻하다. 6번의 게임을 하는 동안 이기면 거액의 상금을 받고 나가게 된다.

지상 400m에서 낙하, 팀 2명을 탈락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바닥에 오징어를 그려 놓고 공격팀(머리) 수비팀(다리)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는 무한도전이다. 왜? 누가? 오징어게임인지? 누가 만들었는지도 전해지지 않고 골목에서 놀던 놀이, 그저 그 모양이 오징어 같아서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되면서 집단학살로 유혈이 낭자한 살육극이 벌어졌다. 움직이거나 단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총살당한다. 죽으면 화장을 하고 불법으로 장기를 척출당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강한가? 무한 경쟁에서 밀려난 루저들이 모여 게임을 하는 몽환적 공간이다.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규칙에 따라 1라운드의 생존자들이 투표를 하고, 결과에 따라 게임장을 나온다. 패자 부활이 살아남기를 강요하는 현실은 냉혹하다 못해 처절하다. 피로 얼룩진 공포 속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기훈: 456번 1에서 9라는 숫자 중, 중간에 배치되어 있다.

중간 숫자의 무리인 456을 부각시켰다. 보통 사람들과 그들의 심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그전에는 평범한 중산층인 중년의 남자이다. 궁지에 몰린 현재 상태를 대변한다.

구조조정으로 실직 이후 와이프와 이혼, 딸과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딸 가영이 생일이라는 말에 기분이 복잡해지고 엄마의 당뇨병도 치료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자 흠친 카드로 돈을 출금하고 경마장에서 배팅을 하며 큰돈을 따게 되지만 행복도 잠시 소매치기당하여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한다.

지하철을 놓친 기훈이 앞에 낯선 남자가 다가와 딱지치기를 제안한다. ‘이길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돈이 궁핍했던 기훈은 딱지치기 게임을 하여 질 때마다 뺨을 맞다가 한 판 이기자 10만 원을 건네받는다.

돈을 쥔 기훈에게 낯선 남자는 명함을 건네주며 “오늘 신체 포기 각서도 썼고 이름, 성명, 나이, 학력”까지 기훈에 대한 상세정보를 꿰뚫어 보듯 술술 말하며 뒷조사를 다 했다고 하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며 암호 같은 숫자 8650 4006이라는 명함을 건네주고 홀연히 사라진다.

딸 가영이 전처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사실에 착잡해지는 기훈은 인생 한방을 목적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곤 봉고차에 오른다. 차에 타자마자 수면 가스를 마신 기훈은 깊은 잠에 빠지고 깨어나 보니 많은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관제실과 빨강 옷을 입은 관리자들 유일한 검정 옷의 남자, 모두가 똑같은 초록색 체육복을 차림으로 456명의 참가자 중 기훈은 456번째 참가자로 데스 게임을 하는 섬(인천 선갑도)에 참가하게 된다.

게임장에 강새벽, 조상우, 오일남, 장덕수, 한미녀, 알리 등이 속속 등장하며 출연자의 라인업이 이루어진다. 막상 게임이 시작되자 눈 앞에 펼쳐진 공포의 현장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는 투표를 통해서 진행, 바깥세상에서 이들이 처한 현실은 게임만큼이나 가혹했다.

오일남 : 게임의 호스트 1번 최상류층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한 번호이다.

자신을 돈을 굴리는 사람이다. 오직 일등만 한 남자로 큰 부자들을 고객으로 삼았다. 딸 그대로 승부의 화신, ‘게임의 신’을 뜻하는 네이밍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니 삶이 무료해지고 재미가 없어졌다.

조상우 : 화이트칼라형 서울대를 졸업한 수재,
주식투자자로 빛을 지게 되어 게임에 참가 그곳에서 동네 형 기훈을 만난다.

강새벽 : 탈북자인 그녀는 북의 엄마를 만나기 위해 소매치기를 하며 돈을 모은다.
동생은 보육원에 맡긴 채 죽기 살기로 돈을 모은다.

알리 압둘 : 외국인 노동자 정당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는다.

강덕수 : 폭력배 이곳에서 새벽을 만날 줄 몰랐다면 무섭게 그녀를 노려본다.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욕하는 덕수에게 새벽은 너에게서 독립한 것뿐이라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기훈은 새벽이 경마장에서 돈을 훔쳐 간 여자란 것을 알고 떡
살을 잡고 덕수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다짐을 하는 사이 게임 관리자가 등장한다.
앞으로 6일간 6개의 게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전사’했다.
각각의 스토리가 많아 시즌 2의 프리퀀을 만들 수 있다.

단체전에서는 편을 나누어 끼리끼리 뭉치는 참가자들 숙소에 불이 꺼지면 누구
도 안전할 수 없다. 게임에 유리한 멤버들도 팀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이다.

그들에게도 평등한 세상을 엿볼 수 있었다. 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번
갈아가며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 같은 시각, 큰 위기에 봉착한 붉은 옷의 사람들,
위기의 원인은 함께 일하는 공모자들이다.

그들에게 “간부”란? 어린 시절 새끼손가락을 걸며 친구, 짝꿍, 동료, 내 팀이라
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동네에서 구슬이랑 딱지를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썼다.

기훈이 도덕적 딜레마에 휩싸인 사이 일남은 주최 호스트였다.

학살의 현장에서도 혼자 해맑게 웃으며 게임을 즐긴다. 상우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에 굴복한다. 새벽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어린 시절 ‘놀이’를 즐기며 보낸 추억이 행복한 삶이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결국 기훈은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된다.” 게임에서 승리하여 상금을 받지만 소중한 엄마는 죽고 돈 이란에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던 날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악과 공포의 현장이었다.

지옥의 64분 참가자들이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고 우산을 쓴 남자, 미지의 세계로 무사히 잠입한 준호는 때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쫓려도 편먹기는 단체전이나 게임에 유리한 팀이 우승한다.

평등한 세상은 큰 위기에 봉착한 붉은 옷의 사람들 위기의 사태에 대비해 불침번을 선다. 간부 2인 1조로 진행 기훈이 도덕적 딜레마에 휩싸인 사이 상우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에 굴복한다. 새벽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프런트맨 게임 VIP들은 특별관람석으로 안내한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참가자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프런트맨 게임에서 이기고 숙소로 돌아온 소수의 참가자들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려고 준호는 탈출을 감행한다.

운수 좋은 날 1년 후 12월 24일 PM: 11시 30분 SKY 빌딩 7층 당신의 간부로부터 초대장을 받아 찾아가 보니 늦은 줄만 알았던 그의 간부가 마지막 게임을 하자고 한다. 오일남 할아버지의 긴장감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게임에서 이기고 돌아온 참가자들은 기쁨보다는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려고 탈출을 감행한다. 최종 승리자는 1번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남자다.

오일남은 큰돈을 벌면서 살아온 치열한 삶을 통해 가장 간절한 순간 돈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은 몹시 추악한 것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기훈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래도 사람을 믿는다.’라는 서로 엇갈린 입장에서 벌어진 게임이다.

1화와 9화의 시작이 같은 ‘수미쌍관(首尾雙關)식 구성이다.

마지막 기훈과 상우는 최후의 2인으로 남았다. 기훈이 승기를 잡았지만 승우에게 게임 포기를 제안한다. “게임 규칙에 따라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우는 이에 불응하고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다. 최후의 1인으로 남은 기훈 호불호가 갈리지만 경쟁만 하고 살아온 MZ 세대들에 정주행만이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믿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상의 인물로 이합집산과 속임수, 뇌물, 배신으로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우수한 대학을 나오는 것도, 죽음의 공포라는 감정의 게이밍을 통해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지각과 인지는 오로지 자본에서만 나온다.

돈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좇으려는 욕망 때문에 삶이 재미없다.

이 게임의 설계자 오일남은 자신을 “돈을 굴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숨을 거둔다. 게임을 통해 자본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기억들을 리셋 시켜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그들의 감정에 가닿다 보면 규칙이란 허망한 일이다.

소꿉친구는 불알친구 그 시절 그림자
동반자는 혼연 일체감으로 끝까지 가 보자
길동무는 길을 묻고 잠깐 마음도 꺼내주고
여행 친구는 동전 같은 이웃
술친구는 걸림 없이 시비 틀다 깬부 된다

-自作詩, 행복하니

인생의 반환점에 돌아섰는데 이타적 사랑,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예술을 즐기며 느끼고, 기술을 연마, 창작, 마음속에 그려 왔던 한발 한발 아름다운 것들 인연으로 돌아와 전부인 듯 소중한 시간 내 곁에 함께 했기에 순간들을 기억하며 꽃잎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난 아직 질 때가 아닌데 서로를 지키는 바람막이 되어 흔적을 남기고 풋말처럼 삶이 풍성하다.

오징어게임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의식 속에서 기훈이 내몰렸던 대안을 모색하는 리얼리즘이다. 자영업자의 파산, 경매 도박, 신체 포기 각서,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등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사생화(寫生畵)이다.

대장동 사태는 고작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수령하고, 자식을 의사 만들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박사 논문을 품앗이하는 어지럽고 암울한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가 ‘데자뷰(dejavu)’ 처럼 겹쳐 보인다.

이것은 ‘부의 양극화’ 문제와 맞대어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편법을 쓰던 술수로 쓰던 어찌던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지탱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오징어게임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앞에서 땅에 떨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묻고 있다. 아울러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일부 리더나 지식인들에게 “공정이란 무엇인가?” “정의이란 무엇인가?”를 되묻고 있다.

1998년에 개봉된 블랙코미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명장면 중에는 유대계 이탈리아 사람인 아버지(귀도-배역 : 로베르토 베나니)가 다섯 살이 된 아들(조수아-배역 : 조르조 칸티리나)에게 “수용소 생활은 단체게임”이라고 말하며, “이기면 1,000점을 따는 우승자에게 진짜 탱크가 주어진다.”고 말하며, 유쾌하게 행동한다.

이 말을 진짜로 믿은 어린 아들은 무사히 잘 숨어 목숨을 보존한다.

이 영화<오징어게임>을 보는 내내 <인생은 아름다워>가 생각이 났다.

영화<오징어게임>나 영화<인생은 아름다워>나 목숨을 걸어놓고 게임을 한다.

잡히면 또한 보이면 바로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살벌한 게임에서 영화<오징어게임>의 간부, 영화<인생은 아름다워>에서의 아버지와 같이 간다면, 그래도 살아가면서 좋을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

최후의 보루(堡壘), 연전연승 홍범도 장군의 귀환



문경주
회원

최근 장군 흉상을 두고 광복절(8월 15일) 113주년에 연일 TV 속은 시끄럽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陸士) 밖으로 이동하려는 문제를 두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빌미로 공산주의 내모는 것은 역사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

그 당시 독립애국지사들은 소련과 손을 잡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후 세대는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평전(評傳)하여 역사적, 국가적, 민족적 전통을 새롭게 조명하고 국민 63.7%가 흉상 이전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었다.

‘역사를 잊은 자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다섯 분(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의 독립 전쟁 영웅 중에 유독 홍범도 지우기에 나선 ‘홍범도 함’도 명칭 개명에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장군은 1943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이 결성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1. 그때, 생애의 징검다리에서 장군은 부모 없는 고아로 자라야 했다

한 말 독립운동가이며 만주벌 호랑이, 초기 항일 투쟁의 명장,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여 신출귀몰한 군인이던 여천(汝天) 홍범도(洪範圖·1868~1943)는 이조 말엽인 1868년 8월 27일, 평양 외성 서문 안에 있는 무열사 근처(현, 평양 중구역

서문동 만수대예술극장 인근)에서 양반댁에서 머슴살이하는 아버지 홍윤식(洪允植)의 아들로 태어났다.

장군의 증조할아버지인 홍이팔은 홍경래(1771~1812) 난(亂)에 가담하여 처형되었다. 한마디로 역적 되어 집안이 풍비박산된 할아버지 홍동철은 멸족(滅族)에서 살아남은 식솔을 이끌고 평양에 숨어 살게 되었다.

홍범도 장군(이하 장군으로 표기表記)이 태어난 1868년의 동아시아는 한마디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즉, 장군이 태어나기 5년 전에는 1863년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水雲) 최재우(崔齋愚)가 대구 감영에서 사도난정(邪道亂正)의 죄목으로 참형에 처해진 해(年)이다.

또한 장군이 태어나기 4년 전인 1864년은 흥선대원군이 11세의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장악한 해이다. 대원군은 국내는 유교의 유민정책을 내세워 왕권을 강화하고 국외는 개항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에 맞서서 강력한 쇄국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게 되는 대원군이 권좌에 올라간 해(年)이기도하다.

일본에서 1868년은 메이지(明治) 원년으로 일본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는 해(年)이며, 중국에서는 영국의 2차 아편전쟁(1856년)과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亂)(1850~1864)으로 청 조정 내부에서 양무운동이 일어나 ‘자강과 부의추구’를 추구하였으나, 서태후에게 집중된 권력층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청일전쟁(1895년)에서 무너져가는 국력의 한계점을 절감하게 된다.

아버지 홍윤식의 본관은 남양홍씨(南陽洪氏)이며 어머니 단양 이씨는 홍범도가 태어난 지 칠 일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심청전』에서 주인공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가 젓동냥으로 심청이를 키우듯이 장군의 아버지는 홍범도를 젓동냥으로 키웠다.

아버지는 직업이 양반집의 머슴이라는 기록을 보니, 지금으로부터(2023년) 155년 전은 이조 말엽이라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장군의 집안은 최하층 신분이라고 여겨지며, 일상에서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였기에 장군은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자랐을 것임이 틀림없다. 여기에다가 장군의 아버지는 장군이 9세 때 세상을

하직하였다.

9세라면 철이 들기도 어린 나이로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해당된다. 그러니 아버지의 장례식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도 못하고 ‘범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태어나면서 ‘인생의 짐’도 많이 무거웠으리라고 생각된다.

부모 없는 고아로 어린 나이에 숙부의 집에 얹혀서 살면서 지주와 소작관계, 양반과 상놈의 차이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된 것 같다.

숙부 집을 나와서 더부살이 머슴살이로 들어간다. 이때 자기 앞의 난관을 뚫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무관(武官)의 기상을 이때 배웠을 것으로 본다.

실패하고 천대받은 천민의 밑바닥 인생에서 몸을 일으켜 청사(靑史)에 이름을 올렸다.

1883년 평양 진위대 보병대에서 병정을 모집한다는 소문에 군에 입대하여 평생 무인의 길을 걷는다. 구한말 지방군대인 신건 친군에 입대한다.

머슴살이가 싫어서 2살 나이를 올려 속이고 우영 제1대 소속 나팔수로 들어가 뛰어난 사격술을 뽐내었다.

부대에서 차별과 폭행이 난무하자 자신을 괴롭히던 상관에게 사고를 치고 탈영을 한다. 군대 다음으로 향한 곳은 1887년 황해도 수안군 총령의 종이 뜨는 제지 공장이었다. 그곳에서 사장은 흥범도가 오갈 데 없는 고아란 걸 알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며 임금도 주지 않아 부당한 대우에 폭발하여 사고를 쳐 도망쳐 나왔다.

1890년 23세 때 지담 스님의 상좌가 되어 절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회고하기를 “가장 편안한 생활”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단양 이씨(食客僧)라는 젊은 비구니 여승을 만나 하룻밤을 같이 보낸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그녀를 놓치고 만다. 혼자가 되었을 때 정분을 나누는 여인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남자의 욕망이란 내 씨앗을 잉태한 나의 분신과 같은 아녀자의 살 냄새를 맡고 싶었다.

1895년 을미의병 시기까지 10년 동안 강원도 북부 산악지대에서 평범한 사냥꾼이 되어 사냥을 하면서 살아갔다. 함경도 북청에서 단양 이씨와 자식을 5년 만에 만난다. 아내의 고향 북청군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호구지책으로 3면이 산악지대라 총을 들고 사냥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총이었다.

2. 그 자리, 삶과 동행한 총구가 일본군을 향하다

일본이 국정을 간섭함으로써 각처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났다. 장군도 강원도 회양군 고갯마루에서 포수 28세 김수협 등을 알면서 녹두장군의 영향을 받은 14명과 함께 거병을 결의하고 의병을 일으켜 권세가와 부패된 일제의 매국노, 친일파를 척결하려고 결심한다.

철령에서 일본군 12명을 사살하고 함경도 안변의 학포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는 안산, 안평, 사냥꾼, 조합 사포계를 만들어 포연 대장이 되었다. 김수협 등 여러 명의 의병들이 도주하고 죽는 바람에 해체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난다.

고종은 강제로 폐위되고 조선 군대까지 해산시켜 버린다.

정미년(丁未年·1907년) 의병이 일어났다. 1907년 정미의병 직후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장군은 사냥꾼으로써 지아비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행복했던 날이 물거품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수거하려하자 장군은 11월 차도선과 70여 명이 ‘산포대’라는 이름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산짐승 잡듯이 ‘하늘을 나는 장군’으로 총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일본군에게는 눈에 가시였다.

1895년 전국적으로 의병봉기에 자극을 받고 있던 중 갑산(甲山), 삼수(三水), 혜산(惠山), 풍산(豐山) 등지에서 일본 수비대를 격파하였다. 민족을 배신한 일진회 회원과 친일파, 왜적들은 무참히 섬멸하였다. 한결같은 자신의 연전연승의 신화를 쓰며 인정을 받는다.

신출귀몰한 그는 일본 수비대를 공격하여 일본군을 혼비백산 총포와 활 등의 무기를 수집하여 비장(秘藏)해 놓고 적기(摘記)를 노렸다.

여기저기 흩어져 잠복해 있다가 소총으로 쏘아 포위하여 적의 도망을 못 가게 봉쇄 시켜 적들을 섬멸하였다. “총을 빼앗겨 굶어 죽느니, 왜놈을 때려죽이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현하였다.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총을 압수당하자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결심을 한다. 산악지대 산포구 의병으로 후치령(1335m)의 험준한 고개 북청군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의병의 근거지로 교통의 요지이다. 일본군이 자주 출몰하는 길목이다.

일제 군경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다. 일본군 원정대가 산포수의 무기를 뺏으려고 차도선, 송상봉과 함경도 일대에서 조직을 결성하여 첫 봉기를 일으켰다.

3. 박승환(1869~1907년) 자결 이후 부하들은 피눈물 흘렸다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의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에 반대하여 자결하였다.

19세기 후반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유생들의 반대는 극에 달했지만 이 틈에 일본을 등에 업고 출세하려는 이들은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확장 시켜 나간다.

조선 말기 삼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이 극에 달해 부패와 구타가 심하였다.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년 10월 8일)은 일본 공사 미우라가 끌어들이는 낭인들이 궁궐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살해의 원인은 황후가 러시아를 동원하여 일본과 맞선다는 이유이다.

그 후 일본의 압력으로 단발령이 강행되어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촛불처럼 들고 일어난다. ‘을미의병’이다.

‘의병이란?’ “나라가 위급할 때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 왜적과 맞서 싸우며 대항한다. 1904년 한일 의정서와 한일 협약을 강요한 뒤 1905년 을사년, 을사조약의 늪결이 되어 전국적 민심이 격앙되어 조약반대 투항에 국권회복을 위해 앞장섰다.

을사늑약 후 사회적 배경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일제의 강요에 의해 한국을 무력 동원하여 강제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외교권을 빼앗았다.

그야말로 망국적인 행위이다. 외세들과의 투쟁으로 청, 일 → 러,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일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일본군 정예 병력이 전 국토를 침략하여 의병을 탄압하는 주민을 억압하고 항일 투쟁을 막았다.

8월 제2차 영, 일 동맹 가쓰라 태프트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밀약을 맺고 영국 → 인도, 미국 → 필리핀의 일본 →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

내용은 미국, 영국, 일본 3국은 동맹관계를 맺고 러·일 전쟁의 원인 중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체결이다.

친일 매국노 5적에 의해 한국의 국권을 빼앗는 조약이었다.

이것을 일본은 ‘한·일 보호조약’이라 부른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을 ‘보호’라 주장하고 ‘늑약’(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부른다.

조약은 국가 간에 평등한 조건 하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그럼에도 주권 침탈의 모든 행위는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게 되었다. 국새의 서명, 황제의 승인과 날인을 받지 않은 불법으로 체결된 조약이었다. 경제 침탈, 민족말살, 인권침해라는 멍에를 씌웠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 받게 되자 고종은 끝까지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했음에도 승인도 비준도 하지 않았지만 을사오적만이 조약에 동의하였다.

이에 민영환(1861~1905년)이 군사 무력으로 강제 집행된 외교권과 국권을 강탈 당하자 11월 30일 을사조약에 항거하며 한성부 자택에서 자결하였다.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이라는 미명 아래 식민지로 점령하며 대한제국은 멸망하였다.

정미의병(1907~1910) 간에 일어난 사건들로 고종 퇴위, 정미 칠 조약체결, 군대해산을 두고 ‘구국항일우력전’의 총칭을 일컫는다.

1907년 11월 22일 오후 4시경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다.

해산 군인들은 자의로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의 규모와 전력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유생 이외에 천민, 평민등 대거 등장하면서 상인, 공인, 노동자, 농민 등 전 계층이 의병항쟁에 동참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헤이그밀사사건으로 고종이 퇴위하고 조선 군대의 해산으로 참령 박승환이 자결 하므로써 군인들은 남대문에서 일본군과 처참한 교전을 벌였다.

군대해산 이후 전술전략을 확대하여 활동의 반경을 넓히고 의병 전쟁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한 유격 전술이 통하였다. 충구를 왜적에게 맞춘다. 총소리가 메아리친다. 일본군의 순사가 쓰러지고 매복하다가 사격을 가한다. 후지령에서 날쌔 유격전법으로 일본군 수송대와 보병 2개 소대를 전멸시켰다.

이 전투가 항일무장 투쟁으로 본격적인 전환점을 가져 온다.

기습 공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여 첫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의병부대는 동료들이 총을 압수한 건 일본군들이다. (신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을 강화하였다.)

의병부대 vs 일본군(70여 명)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투쟁을 지속하니 조직력과 기동력이 발전되었다. 3시간 격전하여 30여 명을 살상하였다. 일본군은 화력은 우세하였지만 세 시간의 접전으로 전투 중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군은 도망갔다.

연달아 산악지대의 지형을 다 알고 하늘을 날으는 홍범도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강원도와 함경도 (평남진, 연화산, 통팔령, 후지령, 운송리, 갑산, 혜산, 삼수, 청진, 달아치, 천불산, 함흥, 한 대골)의 60전 60승으로 연전연승의 신화를 썼다.

내면의 깊이가 깔려있는 전술가였고 500~700명까지 의병 수를 늘려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다.

4. 또 다시 찾아온 위기

1908년 초에는 전국 의병장들이 연합에 의한 서울 진 공격전이 추진하여 동대문 밖 30리까지 이르렀으나 패퇴하고 말았다.

호남에서의 의병이 치열하여 전국적 대규모 의병항쟁으로 마지막 항쟁이었다.

1908년 4월 친정에서 아들(홍양순)을 키우고 있는 아내를 만났지만 홍범도를 잡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삼아 남편에게 귀순을 권하는 편지를 쓰라는 협박

“실 끝 같은 내 목숨 없어진다면 그뿐 내가 글을 쓴다고 영웅호걸인 내 남편은 나 같은 아녀자의 말을 곧이듣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글을 쓰지 않는다” 단양이씨에도 완강히 거부하며 끝까지 버텨 가혹한 고문 끝에 후유증으로 아내를 잃었다.

큰아들 홍양순은 투항을 권하는 편지를 홍범도에게 가져갔다.

귀순 청원 편지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홍범도가 보인 행동은? 양순에게 충구를 겨누며

“지금 네 놈이 왜구의 앞잡이가 돼서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일제의 회유를 거부한다.

홍양순은 아버지와 함께 항일 무장 투쟁에 동참하다 6월 16일 함경남도 정평배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홍범도 일지-

일제와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둘째 아들은 병사로 사망했다.

가족이 자신의 항일 운동 때문에 목숨을 잃고 더욱더 민족의식이 생겨났다.

5. 역사는 반복된다

10월 동지 3명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근거지를 옮긴다. 뱃속 깊이 친일과 애국을 일삼는 자들은 그대가로 자식을 출세시키고 천민 출신의 의병이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되면 그 이름 석자를 지우기 위해 애쓴다.

차남 홍용환도 연해주로 이동해 의병활동을 하였으나 결핵으로 병사하였다.

가족의 죽음 이후, 항일 운동에 더 몰두한다. 가족을 잃은 분노, 병력을 모으고 싸웠다. 일본군의 의병 탄압은 갈수록 심화 되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1908년 11월 국경지대 인근 국경을 넘어 조선을 떠난다.

연해주(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주로 한반도 북부와 인접한 지역) 연해주에서도 어려웠던 의병 활동으로 일본과 외교 마찰을 우려한 러시아가 독립운동을 감시하는 상황이었다.

1909년 6월 고국으로 돌아와 북청, 갑산, 혜산 일대에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6. 반만년 역사적인 일, 국권을 빼앗기다.

1910년 조선으로부터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합병되었다.

한·일 합병을 위해 일본제국 제18대 내각 총리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초대 총독으로 조선으로 들어온다.

장군은 길림성의 백두산 인근 장백현 일대에서 독립군 양성에 힘쓰다 1977년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일본→홍범도→러시아 갈 곳 없이 진퇴양난이 된 상황으로 호랑이를 사냥하듯이 때를 기다렸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정규사단의 병력과 승리로 이끈다는 건 그의 리더십과 전술지휘 전술작전 운용 능력은 무장독립투쟁사의 승리를 이끈데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 잔주(시베리아 내전)할 때 일본군이 연해주에 진주하였다. 소련 공산당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때 일본군은 홍범도를 포함 조선 무장 독립운동 단체도 적극적인 교전을 벌임과 동시에 자신의 편이라 여기는 적 위군과도 손을 맞잡는 게 관례였다.

1919년~1920년 빨치산 활동(비정규 게릴라 부대 partisan의미) 3.1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화룡을 개시한다. 10월 함경남도 혜산진 일대에서 유격전을 벌인다.

3월 홍범도 산하 '정일제일군'으로 국민회를 직할한다.

5월 '대한 북로 독립군부'로 개편하여 최진동(사령관) 안무(부관) 홍범도(연대장) 중대장으로 4인 조직을 편성한다. 최진동은 국민회에 가입하는 조건부로 집에 군대를 머물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

독립군 중대가 최진동 저택에 머무르던 중 홍범도 의병대에 패배했던 야스카타 소좌가 300명 대부대를 이끌고 봉오동으로 찾아왔다.

6월 봉오동 전투를 치른다. 봉오동의 산형지세를 이 잡듯이 알고 있던 그는 그 물망 포위하듯 일본군 마을 기슭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시키고 일본 정규군 300명 중 120여 명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군을 대패시킨 항일 무장 독립운동에 길이 남아 빛이 났다.

조선 독립군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훈춘사건’은 일본이 간도지역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일본 영사관 조폭을 시켜 자기 영사관을 습격해 달라고 사주한다.

일본군이 중국 간도로 넘어간다. 1개 사단 병력 242명 민간인을 학살시킨다.

그 결과 외교부 공무원 9명을 죽인다. 그것을 빌미로 국경을 넘는다.

북로군에서 김좌진이 진을 치고 있고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이 온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일본군 사단 병력 2만 5천 명이 뒤따라온다. 청산리(대첩), 고동하, 어(랑초)전투, 천수평, 백운평 등 임시정부 산하 김좌진(대한 광복회), 북로군정서(대중교에서 만듬) 연합해서 승리를 한다.

10/1이 많은 숫자에 조선의 병력은 2,500명 vs 일본군 25,000명 6일간 10여 차례 전쟁을 치렀다.

1920년 10월 ‘경신참변’ 청산리 전투를 치른다. 독립군 토벌을 위해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과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회 전투를 치른다.

10월 21일 ~10월 2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왜군 1,200명 사살 독립군 100여 명의 전사자가 나올 정도로 일본군 간도 이래 최대규모 전투였다.

12월 청산리 대첩 직후 민간인 3천여 명 학살이 되었다. 가축도 인명도 죽었다.

일시적인 방편으로 북쪽으로 후퇴한다. 북만주 밀산부로 옮겨가서 독립군을 재정비하였다. 홍범도의 성격은 호걸의 기풍이 관골하여 불굴의 의지로 리더십을 자리매김하며 일행들은 그를 수호신처럼 따르며 존경과 함께 신(神)과 같은 숭배를 받는다,

7.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호라, 수치의 병혁(兵革) 지난날과 다르다. 나라가 땅속으로 꺼져 진멸 당하도다. 애닦다!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픔을 어찌 헤아리지 못하오리까?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노니 장절한 죽음은 침묵(沈默)의 함성 죽어서 쇠사슬 매어 있으니 붙잡고 일어서리라. 홍범도 그의 일생은 이율배반도 이중성도 없었다.

“3천 년 강토 빼앗기니 500년 종사는 끝났다.” 읍축(泣祝)하노니, 가슴 깊은 골 애닦은 못 세월에 숨이 턱턱 막혀 온다. 억천만배의 기운으로 살아서 흔들리지

않으려 다시 재건하세! 숨죽이며 단결하세! 난 괜찮네. 자유독립만세!

조국을 잃은 슬픔은 국가와 민족이 최우선이기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충절의 기백 늪에서 휘적이듯 웃으리라.

“공산당 이력이 있으면 내 가족과 고려인 동포 50만 명도 모국의 적인가?”

〈〈9월 1일 카자흐 동포 단체 회견 중〉〉 레닌의 사회주의와 스탈린의 사회주의는 동일 하지 않다.

홍범도는 레닌이 만나자는 전갈을 받고 모스크바 ‘원동민족혁명단체회의’에 참가를 한다. 크렘린 접견실에서 ‘격전의 항쟁’ ‘반제국주의 투쟁’ 업적을 이야기 하니 레닌의 이름이 새겨진 마우저식 권총, 외투, 격려금 200루블을 선물을 받았다.

‘흑하사변’으로 감옥에 들어간 독립군 대원을 석방해줄 것을 레닌에게 부탁을 한다. 그 날 이후, 그의 외투엔 레닌에게 받은 권총을 자랑스럽게 차고 있었다.

1922년 10월 스탈린의 등장으로 소련 영토 내 한인 무장 활동을 금지하는 바람에 일본군도 철수하고 홍범도의 무관 생활도 마무리되었다.

1921년 소련 연해주(구 러시아) 우랄산맥에 있는 모스크바 쪽은 공산화가 되어 북로 때 대한 독립군단을 대통합한다.

러시아 백색군은 자본주의로 나뉘고 소련 적색군은 소련공산주의로 러시아가 내전중이었다. 우리 독립군은 땅을 주겠다는 러시아(소보보드니) 자유시 편을 든다.

소련으로 이동하여 자유시로 옮긴다. 장군은 소련 적색군을 지원하였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막상 승리하자 땅을 주지 않고 소련한테 배신을 당한다. 그로 인해 우리 독립 운동가들끼리 600여 명 서로 총질하여 죽어 나간 시체들의 피로 얼룩졌다.

그 당시 장군은 부재중이라 일보고오니까 동족들끼리 싸워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구해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한 회의감으로 환멸과 탄식을 하며 더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못한다.

이데올로기로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적으로 돌아선다. 1937년 중앙아시아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킨다. 일본 본토에 들어가니까 조선인 연해주 교포(구, 소련)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다.

40일간 독립 운동가를 기차로 실어 나른다. 그곳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이는 황무지와 다름없는 사막에서 토굴을 파서 농사를 지어 정착을 한다. 그 후손들을 고려인들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광복되기 2년 전 소련 공산당 가입 27년 그때 상황은 맞고 지금은 틀리다. 소련과 조선은 협력을 할때이고 지금의 공공의 적인 소련과 미국은 서로 한 편이 되었다.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쓸쓸히 말년을 보내고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밀려났다. 러시아 정부의 적대 정책이 강화되어 공산세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한 독립군의 후예가 아니라 일제에 부여했던 친일 군정의 후손들로 구성된 정부인가?

털모자에 허리엔 소련 권총을 차고 백의민족의 뿌리째 뽑혀나가는 수모를 겪고 하루하루 흉상 철거로 인한 모욕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실의 정경을 보게 된다면 71년의 생을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길 바란다.

세계가ダイナ믹하게 돌아가더라도 한 번쯤은 최후의 순간까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동지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각오로 '조선 독립의 무장 투쟁'으로 전투태세를 준비하며 의욕에 불타 있었다.

간혹 간신들의 모략에 목숨이 위태로워도 살신성인 백의종군하였다.

봉오동 전투 성과를 이루면서 그의 이름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많은 민간인 영웅들이 천시되어 묻혀 사라져갔다.

빨갱이 색깔론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홍범도 그는 불의를 참기 어렵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체포, 투옥으로 처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떠한 공로와 업적을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독립을 보기 위해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민족의 자주권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만 하다 떠났다.

조국의 해방도 보지 못하고 사심 없는 그의 노고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해방 2년 전인 1943년 말년은 타국에서 사망하였고 2021년 8월 15일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어 고국의 영웅으로 돌아왔으나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자신의 안

위와 생명을 걸고 민족 해방 투쟁에 참여한 대가로 가족을 잃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과 국가를 지키려 서거 80주년인 지금에 와서 고난의 행진 끝에 쓸쓸히 극장 문지기로 탄압받는 생을 마감하였다.

전쟁의 종식과 광복을 보지 못하고 쓸쓸히 타국에서 1943년 10월 25일 마지막 생을 내려놓았다.

민초의 아들로 태어나

역사를 잊은자는 미래가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토사구팽(兔死拘烹)

흉상을 뚫어내고 다스려 본들

이미 하늘과 땅에서 대노하니

철회하라 철회하라

빛발치는 정언(正言)들은 어찌 잠재우리오

봉오동대첩 공의 업적이 뛰어나시니

신출귀몰로 하늘을 날았다

천만리 이역 땅

통일 조국의 사표로

후손없이

크즐오르다에 잠들다

이념과 사상을 똑바로 가르쳐라

오래도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내 생애 단 한번 조국을 지키려 소련군 입당하였다

강물도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간다

자연이 그러하듯

지금에 와서 할 말을 잊었다

세월은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다

나의 이력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의 아둔한 머리로는 고국산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나 다시 고려인으로 돌아가게 해 줘세

꽃다운 내 아내는 일본인의 고문 휴유증으로 죽고
아들은 투쟁 중에 객사했거늘
조국을 위해 목숨 받쳤건만
돌아온 건 씩은 누명 숙청한다
치졸함 지휘하고
꼭 행살에 갇힐 것일세

정표 578492 공산주의가 아닐세
극장 문지기로 어렵게 살아왔다네
홍상 철거
이념 논쟁의 정의와 불의에 맞서
고국은 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하고
모욕을 주고
단 한명의 혈육도 없는 나에게
조국 해방을 위해 일생을 바친
나 이제 고려인으로 돌아가려다
조국의 헌법은 유용한가?

아직도 치욕스러운 나라를 잊었나?
왜그리 왜적을 사랑하다 못해
간신배들이 많아 산으로 가는가?
무후선열 위패 호국은 살아 숨쉰다

조국에 뼈를 묻으려 했다
돌아온 조국은 일본 앞잡이 선동을 한다
차라리 카자흐스탄으로 갈란다

自作詩 -홍범도 장군

계산마을 문해교실



배종만
향토사 연구위원

창녕군 계산마을에는 문해교실이 운영 중이다.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지역사회와 농한기 농촌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계산마을 이장님, 경로당 회장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역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실 문을 잠시 닫았을 때도 있었지만 2년 후 다시 문해교실을 열어 학습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원 모두 낙오자 없이 졸업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과 창녕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화순 문해교사의 지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 해독, 국어, 과학, 영어, 한문, 미술, 음악, 사회,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미디어 해석, 시, 편지, 일기, 기행문, 생활서식 등 다양한 글쓰기 기술과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은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교육 장소는 마을회관 내 경로당에 위치하며,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인 학생 총 1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최고령은 81세이다.

창녕의 계산마을에서 운영 중인 문해교육은 농촌 사회와 고령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농한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장하여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계산마을 문해교실

과유불급에 당황하는 전제 장군



전 점 석
진해문화원 연구위원

창녕 남산호국공원에 갔다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이다. 제자 중에서 자장(子張)은 항상 지나쳤고, 자하(子夏)는 항상 미치지 못했다.

하루는 자공(子貢)이 스승인 공자에게 누가 나은지를 물었더니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말했다. 공원을 둘러보면 누군가의 ‘지나침’ 때문에 훌륭한 전제 장군이 욕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영산면의 남산과 남천을 따라 조성된 호국공원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산을 등지고 있어서 고즈넉한 분위기이다.

공원 입구에 세워놓은 안내판에는 호국공원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 휘하에서 현감 전제 장군을 비롯한 충의용사와 3·1운동, 6·25동란 때의 괴뢰군 침공·격퇴 등의 국난을 극복한 조상들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안내판 내용 중에 전제 장군의 이름 한자 부분에 투명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처음 보는 전제 장군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합천 초계에서 의병 활동을 했고, 정유재란 때는 영산현감으로 화왕산성을 지킨 분이였다. 영산현감은 신담(성종 14, 1483)에서 유성열(순종 3, 1909)까지 426년 130명인데 그 중의 한 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4대 조상이다.

영산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면 남산인데 제일 높은 위치에는 1956년에 연지(硯池) 옆 로터리에 건립한 「3·1독립운동기념비」를 1980년 이곳 남산봉으로 옮겼다.

그 옆에 1967년에 세운 「3·1봉화대」가 있으며, 돌계단으로 내려오면 2002년에 세운 3.1독립선언서탑과 1979년에 세운 영산지구 전적비가 있다.

이곳에 영산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돌계단으로 내려오면 남천 옆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세운 「임진왜란호국충훈탑」과 「영산현감 전제 장군 충절사적비(忠節事蹟碑)」가 있다.

충훈탑 전면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선봉에 나섰던 전제 장군과 더불어 큰 공을 세우고 장렬히 순국한 수많은 장령(將領)들을 비롯하여 진충호국의 이슬로 사라져간 무명용사의 영령(英靈)을 추모’하기 위해 충훈탑을 세웠다고 적혀 있다.

곽재우 장군은 없고 ‘전제 장군’의 이름만을 명시해놓았다.

건립년도는 1982년 5월 31일이다. 탑 뒷면에는 『화왕산동고록』, 『선조대왕실록』 등을 참고한 임진왜란동고장령(壬辰倭亂同苦將領)들의 직책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제일 먼저 방어사(防禦使) 곽재우이고, 그 다음이 종사관(從事官) 1명, 조방장(助防將) 1명, 조전장(助戰將) 7명, 장서기(掌書記) 7명, 장무관(掌務官) 2명, 의병장(義兵將) 2명, 전체 21명의 명단이 있다.

방어사 곽재우는 물론이고, 종사관 성안익은 1593년, 조정으로부터 천명의 병사를 배정받아 창녕을 방어했던 의병장이었으며 소모관(召募官)으로도 활동했다.

조방장 이영은 밀양부사이고, 조전장은 영산현감 전체를 포함하여 창녕현감, 현풍현감 등이다.¹⁾ 전제 장군²⁾은 조전장 7명 중의 한 명이다.

1)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 1984년, 121, 123쪽

2) 영수(英叟) 전제(全霽, 1558~1597) 장군은 1558년 2월 21일 초계, 지금의 합천군 쌍책면 출신이다. 남산 호국공원에 있는 충절사적비에 의하면 ‘천성이 효우(孝友)에 지극하고, 학문과 무예가 겸전(兼全)하여 남국(南國)에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 그해 5월, 합천 초계에서 조호장(調護將)으로 거병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영산의 박진과 의령의 정암 등 낙동강변의 여러 지역에서 왜군과 교전하여 전공을 세웠다. 1596년 3월에는 대구 팔공산에서 결사 구국을 회맹하고, 1597년경 경남 영산현감으로 부임했다. 그해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7월 21일 경상좌도방어사 곽재우의 조전장(助戰將)으로 화왕산성에 입성하여 성을 지켰다.

탑의 앞뒤에 있는 글의 문맥은 어느 한 명을 위한 탑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 유독 탑 앞면에서 다른 분들의 이름은 거론치 않으면서 전제 장군만을 앞세우는 것은 영산현감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탑 앞에 전제 장군 사적비가 있어서 속 보이는 짓이 되어버렸다.

거북이 등에 세운 충절사적비는 전제 장군 개인을 위한 비이다.

충혼탑 앞에 있는 비와 비각은 탑과 같은 시기인 1982년 5월에 지었다.

처음에는 위치가 공원 입구 쪽의 「영산 만년교」 안내판 자리에 있었는데 안으로 옮겼다. 비에는 한문으로 새겨진 부분도 있고, 바로 옆에 한문과 한글을 섞어 요약해 놓았다. 탑과 비각이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 마치 둘 다 전제 장군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적비에는 전제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선조 24년) 첨정(僉正)³⁾을 거쳐 영산현감에 월임(越任)’해 임진왜란 당시도 현감이었으며, 의병을 모은 의병장이었고, 영산의 박진, 의령의 정암전투와 ‘화왕산성에서도 큰 공을 세워 체찰사(體察使)⁴⁾ 이원익에게 흠탄⁵⁾을 받았고’라고 적혀 있다.

조전장, 조호장이라는 직책은 보이지 않는다.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을 쓴 부산 동명대 김경식 교수는 "비문에 적힌 게 사실이라면 전제는 당시 자신이 다스리던 고을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서 의병활동을 한 꼴이 된다"고 한다.

향토 역사학자인 조중화 씨도 지난 1998년 발간한 『바로 잡은 임진왜란사』에서 "비문에 '전제가 1591년 영산 첨정이 됐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예로부터 영산에는 현감이 있었고, 첨정이 없었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조선시대에 각 관아의 낭청에 속한 종4품의 벼슬

4) 고려와 조선시대에 국가에 변란이 발생했을 때 임명하는 군무 총괄 또는 군대 통솔 관직이다. 도체찰사는 보통 삼정승이라고 하는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서 임명되었다.(위키백과에서)

5) 欽歎/欽嘆. 몹시 칭찬하다.

그는 이어 "『취산지』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영산현감은 황정복인데 전쟁이 나자 도망갔다고 돼 있다."고 한다.

『취산지』는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영산현감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합천군사』에는 ‘1585년 무과에 (을과 30위로) 급제하여 첨정(僉正)으로 대구 진병마정제도위(大邱鎭兵馬節制都尉)를 지냈다’고 한다.⁶⁾

합천군에서 발행한 『임란사』를 따르면 전제는 합천 초계에서 활동했는데 의병장 정인홍 휘하에서 직접 활동한 것이 아니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치원⁷⁾은 두 아들 전우(全雨), 전문(全雯)과 조카인 전제를 불러 가동 수십 인과 동리 장정을 모아 설학(雪壑) 이대기(李大期)와 함께 통문을 돌려 합천 초계군민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6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외응장(外應將)을 맡아 정인홍 대장 휘하 군단과 합류하여 낙동강 연안과 고령, 성주지역에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다.⁸⁾

초계의병을 내군과 외군으로 나누어 내군은 이대기, 외군은 전치원이 각각 통솔하고 5월 지도부를 분장할 때 전제는 조호장(調護將)의 임무를 맡았다.

당시 합천(지금 초계·삼가면까지 포괄하는)과 고령·성주를 총괄하는 의병장은 정인홍이었다. 전치원과 이대기는 남명 조식의 제자였다.

6월,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초계 의병장 정언충(鄭彦忠), 전치원, 이대기 등은 낙동강변에 목책(木柵)을 설치하였다.

가까이서 매복해 있다가 목책에 걸린 왜선 5척을 공격해 많은 적을 살상했다.

6월 22일에는 왜선 12척이 고령 쪽에서 내려오다가 목책에 걸린 것을 정인홍에게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정언충, 전치원, 이대기 등이 협공하였다.

6) 합천군사편찬위원회, 『합천군사』 제3권, 2013년, 837쪽

7) 全致遠, 1527~1596. 호는 탁계(濯溪). 1573년 동강 김우옹의 천거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를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뒤에도 여러 차례 유일 천거가 있었으나 나이가 많음을 내세워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학문과 글씨에 뛰어나 황강 이희안과 남명 조식의 묘갈명과 위패를 썼다. 임란 때의 공적과 학덕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황강 이희안이 배향되어 있는 청계서원(淸溪書院, 1564년 건립, 합천 울곡면 내천리)에 1702년(숙종 28)에 전치원, 이대기 두 분은 추가로 배향되었다.

8) 합천군사편찬위원회, 『합천군사』 제3권, 2013년, 839쪽

당황한 적들은 배에 실은 약탈품을 강물에 던지고 달아나는 왜선 가운데 4척을 잡았다. 물에서 죽은 자 외에도 참수급(斬數級) 8급을 올리는 등 계속해서 왜군을 유인, 격파하였다. 이를 초계·마진전투라고 부른다.

7월에는 5읍의 의병이 합세하여 무계(茂溪)의 적을 대파하는 데 참가하였고, 9월에는 정인홍 대장의 영에 따라 5읍의 의병이 관동(館洞)에서 모여 성주에서 내려오는 적을 무찌르는 전투에 참여하여 고령, 현풍을 지켰다.

합천군 대병면 성리에 있는 창의사에 전제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창의사 위패 봉안도」를 보면 사당 전면 가운데 정인홍이 있고, 좌우에는 무명 의병(無名義兵)의 신위가 있다.

전치원, 전제 등은 전면이 아니고 왼쪽에 초계 사람들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창의사 안에 있는 유물관에서는 한군데에서 전제 이름을 볼 수 있는데 합천, 초계, 삼가로 구분해놓은 「합천 창의 의병」 명단이다.

전제에 대해서는 초계에서 ‘자 시적, 호 영수, 1558~1597’이라고 적혀 있다.

그 외에 초계현 의병장으로 외응장 전치원, 내막장 이대기 2명, 군수 곽율, 가장 정언충을 소개해놓은 전시물에서도 전제의 이름을 볼 수 없다.

조호장 전제는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왜군의 배를 차단하기 위해 의령·창녕 의병장 곽재우와 힘을 합쳤다.

충절사적비의 한자로 된 비문에는 확실하지 않은 기록이 많다.

한자 비문은 "곽재우 장군이 전제의 영명함과 용맹함을 칭찬하고 군사 기밀을 의논했다"며 전제가 곽재우 장군의 신임을 매우 받은 것처럼 나와 있다.

하지만, 곽재우 장군과 그 아래 장수 17명을 모신 의령 충익사에는 전제라는 이름의 위패는 없다.

또 '정유재란 때 창녕 박진과 의령 정암에서 적군을 수없이 죽였다'고 했지만 실제 박진·정암 전투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있었다.⁹⁾

9) 이균석, 전두환씨 조상 모신 호국공원의 역사왜곡 ..., 경남도민일보 2007년 2월 9일

『창녕군지』에는 ‘남지의 고곡산성(鼓谷山城)과 구진산성(九陳山城) 그리고 낙동강유역의 박진(泊津) 등지에서 초계의 전제와 그 외의 의병들이 성을 개증축(改增築)하여 강을 따라 북상하는 왜병에 저항’¹⁰⁾하였다고 한다.

무계·마수원·성주 전투에도 참가했다. 사적비에 전제가 큰 공을 세웠다는 박진·정암 전투는 의병장 곽재우가 주도했다.

전제가 곽재우 휘하에 있었던 것은 1597년 봄 화왕산성 쌓을 때와 7월 21일~8월 21일의 수성(守城) 때뿐이다.

그런데 사적비에 전제 장군이 ‘화왕산성에서도 크게 공’을 세웠다고 적힌 부분은 지나친 표현이다.

1596년에 있었던 화의(和議) 교섭이 깨어지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화왕산성에서는 이렇다 할 전투가 없었다.

물론 수성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영산현감인 전제 장군은 경상좌도방어사 곽재우¹¹⁾의 조전장으로 화왕산성에 입성하여 990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성을 지켰다.

특출나게 혼자서 큰 공을 세운 건 아니지만 전제 장군도 화왕산성을 지켰다.

호국공원의 충절사적비 비각 뒤편에는 현감, 군수, 관찰사 등의 애민선정비, 영세불망비 32기가 두 줄로 나란히 모여 있는데 현감 전제의 비는 없다. 제일 앞서 있는 비가 1610년(광해군 2년) 제9대 현감이어서 앞선 시기의 비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전제 장군의 죽음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안타깝게도 『선조실록』의 1598년(선조 31) 1월 6일자에는 전제 장군에 대해 정유재란 때(1597년 12월 26일) 울산 도산전투¹²⁾에서 싸움을 피하다가 권율에게 출신(出身) 1인, 군정(軍丁) 1인과 함께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 1984년, 119쪽

11)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 1984년, 119쪽곽재우는 1597년 8월 29일, 화왕산성에서 계모 허씨가 죽자 상여를 모시고 산성을 나와 장례를 마친 후 울진으로 가서 3년 상을 치렀다.(허만길, 조선 전기 허원보의 의령 이주에 따른 나라사랑 기여와 지명 형성 연구, 의령문화 2014년 1월)

12) 울산성 전투는 왜군이 축성한 울산 도산성(島山城)에서 1차(1597년 12월 22일~1598년 1월 4일, 음력), 2차(1598년 9월 22일, 음력)에 걸쳐 싸웠으나 구원군의 등장으로 이기지 못한 싸움이다. 적장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이었고, 1차 전투의 우리 측 지휘관은 도원수 권율이었으며, 2차 전투는 김응서였다. 권율 장군은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 63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향토사학자인 조중화가 경남도민일보 2004년 2월 18일 자에 기고한 글 「아직도 전제의 초상화」에는 ‘울산성을 조선군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하는 전투에 참여한 영산현감 전제는 조선군의 군법에 의하여, 조선군 총사령관 권율 장군에 의하여 1597년 12월 27일 즉결처분으로 처형되었다.

"너희들도 만일에 비겁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군율에 의하여 처형된다" 하며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 시체를 공개하였다고,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혀 놓았다.¹³⁾

한편 사적비에는 '1597년 정유재란에는 도산(島山)에서 병사(兵使) 정기룡, 성윤문(成允文) 및 명장(明將) 마귀(麻貴)와 함께 싸울 제 공이 선봉이 되어 적을 무찌를 때 공의 전공(戰功)을 질투하는 자 있어 공을 은밀(隱密)히 모해(謀害)하였다.

그러나 선봉이 되어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진격을 명령했으나 적의 탄환이 비 오듯 하여 도저히 진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 전제 등 3인이 즉결처분으로 죽임을 당하고 난 후 권율의 명령으로 진격을 하였으나 탄환이 비 오듯 하여 매우 많은 사상자만 내고 후퇴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¹⁴⁾ 유성룡, 성윤문, 배대유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공의 억울(抑奩)한 정충대절(精忠大節)은 밝혀졌으며'라고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문학박사 진성(眞城) 이가원(李家源)¹⁵⁾이 지었다.

『합천군사』 제3권에는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정유재란 때에는 창녕, 화왕산 축성에 참가하였고, 명나라와 함께 전공을 세웠다.

13) 전의홍, '선조실록' 속의 전제 장군, 경남도민일보 2020년 09월 10일

14) 조찬용, 조중화님의 전제장군 질의에 답함, 경남도민일보 2001년 7월 17일

15) 연민(淵民) 이가원, 1917~2000년, 1946년 4월부터 교육계에 진출하여 1953년까지 영주농업학교, 김천여자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1948년 심산의 권유로 성균관대학 국문과에 진학하여 1952년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1955년 성균관대학교에 중문학과가 생겨 조교수로 부임하여 학과장을 맡았다. 총장 심산의 일도 돕고, 대학 운영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음모로 심산이 총장에서 쫓겨나자, 심산과 가까웠던 연민도 1년 만에 파면되었다. 4·19의거 직후 학생들의 큰 희생을 보고, 재경교수단 시위를 주도하여 이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주역이었다. 1982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이후 1983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대우교수,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였다.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한학자이며 연세대 교수를 역임. 퇴계의 14대 손이다.

이때 부적자(附賊者) 이사종(李士宗)의 칼에 찔려 전사하였다'고만 되어 있다.¹⁶⁾

『창녕군지』 인물편에는 ‘명나라 군사와 함께 도산(울산)의 적을 공격할 때 분연히 앞서 올라갔으나 공을 다투는 자에 의하여 해를 입게 되어 모두 분격하고 원통해 하였으며, 1692년 합천 도계서원에 승향(陞享)되었다.

모정(慕亭) 배대유(裴大維)의 상소에 의하여 300여 년 후인 1880년에 수치스러움을 씻게 되고, 호조판서¹⁷⁾로 증직되었다¹⁸⁾고 한다.

『화왕산성동고록(火旺山城同苦錄)』에 의하면 전제가 조전장이었고, 배대유는 장서기(掌書記)였다.¹⁹⁾

함께 화왕산성을 지켰던 사이였다. 뒤늦게나마 누명을 벗어서 다행이다.

충훈탑 옆에 있는 부조 「임진왜란화왕산승전도(壬辰倭亂火旺山勝戰圖)」를 보면 왜군과의 처절한 전투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전제 장군이다.

중심인물 옆에 ‘義兵將全霽’라고 크게 적힌 군기가 있다.

반면 총대장 곽재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학자들은 실제 화왕산에서는 이런 전투가 없었다고 한다. 상상으로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이런 그림에 동의하지 않는 누군가가 ‘霽’자 글자를 긁어 없애려고 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일반인들의 생각임을 보여준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남 출신 인물 58명 전기를 모아 경남문화원연합회가 1999년에 발행한 『경남인물지』에는 전제 장군이 없다. 당연하다.

전제는 조전장(助戰將), 그러니까 주장(主將)이 아닌 부장(部將)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조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 되어 있어 처음 설치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지나침’은 창녕뿐만이 아니었다. 가만히 계시는 전제 장군을 치켜세우는 일은 또 있었다.

16) 합천군사편찬위원회, 『합천군사』 제3권, 2013년, 838쪽

17) 호조참판(戶曹參判)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摠副總管), 합천군사편찬위원회, 『합천군사』 제3권, 2013년, 838쪽

18)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 1984년, 863쪽

19) 창녕군지편찬위원회, 『창녕군지』, 1984년, 866쪽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4년,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 ‘향토 출신 선현’ 6명의 초상이 걸려 있었는데 전제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이었다.

함께 걸려 있는 문익점, 김종직, 조식 선생이나 사명당, 정기룡 장군이랑 견주면 아무래도 나란히 할 인물은 아니다. 당시 지역 정치인들의 과잉 충성이었다.

이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씨였다. 그의 조상인 전제 장군은 관선 단체장인 이규효 도지사²⁰⁾와 황태조 창녕군수²¹⁾에 의해 경남의 중요 인물로 떠올랐다.

바로 그게 문제다.

1980년 당시 황태조 창녕군수가 "영산현감 가운데 전제라는 인물이 있는데 전 대통령의 조상인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 기념물 조성이 시작됐다.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해였다. 황 군수는 이후 전제 장군과 관련된 기록을 열심히 찾았다. 다음 해인 1981년에는 내무부와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조사를 하였다.

원래 이 장소는 10여 년 전인 1973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총 165만㎡이다.

그러다 1982년 '전제 장군 기념물'이 들어서면서 '호국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합천 초계에서 의병 활동을 한 전제 장군이 갑자기 '창녕의 영웅'이 되었다.

전씨 문중에서도 참여했겠지만 모든 일을 책임지고 추진한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 측근과 지역유지들이었다. 대부분 당연직으로 명단에 올린 것 같다.

지금도 46명의 이름이 새겨진 ‘전제장군충절사적비건립추진위원회’ 표지석이 놓여있다. 추진위원회 고문은 신상식(국회의원), 노태극(국회의원), 박희도(육군 참모총장), 황태조(창녕군수), 김창석(창녕경찰서장), 황희룡(창녕교육장) 씨 등 6명이고, 위원장은 최진근(崔振根)이며 추진위원은 문화원 원장, 통일주체국

20) 李圭孝, 제21대 도지사 1982년 5월 25일~1985년 2월 20일

21) 황태조, 제32대 창녕군수 1980년 9월 25일~1982년 9월 17일

민회의 대의원, 면장, 수리조합장, 신창여중 이사장, 부곡의 상공인 등 39명이다.²²⁾

전제 장군에 관한 기념물의 내용이 '역사 왜곡'이며 당시 관선 단체장이 전두환 씨에게 보내는 '용비어천가'라고 비난하는 이유²³⁾가 그들의 과잉충성 때문이다.

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영산면 남산호국공원을 「관광지 안내」란에서 "전국 3대 국란 호국의 성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남산호국공원을 찾는 여행객들이 충절사적비와 청동 부조, 충혼탑을 둘러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걱정스럽다.

정치인이든 아니든 조상을 존경하는 건 좋은 일이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면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역사 왜곡을 마뜩잖게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 충혼탑 뒷면의 글자 '전제'에 검은 색칠을 해놓았다.

공원 안에 이런 훼손이 세 군데나 있다. 420여 년이 지난 지금, 모두 '과유불급(過猶不及)'하여 일어난 일들이다.

하얀 능수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에 앉아서 40여 년 전 전제 장군 충절사적비가 세워지던 날을 생각해본다. 만약 '청백(清白)한 목민관(牧民官)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전제 장군이 이런 사적비와 충혼탑을 본다면 당황하실 것 같다.

지금도 영산 사람들은 읍내로 가는 것을 굳이 내려간다고 말할 정도로 자긍심이 세다. 과유불급한 개인 기념물이 3·1운동에 앞장섰던 영산의 호국공원에 세워진 것은 영산의 올곧은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22) 유장근, 근대기 창녕지역의 문화만들기, 경남대 경남지역문제연구소 경남의 역사와 사회연구, 2003년

23) 이균석, 전두환씨 조상 모신 호국공원의 역사왜곡 ..., 경남도민일보 2007년 2월 9일

두 번 살려주신 이유(理由)



김동식

창녕문화원 서도회 전 회장

문(門)밖에 저승이라고 험(險)한 세상(世上)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한 두번씩 죽을 고비를 경험(經驗)하게 되는 것 같다.

나 자신(自身)도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신기(神機)하게 여길 정도(正道)로 여러 차례 그런 고비를 넘긴 경험(經驗)이 있다.

사업(事業)차 강원도 2차선 비포장도로에 새벽 3시경 8톤 트럭 고장으로 멈추어 마주 오는데 헤드라이트 빛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그 사이로 지나간 순간 나의 1톤 트럭이 지나면서 양쪽 문짝이 동태 꺾질 말리듯이 지나간 경험(經驗),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經驗) 있으면서

어릴 때 물에 빠져 의식(意識)을 잃은 채 건져진 적도 있고 죽음으로 응급(應急)에 실려 갔다가 의사선생님(醫師先生)으로부터 이려고도 숨을 쉬는 것이 기적(奇蹟)이라는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으며

정말 부끄러운 고백(告白)이지만 젊어 한때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을 결심(決心)하고 실제(實際)로 반성(反省)도 결행(決行)에 옮겨 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절묘(絶妙)한 방법(方法)으로 살려주시는 보이지 않은

손길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살아있음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生覺)해보게 되었다.

다시 또 살려주시는 이유(理由)가 무엇인가.
다시 살아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날 조용히 앉아 기도(祈禱)를 하고있을 때 가슴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는 생각(生覺)해 보았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인가
다시 태어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 답(答)을 생각(生覺)하면서 나는 오래 묵상(默想)에 잠겼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찬찬이 되짚어 보았다.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리하여 막 고고지성(呱呱之聲)을 울리고 강보에 싸여있는 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약속(約束)이라는 단어(單語)였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意味)했던가.
그날 그 아기의 존재(存在) 속에 깃들여 있던 약속(約束)을 다시 생각(生覺)하라는 뜻이었던가!

약속(約束)이라는 단어(單語)를 마음에 품고(稟告) 갔던 길을 되돌아 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빛이라는 낱말이었다.
태어나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많은 빛을 졌다는 생각(生覺)이 들었다.
나는 묵상(默想)에서 깨어나 바깥을 내다보았다.
너무도 깨끗하고 눈 부신 햇살이 창문밖에 가득히 쏟아지고 있었다.
바로 그날로부터 나는 늘 내가 갚아야 할 빛과 내가 지켜야 할 약속(約束)을 생각(生覺)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갇아야 하는 것은 세상(世上)과 주위 사람들에게 진 사랑의 빛이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生命)속에 예비(豫備)하시여
내가 이 사회(社會) 속에서 구현(具顯)하길 원(願)하신 약속(約束)이다.
그 빛을 갇고 그 약속(約束) 지키고 다시 살려주신 것임을 항상 생각(生覺)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언제부터가 나는 자고 깨서 만나는 세상(世上)이 옛날과 달라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世上)의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貴)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무심(無心)코 지나치던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까지 살아서 내 마음속으로
걸어들어오는 것 같았다.

자고 깨서 날마다 만나는 얼굴들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정(情)겹고 소중(所重)
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따금 러시아의 문호(文豪)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민담(民譚)을 떠올려보곤 한다.

거기에는 신(神)의 뜻을 거역(拒逆)하고 천국(天國)에서 추방(追放)된
천사(天使) 미카엘이 나온다.

신(神)은 미카엘을 지상(地上)으로 내려보내면서 세 가지 문제(問題)를
내준다.

인간(人間)의 내부(內部)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人間)에게 허락(許諾)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人間)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가지 문제(問題)의 답(答)을 알게 될 날을 기다렸다.

미카엘이 마침내 세 가지 문제(問題)를 풀고 천상(天上)으로 올라가는 장면
(場面)은 매우 웅장(雄壯)하고 감동적(感動的)으로 그려져 있다.

나는 신(神)이 내준 세 가지 문제(問題)의 답(答)을 알게 된 순간(瞬間) 미카엘이 느꼈을 기쁨에 대해 이따금 생각(生覺)해보곤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 번 살려주신 이유(理由)를 돌이켜 보곤 한다.

그 이유(理由)를 잊지 않으려고 나는 오늘도 자신(自身)을 추스린다.
그리고 무한(無限)히 감사(感謝)하는 마음으로 최선(最善)을 다해서 다시 주신 그 시간(時間)들을 살아내리라 다짐하곤 한다.

인간관계 내면소통과 행동



智樹 진영출
향토사 연구위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과 힐링(healing) 그리고 소통과 갈등 해소라 생각한다. 인간관계는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가족, 직장, 학교, 사회 등 우리는 늘 사람과 부딪히며 산다. 말하기와 행동은 정말 어렵다.

칭찬의 말, 비난의 말하기 나름에 상대방의 인생이 달라지고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되고 행동 또한 그렇다.

적어도 팩트, 사실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우리 사회가 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고 한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행동도 그렇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 하는 것, 모두에게 손해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국가, 사회, 직장, 가정 등 서로 생각차이로 내 마음 속의 갈등부터 사회, 타인과의 갈등 등 매일매일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간다.

갈등(葛藤)은 칩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서 된 말로 칩덩굴과 등나무 덩굴 처럼 엉망으로 뒤엉켜서 일이 풀리기 어려운 상태로 일이나 사정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은 해석하고 있다.

모든 갈등은 나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고 자는 것, 먹고 살며 생활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다 있다. 해결 방안으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이지 말아야 한다.

셋째, 상대를 칭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까?!!

전 세계 유명한 경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물건 사용이나 사회 패턴, 관습 등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볼 때 100만 명 이상이면 패션(fashion) 유행이라 하고 500백만 명 이상이면 트렌드(trend) 추세라하고 1,000만 명 이상이면 문화(culture)이라 한다. 패션이나 트렌드는 바뀔 수 있지만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잠시 우리 창녕지역을 비롯한 삼국시대 가야의 옛날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가야사 연구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유산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

지난번 창녕의 비화가야 학술 심포지엄을 들었다. 필자는 그 찬란했던 가야 역사 문화가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그 역사 이면에 패망 원인은 뭘까?... 힘이 없어서 여러 씨족간의 내부 갈등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문화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우리 창녕지역도 전국 추세에 맞추어 골프가 유행이다.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등 각종 운동과 취미 생활이 다양하다. 자기 건강을 위한 취미생활 참 좋다. 좀 여유로워진 세상일까!

필자는 또 다른 취미 생활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증진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도 좀 더 생각해봐야한다.

2022년도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8명 저출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8.4%, 경남은 20.3%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되었다.

우리 창녕지역은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인구 문제와 사회경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백년 대계를 향한 좋은 정책들은 없을까? 정치하는 사람들 소모적인 정쟁만 하지 말고 나라 걱정, 지역 사회걱정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향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힘써주면 좋겠다.

사회 지도자 어른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지혜로 우리 지역이 좀 더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어른다운 어른으로 참 지도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자의 역할을 생각해봐야겠다!

지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심과 충고로 모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생각 해야될 것 같다.

상대가 내게 충고할 때에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아직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게 무관심하면 진심 어린 충고나 관심을 보이지 않을텐데’ 생각하면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은 적절한 시기에 하고 진심을 담아 상대를 대한다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미래는 머뭇거리며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침묵한다.’

열정과 도전으로 우리 창녕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문예증흥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양파 같은 사람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된 노예들에게 양파를 먹였다는 기록이 있다. 왜 그랬을까? 매일 2톤이 넘는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양파에는 각종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 등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다. 유리컵에 물을 담아 양파를 그 위에 올려두고 며칠을 지나면 유리컵 속으로 하얀 뿌리가 뻗어 내려가고 위로는 연초록 싹이 올라가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바라보았다. 매일 관찰하고 기록하며 숙제하던 기억이 새롭다.

또 양파를 잠자리 머리맡에 두면 감기 예방이 된다고 하여 양파를 잘라서 집안 곳곳에 두기도 했다.

양파는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음식에 곁들이면 한결 더 맛을 내는 채소다. 양파를 다듬을 때 눈이 맵다. 양파 입장에서 칼로 뿌리와 줄기를 잘라내는 아픔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매운 성분으로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하라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렇게 매운 양파도 요리를 하면 단맛이 난다.

창녕군은 양파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재배한 곳이다.

우석 성재경씨가 농가의 가난을 물리치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었던 보리의 대체 작물로 양파를 보급하였다. 양파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창녕이 양파 시배지가 되었다.

한 때는 양파생산량이 전국의 34%를 점유한 적도 있었다. 그 당시 재배하던 보리의 대체작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었다. 어떤 해에는 과잉생산이 되어 수확하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 논밭에서 갈아엎어 버리기도 했고, 수확하고서도 가격 폭락으로 하천변에 내다 버리기도 하면서 농가의 애물단지가 되기도 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양파는 피를 맑게 해주고, 각종 성인병 고혈압, 심장병,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양파에는 대장균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병원균을 죽이는 효능이 있다. 해독 능력이 높아 간에도 좋은 식품으로 피로회복과 원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활용하기에 따라 채소가 되고, 약이 되고, 향신료가 되고, 살균제가 되기도 하는 다양한 용도와 효능을 가진 금쪽같은 식품이다.

하지만 양파를 낱것으로 섭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창녕군에서는 양파 장류산업으로 양파엑기스, 껌질차, 고추장, 국수, 청국장환과 같은 양파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매운 양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두 번 쓰러진 경험이 있는 나는 양파를 즐겨 먹는다.

십여 년 전 경상남도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가 있었다. 경진대회 점수는 면접이 50%, 프리 스피치가 50%다. 첫해는 준비기간이 부족해 낙방하였다. 두 번째 해에는 중국어 선생님과 원고와 발음교정과 면접을 대비한 예상 질문과 답변지를 만들어 철저하게 준비했다.

대회당일 프리 스피치에서 A4용지 한 장 정도의 원고를 외워 발표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문장이 생각나지 않았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감점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보고 발표를 하는데 당황하여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말 그대로 흰 것은 종이로 검은 것은 글이었다. 그 이유로 또 떨어졌다.

텅 빈 회의실에서 혼자서 수백 번을 더 외우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통닭을 사주면서 직원들 앞에서 연습까지 했는데 너무도 허망했다. 그 뒤로 상당한 기간을 후유증으로 자다가도 별떡 잠이 깰 정도였다.

삼세번 삼 년에 걸쳐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참가했다. 번호표를 뽑아 면접과 발표 순서를 정하는데 첫 번째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했다. 면접과 발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린다.

그해에는 중국어 전공자들이 많아 기다리는 내내 불안하다. 드디어 발표시간이다. 수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떨 듯이 기뻐다. 장려상이다.

영어, 일어, 중국어 참가자 중 최고령이라는 점과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젊은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수상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었다. 부상으로 2개월간 중국어학연수를 국비로 다녀오는 특전을 누리기도 했다. 그때 프리 스피치 원고 제목이 ‘창녕 양과의 효능’이었다.

중국 속담에 부과만 지과참(不怕晚 只怕站)이란 말이 있다.

‘늦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물러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이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 중국어를 배우고 어학연수를 떠난다하니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다.

승진도 해야 하고 지금 외국어 배워 뭐 하겠나 하는 걱정들이었다.

공무원을 시작하고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전환될 무렵이었다. 그때 한 선배가 앞으로 공무원으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세 가지가 운전면허증, 컴퓨터, 외국어다.

내가 중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선배의 조언도 있었지만 중국어를 배우다보니 중국의 역사, 문화,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티베트, 실크로드, 동북, 서남, 서북 공정의 현장, 삼국지 기행, 중국 오지 여행 같은 곳을 여행하였다.

퇴직 후 중국 배낭여행 일주가 꿈이었었는데 그 꿈이 조금 더 당겨진 또 하나의 이유다.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껍질을 까도 까도 비리로 악취가 나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까도 까도 양과처럼 다양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후자이고싶다. 껍질을 벗기고 벗겨도 새하얗고 단단한 알맹이가 계속 나오는 한결같은 사람, 껍질은 껍질대로 속살은 속살대로 버릴 것 없는 사람.

양과의 매운맛이 아닌 다양한 매력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양과 같은 사람이고싶다.

인생(人生)



海水 陳台洪
대지면 학동리

‘화로접불래(花老蝶不來)’라 했다. 꽃이 시들면 나비가 오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꽃은 떨어지면 내년 봄이면 다시 핀다. 꽃은 매년 피어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일회적인 인생이다.

이 일회적인 인생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인생의 일관된 철학이자 신념이다.

도연명(陶淵明) 시구에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월 가면 인생도 간다.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면 인생무상(人生無常) 감(感)만 남는다. 그래서 후회 없고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다는 고사(故事)가 바로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다. 필자의 인생(人生) 좌우명(座右銘)이기도 하다. ‘하면 된다’는 신념이다. 어려운 난관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 부지런함으로 잘 극복하였다.

사람은 생각대로 물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이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난다’라는 뜻이다. ‘나는 아직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다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정과 긍정의 차이다.

사람은 천수(天壽)를 살아야 자기 명대로 사는 것이다. 천수는 120살이다. 장수는 만인의 숙원(宿願)이다. 그러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젊어서 요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금년 나이 95세이나 몸은 자연스럽게 병골(病骨)이지만 정신만은 병들지 않아 정신력으로 편지 쓰고, 원고 쓰고, 기타 정서(情緒)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이 전혀 없다. 거저 황혼인생이 즐거울 뿐이다.

생각대로 물든다 하였기에 이런 시를 쓰 본다.

백수로 가는 길 멀기도 하다.
멀고 먼 힘든 길도 가면 된다.
사람이 가지 않고 길만 멀다 한다.

발걸음도 가볍게 다짐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백수 길을 달린다.

이런 신념으로 노령인생(老齡人生)을 즐긴다.

지금까지 부지런함을 일깨워 나가기 위해서, 갈수록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편지문화를 되살리자는 캠페인을 많이 하였다.

편지 한 통은 훌륭한 작품의 한 통이다. 그 결과는 편지 동호인 4명을 얻었다.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편지도 건강도 부지런해야 쓰고 관리한다. 부지런은 미덕(美德)이다. 만병통치수단이다.

서재 창문에 좌우명으로, ‘노장은 불패의 신념으로 산다’고 글씨를 써 붙여놓았다. 부지런한 사람 실패 없고 나태한 사람 성공 없다. 이것은 진리다.

정의와 진리에 사는 사람은 권력과 물질을 구걸하지 않는다.

오늘도 부지런히 행복한 인생을 산다. 늙은 사람이 두서없이 원고를 쓴다. 창녕문화원의 발전과 문화원지(文化院誌) 발간을 축하하면서 평소 귀감으로 삼는 ‘잠언문(箴言文)’을 공유하고자 함께 게재한다.

잠언문(箴言文)

- ✘ 가정은 지상 최선의 인간학교다.
- ✘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어도 가정만은 살 수 없다.
- ✘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일하기 싫은 사람이다.
- ✘ 부지런함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수단이다.
- ✘ 사람은 생각대로 물든다.
- ✘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성취할 수 있다.
- ✘ 순간적인 쾌락(官能)에 집착해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바보들의 짓이다.
- ✘ 울타리 안의 행복은 새장에 갇힌 새의 행복이다.

만옥정공원 팔십년의 변천(變遷)



김동주
창녕문화원 고문

3월 하순에 이르니 금년 봄에도 어김없이 만옥정 공원에 벚꽃이 공원 전체를 한순간 가득 메운다. 이즈음 벚꽃을 보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오래전 이맘때면 전 문화원장을 지내신 고명하신 소석 김영철 님, 그리고 서도회 죽암 이병일님, 우농 성해경님 그 외 한두분과 만옥정 만발한 벚꽃나무 아래서 소줏잔을 기울이며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유행가 한가락을 뽑으시며 즐기시던 기억이 감회가 새롭다.

필자가 일곱 살 취학기가 되어 창녕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만옥정 공원과 더불어 80년을 지나면서 만옥정 공원이 때때로 변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며 만옥정의 변천 과정과 나와 더불어 우리 창녕의 발전 과정이 정비례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먼저 기록으로 전해오는 옛 만옥정의 흔적을 찾아보고 거기에다 필자가 철들고부터 80년간 살아오면서 만옥정의 변천 과정을 보아온 그대로 적어 보고자 한다.

1944년 필자가 7세 때 창녕공립 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일제 치하의 일본인 선생께서 일본어를 배웠다.

당시 필자가 살고있는 집은 지금의 송현동 사거리 부근(송현 145-1)이었다.

등교 시에는 마을별로 상급생의 지도 아래 모두 모여 저학년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열을 지어 마치 군부대가 이동하듯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했다.

그러나 귀가시는 학년별로 종료시간이 다르니 자유로이 집에 올 수 있었다. 등굣길은 만옥정 위쪽으로 남창천의 징검다리를 건너 포교당 앞을 지나 마을이 끝나면 논길을 따라가다가 지금의 청소년수련원 앞 도로에 닿으면 상급생이 대열을 다시 맞추어 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각자 교실로 향한다.

비가 내리거나 질퍽한 날은 마을을 나서 지금의 만옥정 광장을 가로질러 경찰서와 군청(지금 읍사무소) 사이 도로를 따라 남창교를 거쳐 학교로 다녔고 항상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이 길을 이용했다.

이 시기의 만옥정 현황을 적어 보면, 동편 비포장도로와 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가파른 경사면으로 측백나무가 듩성 심겨져있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무 곳에서나 만옥정으로 오르내렸고 공원의 동편 남쪽 끝 부근에는 수령(樹齡)이 오래된 팽나무 한그루가 남방향으로 굽어져 서 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흙이 깎여나가 그 뿌리가 동쪽은 많이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은 그 뿌리들을 계단처럼 이용하여 만옥정으로 기어 오르내렸고, 또 도로보다 약 2m 높이에서 척경비 밑으로 (터널)을 파고 있었으며 터널 규모는 폭이 2.5m, 높이 2.5m, 길이 약 15m쯤으로 짐작되며 학교 오가면서 보면 작업을 하다 말다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으며 아마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방공호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6.25 전승비 자리에는 일본인 신사가 있었다.

북쪽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옛 창녕현의 부속 건물인 하산관(지금의 만옥정 주차장)이 당시 창녕면사무소로 쓰면서 일본인 신사와 엇비섯이 마주보고 서 있었고, 만옥정 서편 끝부분 선정비석군이 당시는 도로면과 같이 낮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비군의 중앙부에는 공동우물이 있었다.

만옥정 서편은 지금의 경찰서 담장과 당시 창녕군청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남쪽의 비탈면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대나무밭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상이 그 당시 만옥정 공원4면 모습이다.

전체 약10,000㎡의 공원 내는 중앙 광장을 제외한 전체에 아름드리 벚꽃 나무가 들어차 있으며 서편 아래 넓은 터에는 벚꽃나무가 쇠퇴하여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시설물은 진흥왕 척경비가 지금의 장소 그대로이고 척경비 북편에 일본인 신사 건물, 그리고 대원군 척화비와 고인들이 지금의 자리에 그대로이고 중앙 광장 남쪽에 일본인 소학교 건물이 서 있었다가 그 몇 년 전에 지금의 명덕초등학교 동쪽편 일부분에 일본소학교를 다시 세워 옮기고 그 당시는 창녕 천도교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앞에 한옥 와가 1동이 있었고, 그 서쪽으로 경찰서 담장까지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리고 만옥정 공원에서 북쪽으로 3~40m 거리에 송탄유를 채취하는 가마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2기씩 모두 4기가 있었고, 그 옆에 소나무 동산이 있었는데 큰 나무들은 모두 송진을 채취하느라고 V자형의 상처가 나 있었다.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서는 온갖 수탈행위가 합법화했고 가정집의 늦쇠 그릇을 뺏길까봐 숨기기에 애를 먹던 어머니의 안절부절하시던 생각이 떠오른다.

이까지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의 만옥정 현황이다.

만옥정의 옛기록으로는 창녕 현지 이외는 찾을 수 없어 그 기록의 누정(樓亭) 편에 다음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만옥정 제현동죽전리 현감정봉시 의구신창〉

(萬玉亭 在縣東竹田裏 縣監鄭鳳時 依舊新創)

〔해설〕 만옥정은 현의 동쪽 대밭 속에 있다. 정봉시가 옛 모양대로 새로 지었다.

정봉시 현감 제임기간(丁酉, 1897到任 기해1899移拜利川郡)중에 만옥정을 새로 지었다고 하니 유추 하건데 그 당시부터 역으로 대략 100여년 (목조건물의 대략적 수명)쯤 전에 만옥정이 있었다는 결론이다.

1897부터 2023년간은 126년이니 만옥정의 존재는 지금까지 2백 2~3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정봉시 현감이 지은 정자(亭子)가 지은지 20여 년 만에 한·일 합병으로 왜정(1910)이 시작되면서 만옥정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일본인 소학교가 세워지면서 연이어 공원 전체에 벚꽃나무가 심겨지고 공원부지 동편과 북편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원이 조성되면서 옛 만옥정 정자 이름을 따서 만옥정 공원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신사가 세워지고 한참을 지난 1924년에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워졌다.

또한 대원군 척화비의 기록은 1866년에 만들어 1871년에 세웠다니 정봉시 현감이 만옥정을 신축하기 26년 전의 일이다.

참고로 창녕읍 중심부의 지형을 잠깐 언급해보면 화왕산과 인접한 목마산성 아래로부터 시작된 능선이 지금의 송현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내려오면서 송현동 석불좌상(보물 75호)과 창화사까지 다소 급경사를 이루다가, 옛 하곤양 저택(현 창녕여중, 고교부설 유치원)과 신당마을을 거치면서 아래로 만옥정이 있었던 낮은 야산 봉우리를 두고 경찰서와 창녕현터(현 창녕읍사무소)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교하동 일대를 거쳐 창녕 전통시장터 부근이 들녘처럼 평지를 이루다가 지금의 술정공원에서 약간의 산봉우리를 끝으로 기다란 능선이 끝이 나면서 다음으로 이들(술정리 아래 부분~조산리까지) 그리고 사말포로 낙동강으로 연결된다.

화왕산 정면에서 시작된 창녕천이 이 능선과 동반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창녕읍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넓고 완만한 능선 중앙부(지금의 읍사무소 부근)에 옛 창녕현터의 적지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1944년에 창녕공립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인 선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당시는 전쟁 중이라 1학년도 예외일 수 없이 어른들과 행동요령을 같이 해야만 되었다.

등교 중에 공습경보가 울리면 즉시 책보자기를 머리에 이고 숨어야 되고 일본인 신사 앞을 지날 때는 공손히 절하고 가야 했다. 혹시 아무도 안본다고 그냥 지나치다가 일본순사에게 걸리면 뺨을 얻어맞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며 온 사방에서 춤추고 만세 부르며 즐거움의 난리가 계속되었다.

(광복의 기쁨을! 일본인의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은 한민족 전체의 기쁨으로 모두가 목이 터지도록 해방 만세를 불렀던 것이 광복된 순간이 한민족 전체의 심정이었다. 그때의 감격은 계급의 차이, 역의 차, 교육의 차, 빈부의 차를 넘어 모든사람이 얼싸안고 거리에서 춤추게 하였다.)

얼마 후 어느 날 초저녁 집 앞이 흰해지기에 나가보니 만옥정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함성이 진동하였다. 부모님 몰래 단숨에 불구경을 가니 일본 신사가 뿌서지고 불살라지면서 자유의 함성이 진동했다.

마치 36년간의 억압과 멸시의 화풀이라도 하듯.....

해방 전 우리 동포가 여러 형태로 일본에 있었던 숫자가 210만 명이고 이중 해방으로 귀국한 동포가 약 140만 명쯤이라 한다.

농민의 곡식은 일제에 수탈당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이 많은 인원이 닳았으니 식량 부족 현상에 어려움이 여간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이 시기에 창녕에도 지금의 창녕 초등학교 앞 들판에 귀향 동포 촌이 형성되었고 이때 만옥정 서남쪽 초지에도 귀환 동포 몇 가구가 판자 등 움막으로 집을 꾸려 살게 되면서 그 주변에 벚꽃나무, 고사목이며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불모지에 텃밭을 일구었고 아무런 간섭하는 사람 없이 만옥정 일부가 주거지와 농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한편 광복 후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넘쳐나는 아이들을 수용할 교실이 부족하여 오전·오후 2부제 수업으로도 모자라 시내 여러 곳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만옥정의 천도교당도 한동안 창녕 국민학교 교실로 사용되기로 하였으며, 그 시대는 매사가 어려웠고 부족함을 숙명처럼 받아 드리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 우리 창녕은 농사 외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호구지책을 찾느라 옆 돌아볼 틈 없는 삶에 찌들었고 전기불도 없이 마을마다 조명용 석유를 당국으로부터 배급받아 동민을 모아 골고루 나누어 사용하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4~5년 만에 6.25라는 난리를 당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피난을 가야 했고 미국을 위시한 UN군의 도움으로 약 1개월 만에 다시 고향 집에 돌아왔다. 다행히 그해 농사가 풍작이라 식량 걱정 없이 수확을 마치고 초겨울 어느 날부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었다.

국민방위군이라며 복장이 검고, 희고, 푸르고, 붉고, 한복, 양복, 하복, 또는 동복 등 각양각색에다 등산모자, 밀짚모자에다 간간이 꺼적말이, 개나리 붓짐 등... 말이 방위군이거지 거지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도보로 청도 쪽에서 수없이 들이닥쳤고 주변의 몇 개 마을에 배당될 인원이 만옥정 광장에 모여 놓으니 한동안 아수라장이었다.

내가 사는 송현동 배당 인원도 만옥정 마당에 있었고 반별 배당 인원을 데려와서 저녁밥 먹이고 재워서 익일 아침먹여 원위치 만옥정에 데려다주곤 했다.

만옥정 공원이 한동안 군대의 보충대 역할을 한 셈이다.

그 당시 1개 대대 인원쯤이 명덕초등학교에 수용되어 수 개월간 지난 다음 없어졌다.

(그 일은 세월이 다소 지난 후 알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지급된 식량 등 보급품을 상위 몇몇 간부급이 횡령 착복한 대사건으로 5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6.25 전쟁 발발 이듬해 군청 윗마당과 대회의실 등을 미군 부대가 주둔했는데 마당이 부족했던지 언덕 위 만옥정 공원 일부를 점유하여 물탱크, 기름탱크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1, 2년 후 부대가 철수하고 윤윤용 초대 원장께서

그들 콘서트 건물에 한미, 창녕문화관을 개설한 것이 창녕문화원의 시작이다.

봄날 벚꽃이 만발하면 콩쿨 대회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벚꽃에 파묻히는 축제의 장이 되고 때로는 창녕문화원에서 상영하는 국민 개몽 영화가 년 중 몇차례 무료로 상영되기도 하였고, 또 상업용으로 이동하며 관람료를 받는 장사들이 만옥정 광장에 천막을 둘러치고 영업을 할라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난리가 나는 일도 종종 있었다.

1953년 7월 3년간의 전쟁이 휴전이 되고 외국의 많은 구호물자(현 옷, 분유, 옥수수 가루, 밀가루 등)가 들어왔고 특히 천주교 개통의 물자가 많이 들어와서 당시 창녕천주교에 입교하면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을 많이 주어서 교인이 급격히 증가되고 그 시기에 세워진 창녕 천주교당이 당시 창녕에서 가장 웅장하고 큰 건물로 비쳤다.

수년이 지난 1959(단기4292)년 육군 제1206 건설공병단이 창녕지구 전승비를 만옥정 공원에 세웠는데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옛날 일본인 신사가 서 있었던 장소라 묘한 생각이 든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모두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 이 전승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다고 할까?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1960년대 초반 창녕 경찰서 부지중 적의 침입이 어려운 남쪽 급경사지를 제외하고 동쪽, 서쪽, 북쪽 3면을 토석혼용(土石混用)으로 높은 성벽을 쌓고 3면에 망루를 설치한 요새를 만들면서 중간중간 공격용 총구를 설치하여 적에 대비하는 시설 등 대 역사를 하면서 군민 모두가 호당 수일간식 부역으로 공사를 하였으며 특히 경찰서 동편인 만옥정 공원 쪽은 성벽의 높이도 더 높았고 공격용 총구도 많았다. 남·북 간의 대화와 상호연락 등 전쟁의 그림자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그 성벽은 모두 철거되고 보통 울타리로 교체하여 주변의 삼엄(森嚴)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1960년대 나라 전체가 다소 안정을 되찾으며 여러 분야에 건설사업이 발주

되면서 만옥정 공원에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동쪽, 북쪽 양면에 석축을 하게 되었다.

규격이 일정한 자연석 멧쌓기 공법으로 공사를 맡주 하면서 계성천, 운봉천, 토평천의 3개 하천에서 일정한 규격 자연석만으로 시공하는 조건이 따랐다. 석공은 말흘리의 하동술, 퇴천의 김쾌현 양씨가 하였고 시공 도중 돌의 규격이 설계와 불일치하다며 부분적으로 헐고 재시공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완벽을 기했기에 7~8년이 흐른 지금도 하자가 발생한 일이 없다.

동쪽과 북쪽에 석축이 설치됨으로 만옥정의 면모가 일신 되었고, 1969년에 퇴천리 398번지(당시 김쾌현씨 마당)에 허물어져 있던 3층 석탑을 지금의 장소로 이전되었고 도로면과 같은 장소에 있던 선정비군(善政碑群)을 철거하여 부지를 만옥정 높이와 같이 돌구어 그 자리에 연대순으로 설치하였다.

창녕군지 기록에 따르면 1962년 12월 20일 만옥정의 진흥왕 척경비가 국보 제33호, 술정리 3층 석탑이 국보 제34호로 지정되었고 그 무렵 만옥정 진흥왕 척경비의 전반적인 수리 공사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창녕지구 전승비 앞에 창녕군립 박물관을 겸한 도서관이 세워졌는데 이 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기념식이 1972년 1월 27일이며 당시 노대석 창녕 교육장 주관이니 당시는 문화제 관리를 문교부 주관으로 각 교육장이 관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창녕군립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앞의 만옥정 광장도 도서관에 따른 정원으로 가꿔지면서 광장은 서서히 좁혀져 광장기능을 상실하며 매년 벚꽃축제를 겸한 노래자랑 대회도 없어지고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창녕 공회당으로 또 창녕극장으로 옮겨갔다.

만옥정의 서쪽(경찰서 위쪽) 귀환 동포 몇 집이 있는 주변에는 1970년대 중반쯤으로 짐작되는 시기에 창녕군재향군인회와 창녕체육회 사무실 건물이 세워져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1991년에 교하리 지금의 장소에 훌륭한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하여 옮기면서 만옥정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었다.

1978년 5월 만옥정 서편 선정비군(善政碑群) 앞에 추호 노대석 선생 공적비(秋湖 盧大錫先生功績碑)가 세워져 있다.

이분은 소싯적 창녕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빛별문화를 편집·발간하고 십 수년간 타지역에서 근무하면서도 애향심이 남달랐고 창녕교육장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鄉)하여 빛별문화 속편을 발행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후세 교육을 위해 만옥정 공원에 창녕박물관을 겸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후세 교육과 문화 창달에 헌신한 분이다.

애석하게도 50대에 별세하니 당시 창녕문화원(원장 노두환) 주관으로 관내의 모든 기관 단체 및 군민의 동의로 만옥정 공원에 공적비가 세워졌다.

이 시기쯤 1981년 진흥왕 척경비 비각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비문 해설문이 척경비 앞에 동판으로 세워졌는데 1981년 12월 임창순 해설에 고동주가 썼다는 기록이 있다.

만옥정 중앙 서편에 세워져 있는 창녕객사는 옛 창녕 현의 부속건물 여럿 중의 하나로서 당초는 지금의 창녕 송현리 마을 회관 앞에 있었고 1925년에 지금의 창녕 재래시장의 북쪽 중앙부에 세워져 있으면서 시장 곡물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건물이 낡고 균현이 이탈되어 여러 곳에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붕괴 될 위험 지경이었다.

1983년 8월 유형문화재 제231호로 지정된 후, 1988년 5월에 만옥정 지금의 장소에 옮기면서 노후 된 목재(대들보, 기둥, 서가래 등)를 교체, 복원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문화원의 가장 큰 행사인 비사벌 문화예술제를 창립 발족하면서 전야제 행사인 향토기양제를 만옥정 광장 중앙에서 거행하던 것을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이 객사에서 거행하게 되어 기양제의 엄숙함과 제례의 품위가 향상되었고 안정적이며 비사벌 문화예술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1995년 창녕도서관이 만옥정에 세워진지 23년 만에 창녕읍 말흘리 302 (구 창녕교육청사)로 이전 하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공원 부지 내 여러 지장물이 사라지면서, 휴식공간의 기능을 다소 회복하게 되었고, 또 2003년 만옥정 광장 남쪽 당 초 일본인 소학교였던 창녕 천도교당이 지금의 남산공원 입구 부근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 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펼쳐 곳곳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 하는 등 공원 이용에 필수적인 현대식 화장실을 마련하고 그 근처에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었다. 또 남쪽의 창녕천 옆 도로에서 만옥정 공원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공원 산책이 편리하도록 가꾸어졌다.

근래에는 더 넓어진 중앙 광장 전체에 화강석을 깔아 신발을 신은 채 밟고 지나기 아까울 정도로 깔끔하게 꾸며져 공원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군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고 그렇기를 바라는 바이다.

8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은 부분은 진흥왕 척경비, 척화비와 고인돌 그리고 1800년대부터 200년이 넘는 동안 만옥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밭 일부가 조금 남아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왜정 때 심졌던 많은 벚꽃나무 중 한 그루가 척경비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시멘트 땀질 보호를 받고 간신히 100여 년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古典에서 읽다]

용의 눈물

항룡유회(亢龍有悔)



이성춘

향토사 연구위원

높이 날아간 용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높이 올라갔기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높이 올라간 용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한다.’는 『주역』에 나오는 건괘(乾卦)의 내용입니다.

『주역』건괘는 용의 변화를 이용해 세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룡(潛龍)은 물속에 잠겨서 힘을 기르고 있는 용입니다. 현룡(見龍)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는 용입니다. 비룡(飛龍)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늘 높이 날아가는 용입니다.

마지막 항룡(亢龍)은 끝까지 올라가는 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에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역에 나오는 ‘항룡유회(亢龍有悔)’의 구절입니다. 용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지향점이요, 목표지만 끝까지 다 올라간 용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려오는 일뿐입니다. 이게 어찌 용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亢龍有悔

항룡유회

끝까지 올라간 용이 후회를 한다.

항룡이 눈물을 흘리는데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힘 있는 자리를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서울 것 없이 권력과 힘을 휘두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올라간 용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면 그것은 허물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자신은 뒤로 빠져 그 공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노자가 늘 강조하는 겸손의 미학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박재희, 〈3분 古典〉 중에서]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 한다.

풍연심(風憐心)



이 성 춘

향토사 연구위원

『장자(莊子)』〈추수〉편에는 가장 아름다운 동물에 대하여 나옵니다. 전설상의 동물 중에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夔)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기는 발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이 100개나 있는 지네를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지네에게도 가장 부러워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발이 없는 뱀이었습니다. 뱀은 거추장스런 발이 없어도 잘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뱀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하였고, 바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든 가는 눈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지 않고도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하였습니다.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냐고. 마음은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전설상의 동물인 기라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부러워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夔憐虵, 虵憐蛇, 蛇憐風, 風憐目, 目憐心, 心憐夔
기연현, 현연사, 사연풍, 풍연목, 목연심, 심연기

기는 지네를 부러워하고,
지네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을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마음을 부러워하고,
마음은 기를 부러워한다.

세상이 힘든 것은 부러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지위와 부,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늘 자신을 자책하기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는 권력을 부러워 하고, 권력자는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화목한 사람을 부러워 합니다.

결국 자신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국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입니다.

[박재희, <3분 古典> 중에서]

청보리밭의 오솔길

주영숙

창녕문화원 건강체조반

꽃잎을 붙여 멎을 부린 창문을 여니 오뉴월 상큼한 바람이 포근히 안긴다.
어린이 소풍 가는날 들뜬 밤으로 일찍이 공설 운동장에 도착하니 수십대의
관광차가 번호를 달고 줄지어 서 있다.

오늘은 우리 문화원에서 견학을 가는 날이다.

반가운 얼굴 서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서로 건강을 잘 지켜감에 대단하고
훌륭하다.

남을 배려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며 차 창가에 몸을 기대니 아
스라한 저편 건너 어린 시절이 가물거린다.

서로 마주 보고 웃고 깔깔거리며 보리밭 속에 뛰어가 띄엄띄엄 서 있는 감부기를
뽑느라 이리저리 뛰며 감부기를 입안에 쏘옥 먹고 얼굴은 온통 검정 칠로 얼룩져
서로를 바라보며 티 없이 웃고 즐거웠던 지난 어린시절 그때는 문밖의 논밭이
온통 푸른 보리밭이었건만....

‘엄마 밥에 까아만 줄이 있어’하던 딸아이가 불혹의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보리밭이 귀하니 보리심은 논밭도 보기 드물다.

해서 우리 문화원에서 수십대의 관광차로 먼 이곳 고창 땅까지 오지 않았는가...
수십만평의 보리밭이 아주 장관으로 펼쳐져있다.

곳곳의 풍차, 원두막은 운치를 더해 한껏 돋보였다.

우리 인생길에 쉬엄쉬엄 쉬어 가자고 마련해 둔 것이리라.

저 청보리처럼 청춘의 젊은 시절을 새파랗게 힘차게 달려왔으니 우리 황혼에 빨리 익지 마라고 좀 더 싱싱하게 천천히 익어라고 우리 문화원이 도와주지 않는가.

갓가지 취미로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웃고 즐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의 인생길도 늘 푸른 청보리 들판처럼 맘으로나마 멋진 노후를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희망해본다.

우리 문화원 건강체조반 파이팅!!

최고!!!!

훗훗훗 ^^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기

심재만

◇ 창녕읍 보물찾기 (부제:창녕읍 팔경 돌아보기)

심재만

◇ 비사벌(창녕)의 군사지정학적 위치

남중희

낙동강 창녕구간 답사기(제4구간)



심재만

향토사연구위원 부소장

창녕은 예로부터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낙동강, 화왕산 용지, 함박산 약수터, 늪(우포, 용호, 장재, 번개, 장척), 부곡온천, 부곡 비봉리 유적지 모두가 물과 관련이 있다. 그 중 낙동강은 삼국시대에 신라가 가야 연맹체의 흡수 통일을 위해 낙동강과 연결해있는 창녕에 하주를 설치하여 가야권 점령의 교두보를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의병활동과 여생을 마무리 한 곳이다. 가까이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국군과 인민군이 격전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낙동강은 한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강으로 압록강, 두만강 다음으로 긴 강이다. 발원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남 지방에 있기 때문에 영남의 젓줄로 불리기도 한다. 수도권의 한강, 충청권의 금강, 호남권의 영산강, 더불어 4대강으로 꼽히기도 한다. 창녕군을 관통하는 낙동강의 길이는 대략 62Km로 백오십리 정도 된다. 창녕군 이방면 송곡에서 시작하여 창녕군 부곡면까지 아기를 품은 모습으로 흘러간다. 낙동강을 여섯 개 구간으로 나누어 창녕의 젓줄 낙동강 유역 문화재와 정자, 나무, 사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구간은 함안군 대신면 장암리에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이곳부터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망우정까지다. 이 구간이 낙동강 칠 백리 중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여가를 바둑, 활쏘기, 시 짓기, 서예, 그림

그리기, 뱃놀이 등으로 즐겼다. 동천(洞天)·누정(樓亭)·선유(船遊)·유산(遊山)으로 향유했다.

세상과 격리된 은거지에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누정을 짓고, 배를 타거나 산을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음풍농월(吟風弄月)로 즐겼다.

그 당시 경상도는 낙동강을 경계로 동북쪽을 경상좌도, 서남쪽을 경상우도라 불렀다. 400여 년 전 두 강이 만나는 것처럼 경상좌도의 퇴계학과와 경상우도의 남명학과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만났다.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망우당 곽재우 등 35인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 활동을 주도했거나 그 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다. 화왕산성 전투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른바 한강 정구선생의 용화선유(龍華船遊)다. 용화선유는 용화암(현 합강정)에서부터 시작해 청송사(현 반구정), 도홍보, 내내촌, 경양대, 시우포, 평사면, 청암정(현 망우정)까지 함께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많은 선비들과 교유했다. 말년에 한강은 중풍치료를 위해 봉산욕행(蓬山浴行)으로 이 뱃길을 다시 한 번 더 다녀갔다. 봉산은 지금 부산의 동래온천이다.

우리 일행은 뱃길이 아닌 육로로 이동했다. 낙동강의 동쪽 창녕지역에 길이 없어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장암하구 두물머리에서 출발한다. 강둑을 따라 걷다가 숲 터널을 만난다. 초여름인데도 맑은 숲이 주는 청량함으로 시원하다.



숲길을 따라 이십여분 걸으면 합강정에 도착한다.

합강정에 도착하니 커다란 은행나무가 맞아준다. 합강정은 남강과 낙동강 두 강줄기가 만나는 곳에 조선 중기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선생께서 벼슬을 마다하고 은거하며 강학과 수학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 간송 선생과 망우

당 객재우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교류하였다.

그 증거가 간송 선생이 지은 시 「등망우정감흥(登忘憂亭感興)」이다.

망우정에 오른 감흥 등망우정감흥(登忘憂亭感興)

- 간송 조임도

세상에 뛰어난 기이한 남아,
망우당 객상공은,
집에 계시면 조행(操行)이 떳떳하셨고,
전란을 당해서는 정충(精忠)을 쏟으셨도다.
용감히 명리(名利) 밖에 물러나시어,
혼탁한 세상에 대해 바른 말씀 하셨도다.
누가 저 공께서 고기 잡으시던 낚시터의 대나무가,
천고의 맑은 바람 불어 올 줄 알리요.

※참고 : 망우선생 문집

※조행(操行) : 생활에서 나타나는 온갖 태도와 행실.

※정충(精忠) :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순수하고 한결같은 충성.

※명리(名利) ; 명예와 이득

계단을 걸어올라 합강정 마루에 걸터앉아서 낙동강을 바라보니 나에게 없던
시심이 발동하여 나도 덩달아 시조 한 수 읊조려 본다.

합강정 조망을 노래하다 영합강정조망(詠合江亭眺望)

낙수(落水), 남강(南江) 두물머리
풍문(風聞) 듣고 찾았더니

양수리(兩首里) 맑은 물에
용화 산영(山影) 담겨있네

정(亭)에서 본 낙동조망(落東眺望)
무릉(武陵)인가 몽중(夢中)인가



그 시절 선비가 된 듯이 한 편의 시조를 읊어보며 호사를 누리다 반구정으로 향한다. 숲길을 지나 임도로 접어든다. 임도에는 시멘트로 포장되어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서니 와! 하고 저절로 탄성이 나온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 건너에는 남지유채단지와 남지철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용화산에는 초록의 수목들과 간간히 붉은 살결을 드러내는 흙이 보인다. 하늘에는 용이 승천하는 모양의 구름과 그 틈 사이로 얼굴은 드러낸 푸른 하늘이 그대로 강물에 내려와 있다. 이런 절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다. 멈춰있는 듯 흐르는 강물을 한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본다. 내 인생의 몇 안 되는 풍경을 뒤로 하고 아쉬운 마음을 생수로 달래며 길을 재촉한다.



반구정(伴鷗亭)이다. 갈매기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다.

반구정하면 경기도 과주에 있는 청백리 황희 명재상의 정자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이름은 모두 빌려 쓰는 것 같다. 이 정자도 조선 중기 학자인 조방 선생께서 여생을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다.

조방은 임진왜란 때 망우당 곽재우와 의병 활동을 했고, 정유재란 때도 왜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다. 그는 의병 활동 후 낙동강 주변의 말 바위(斗巖) 위에 반구정을 지어 함께 의병 활동을 했던 망우당과 강을 사이에 두고 교류했다. 그 후 홍수로 정자가 침식되자 1858년 청송사라는 절이 있던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반구정은 목조 기와집으로 대청마루와 온돌 구조다. 대청 앞에는 영창을 달았다. 솔거의 그림처럼 이 영창에 비친 느티나무에 새들이 앉으려고 하다 부딪혀 죽은 새들의 주검을 치우는 일이 허다하다고 관리자가 이야기를 전해준다. 일반적인 정자와는 달리 운치는 약간 떨어진다. 반구정의 압권은 650년 된 느티나무다. 느티나무 옆에 기대어 인생 사진을 남긴다. 온갖 풍상을 이겨내고 수백년을 버텨 온 고목이 삶에 지친 나를 쉬게 해준다.

이곳은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일출 등 계절마다 주는 느낌이 달라 사진동호인들 사이에는 꽤나 유명한 곳이다.

반구정은 조방 선생의 후손인 조성도씨가 연로하여 관리를 못하게 되자 아들 조광규가 아버지를 보살피며 관리를 해오고 있다. 도회지에 살던 조씨는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는 산속에 갇혀 감옥생활 하는 것처럼 갑갑하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너무 좋아 도시생활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 중 또 하나는 몇 년 전 새벽에 벼락소리에 나와 보니 느티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졌다고 한다. 봄에 꽃과 열매를 달기 위해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무게를 이기기 위해 몸의 일부를 희생하여 자신을 보호하면서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온 것 같다.

반구정의 또 하나 비경은 봄에 피는 남바람꽃이다. 꽃이 필 무렵 불법으로 채취해가고, 지각없는 사진사들의 훼손이 심해 지금은 울타리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아쉽게도 이 시기에는 유채꽃도 남바람꽃도 모두 다 지고 보이지 않는다. 이 름 모를 새소리는 들려도 갈매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구정 느티나무 아래에서 넋을 잃고 낙동강을 바라보며 남바람꽃과 유채꽃이 필 무렵 다시 올 다짐을 하며 다시 길을 서두른다.



임도를 따라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 용화산을 가로질러도 흥저수지를 지나 이백여개의 나무계단을 오르니 용화산 팔각정이다.

실 겨를도 없이 능가사에 도착한다. 능가사는 별로 알려지지 사찰이었는데 남지유채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 유명해졌다.

절로 들어서면 중생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커다란 약사여래 입상이 서있다. 그 옆에는 웃음을 따라 웃으면 무병, 장수, 부귀를 가져다주는 포대화상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준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96호로 지정된 능가사 칠성탱은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다. 1층은 감로당으로 원주실을 겸하고 있고, 옆 계단으로 오르니 대웅전과 관음전이 있다. 대웅전의 주련이 눈길을 끈다. 주련의 내용은 이러하다.

달이 은하수에 갈고 닦여 둥근 모습을 이루니,
흰 얼굴빛을 내어 대천세계를 비추네
원숭이가 팔을 이어 물속의 달을 건지려 하나
달은 본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月摩銀漢轉成圓 素面舒光照大天 連譬山山空捉影 孤輪本不落青天



대웅전의 주련과 관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옛 인도 가시국 숲속에 오백 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들이 숲속을 여행 중에 우물에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환히 밝고 쟁반 같은 것이 분명히 달인데 우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다. 원숭이들은 저 달은 건져내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암흑세계로 빠질 것이다.

걱정이 되어 의논한 결과 그 우두머리가 우물가 나무를 붙잡고 다른 원숭이가 팔을 잡고 다음 원숭이는 그 앞의 팔을 붙잡고 해서 우물 속의 달을 건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 아니겠는가? 하고 실행에 옮겼다. 원숭이가 팔에 팔을 연결하여 달을 건지려고 우물에 손을 넣으면 달이 깨어져 버리고 한참을 기다려 다시 건지려 하면 또 깨어져 버렸다.

수차례에 걸쳐 애쓰다 힘이 다해 모두 우물에 빠져 죽었다. 오백 마리 원숭이는 고통을 받았으나 모든 생명을 위해 달을 건지겠다는 공적으로 다시 환생하여 오백나한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는 세상이 허상과 환영의 세상임을 알려주는 정중로월(井中撈月) ‘원숭이 달 건지기’ 이야기다.

능가사를 나와 (구)남지철교다. 남지철교는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와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를 잇는 근대식 트러스 구조의 철교다.

길이는 391.4m, 너비는 6m, 트러스 높이는 6m다. 일제 강점기에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으로 가설되었다.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과 평안북도 중강진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의 교량이다.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의 도하 방지를 위해 미군에 의해 철교의 중간부분 25m가 잘려 나가는 아픔도 있었다. 전쟁 후 복구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보수, 보강을 하였다. 안전진단 결과 수차례 차량 통행금지와 개통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보행자 통행만 가능하다.

남지 철교는 트러스를 높게 하여 물결이 치는 듯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철제의 신축을 조절하는 이음장치로 건설 당시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프랑스의 명물 파리의 에펠탑과 제작방식이 같다.

남지철교는 매년 1월 1일 신년 해맞이 행사, 남지유채축제, 6·25 전쟁 65주년 특별사진전과 매년 철교사진전을 가지면서 남지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왔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로 철거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철교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후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래전 중국 어학연수 때 이회원과 더불어 중국 정원을 대표하는 원명원을 간 적이 있다. 원명원은 청나라 강희제가 아들 옹정제에게 하사한 별장이다. 원명원에는 영국의 약탈과 프랑스의 방화로 폐허가 된 산해를 후손들에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그대로 보존하는 모습을 보았다.

낙동강의 철교들이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목적으로 가설되었다.

남지읍 주민들의 노력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인접해있는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지내왔다. 용서도 되지 않고 더더욱 잊어지지도 않는다.

중국은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아 통 큰마음으로 용서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유쾌하지 못하고 언짢다.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해놓은 길을 따라 걸어 망우정에 도착한다. 흙으로 된 언덕길에 돌로 만들어 놓은 계단을 오르니 아름답리 느티나무가 서 있다.

느티나무 앞에는 곱 망우당 유허비가 있고, 그 앞에 조그마한 정자가 낙동강을 내려다보고 남향으로 앉아 있다. 왼쪽으로 돌아

좁은 문을 들어서니 정면 3칸 옆면 1.5칸이다. 현판이 근심을 잊는다는 망우정(忘憂亭)이다.



곶 망우당은 남명 조식 선생의 문하이자 조카사위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창녕, 함안, 영산 등지의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다.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때 육군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했다.

그 때문에 독만(瀆慢)이란 죄명으로 전라도 영암으로 귀양을 갔다. 귀양에서 풀려난 후 비슬산에 머물다가 영산의 낙동강 변에 정자(청암정)를 짓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 이 정자가 망우정이다.

또 하나의 현관은 어진사람에게 물려준다는 여현정(與賢亭)이다.

곽 상공은 임종 때 유서로써 망우정을 조카사위인 이도순에게 물려주는 글을 남겼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요순(堯舜)은 천하를 어진 사람에게 주었고, 나도 어진사람에게 강사(江舍)를 주노니, 주는 바가 크고 적음이 같지 아니함은 비록 하늘과 땅 같지만 그 주는 뜻은 요순과 나의 뜻이 같도다.

내가 보건데 강가에 정자를 지어 사람들이 능히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드문 까닭은 아마도 능히 어진 사람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하나의 정자를 사사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에게 주는 것은 그대가 산수(山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가히 내 정자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능히 내 마음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삼아 어진 사람을 얻어 그에게 주고, 뒷날의 어진 사람은 그대의 마음으로써 뒷사람의 마음을 삼아 능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가히 영원토록 「내 정자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망우선생문집 참고)

맹자는 의(義)를 인간의 바른길이라 했다. 경상좌도의 퇴계 이황이 인(仁)을 숭상한 후덕하고 포용적인 인물이라면 경상우도의 남명 조식은 의(義)를 중시한 엄정하고 청렴한 인물이다. 남명선생의 의로운 사상이 임진왜란의 의병 활동, 진주농민운동과 형평운동, 마산 3·15의거,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중이 함께하는 용기 있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남명 조식선생이 허리에 차고 다녔다는 성성자(惺惺子)의 쇠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창녕읍 보물찾기

(부제 : 창녕읍 팔경 돌아보기)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창녕읍 보물찾기
(부제: 창녕읍 팔경 돌아보기)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심재만

▶ 물과 창녕

- 낙동강 창녕구간 : 62km(150리)
- 화왕산 용지, 부곡온천
- 늪 : 용호, 우포, 번개, 장척
- 영산함박산, 비봉리유적지

2

▶ 창녕의 지형

- 지형 : 동고서저(東高西低)
- 동쪽 : 화왕산, 함박산, 덕암산
- 서쪽 : 낙동강(아기를 품은 모습)
- 주역 : 열한 번 깨 깨 지천태(地天泰)
(크게 일어나는 깨)

3

창녕읍 8경은 어디메?



1경은 어디메요!

- 화왕산성(火旺山城) 조망(眺望)이라
 - 낙동강 최미한데 천리망 뚜렷하다.
 - 태백산 호연지기(浩然之氣) 실컷 마셔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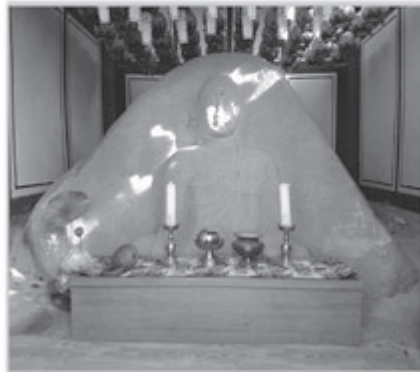
2경은 어디메요!

- 자하곡(紫霞谷) 청류(清流)로다.
 - 취봉(翠峯)속 조금대(濛濛台)는 한강(寒岡) 놀던 곳이런가?
 - 훈풍(薰風)이 그득한 향기를 몸에 풍겨주도다.



3경은 어디메요!

- 절도 없는 석불이라
 - 삭월(朔月)이 아니드면 뒤라서 왔으리오.
 - 세속(世俗)에 물을가하여 외따로이 있도다.





4경은 어디메요!

○ 크고 작은 고분(古墳)이라

- 보물을 뚝 지나 가없이도 상(喪)했구나
- 송풍(松風)이 옛말대신 단장곡(斷腸曲)을 타노니



7



5경은 어디메요!

○ 추한문(秋漢門) 옛집이라

- 단청(丹靑)은 여윌이되 가르침이 새롭구나
- 성현(聖賢)이 날 꾸짖으니 옷깃을 바로 잡노라



8



6경은 어디메요!

○ 명덕지반소요(明德池畔遺瑤)로다.

- 방초(芳草)는 뜰에 차고 아이는 소를 치네
- 서산에 불 같은 해 가기 싫어 하노라



9



7경은 어디메요!

○ 당산술정 유허(堂山述亭遺墟)로다.

- 고목은 잠들었고 삼층탑(三層塔)은 말이 없네
- 유연(悠然)이 남산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 높다.



10



8경은 어디예요!

○ 만옥정 영화(櫻花)로다.

- 구름처럼 피어나 눈처럼 지는구나
- 칙경비(折境碑) 적현 영웅 누구누구 어련고



12

▶ 우리마을 주변 문화재 및 유적

- 화왕산과 목마산성
- 창녕향교
-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인양사조성비(탑금당치성문기비)
- 창녕천 : 화왕산 발원 - 송고저수지
- 남창교 : 정월대보름 다리 밝기(석교 - 목교 - 현제시멘트)
- 석빙고 : 한반도 7개 중 2개가 창녕
- 만옥정공원 : 진홍왕 칙경비, 객사, 역대군수 공덕비 등
- 술경리 동, 서 삼층 석탑과 당산, 학씨초가
- 창녕전통시장 : 1928년 허가(3,8일). 어물전 뒤 시장 이전 기념비(현 문화원 부지에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

13



○ 화왕산성



14



○ 목마산성



14



인양사조성비(탑금당치성문기비)



14



석빙고



14

시사점

마무리하며

- ▶ 향토의 명칭변경에 대한 조사
- 향토의 주가 되는 산업(농업)의 변천과정
- 의식주 수단의 변모한 모습
- 도로, 철도 등의 건설로 변한 향토의 모습

우리지역 유,무형의 문화재유적

- ▶ 유형: 산성, 사찰, 탑, 무정, 독 등
- 무형: 전설, 노래, 무용, 풍습, 신앙, 공예기술 등
- 조상의 혼, 얼이 있는 유물 유적을 통해 향토 내력 파악

법고창신(法古創新): 창녕문화원 원훈

- ▶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낸다(도시재생 접목)

14

비사벌(창녕)의 군사지정학적 위치



남중희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신라의 중흥을 이룩한 진흥왕은 553년에 백제의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阿飡) 김무력(金武力)을 그곳의 군주로 임명했다. 백제의 성왕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554년(진흥왕15) 신라 관산성(管山城)을 공격했으나,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군에 패했고 왕은 사로잡혀 참수당했다. 이로 인해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고, 신라는 백제의 거센 반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흥왕은 이를 대비하여 555년 1월 비사벌(比斯伐)에 완산주(完山州)를 설치하였다. 신라는 552년에 설치한 상주(上州: 현 尙州)에 이어 하주(下州)로 대비되는 비자화(창녕)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창녕 화왕산성(사적 제64호)〉

신라는 이 전략적 거점을 이용하여 561년 아라가야(함안)를 쳐서 합병하고 이어 562년에는 이사부와 사다함을 보내 대가야(大加耶)를 복속시키고 그곳에 대가야군(고령)을 설치했다. 565년에 완산주를 폐지하고 대야주(大

耶州 합천)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 확장된 영토 경계를 비정해 보면 오히려 비사벌을 중심으로 전진기지를 만들어 장차 있을 백제와의 전투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비사벌이 군사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은 창녕 진흥왕 척경비(국보 제33호)에 사방군주(四方軍主)의 하나인 비자벌군주(比子伐軍主)라고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진흥왕은 상주와 하주를 수로로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백제로부터 빼앗은 한강 유역의 신주와 더불어 고구려가 지배하던 옛 옥저 땅에 설치한 비열홀주(함경도 남부)를 가리켜 신라를 방어하는 4곳의 핵심전략 기지 즉 사방군주(四方軍主)로 명명하였다.

비사벌은 백제가 신라를 침공하려면 추풍령을 넘는 험난한 코스보다는 대야성(합천)을 점령하고 낙동강 적교나루를 건너 비사벌(창녕)을 함락시켜야만 이서(청도)를 거쳐 신라 왕도(王都)인 계림(경주)을 진격해 들어가는 직선 공격로가 개척되는 것인데 그 길목에 강력한 비사벌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바로 642년 8월 백제 윤충(允忠)이 이끄는 백제군이 신라 최전선 지휘본부 격인 대야성(합천)을 함락시킨 전투에서 잘 나타난다. 즉, 사비(부여)에서 출발한 백제 군사들은 육십령을 넘어 함양과 거창을 경유한 뒤 합천의 봉산면을 거쳐 마령재(합천 묘산면)를 넘어 합천 대양면과 울곡면에 걸쳐 있는 대야성을 함락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때 대야성은 함락되었지만 계림으로 가는 길목에는 낙동강이 있고 험준한 화왕산을 배경으로 하는 비사벌(창녕)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윤충은 낙동강 지류인 황강 수로를 확보하는 선에서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어 대야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배후에 강력한 군사력이 주둔한 비사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일찍이 4세기 말 부터 비사벌에 대한 군사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하여 비사벌을 신라의 영향력 아래 두면서 낙동강을 이용하는 군사력의 유연

성을 높였고, 특히 비사벌 남쪽 가야진을 개척하여 아라가야(함안)와 직접 대치하는 접경으로 만들었다. 가야진에서 배를 타고 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라가야 핵심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라의 가야 진출의 교두보가 된 것이다.

532년에 신라는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탁순국(함안과 창원 사이에 위치)을 정복하고 백제군이 주둔하고 있던 구례산성을 차지한 다음 비사벌과 연결하는 가야진을 통해 아라가야를 압박하는 한편 낙동강 수로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서기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백제 성왕은 왜에 도움을 청하면서 신라와 아라가야에 접경에 있는 대강수(大江水)라는 요해처(要害處)를 차지하고 싶다고 했다. 백제도 가야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남강을 통하여 왜와 협공으로 그곳을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남지읍 용산리 창날〉

차지한 다음, 낙동강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낙동강의 동·서안에 위치한 6성을 수선하여 군사를 배치하면 구례산성에 주둔한 신라군대가

고립되어 항복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도 이 지역에 대한 군사지정학적 요충지임을 간과하고 있었다.

신라군이 주둔하던 구례산성의 위치는 가야진과 매포나루 (길곡면 오호리)나 우질포 (남지읍 우강리)를 건너 합포만(合浦灣 마산)이르는 길목인 칠원면 무릉리 성산으로 비정된다. 결국 백제는 가야진을 차지하지 못한 채 탁순국의 재건도, 아라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가야 땅 전체를 신라에게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백제의 공격이 무력화된 것은 아니었다.

636년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636년 영묘사 옥문지(玉門池)에서 겨울철 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모여 3~4일 동안 올었다. 국인(國人)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선덕여왕에게 연유를 물었다. 왕은 급히 각간인 알천과 필탄을 시켜 ‘정에 병사 2천 명을 뽑아 속히 서쪽 교외(경주시 건천읍 부근)로 가서 여근곡(女根谷)을 탐문하면 반드시 적병이 있을 것이니 습격해 죽여라’고 했다. 과연 부산(富山)아래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 병사 500명이 와서 매복해 있었으므로 모두 잡아 죽였고 백제 장군 우소(于召)는 남산 고개 바위 위에 숨어 있어 이를 포위해 쏘 죽였다. 는 기록이 있다.

삼국이 첨예하게 세력을 겨루던 시절 신라 진흥왕은 비사벌이 군사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임 일찍이 간파하여 가장 먼저 비사벌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의 중심을 타고 흐르는 낙동강 수로를 먼저 장악하여 삼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창녕 척경비에 나타나 있는 비자벌군주(比子伐軍主)는 그냥 군주가 아닌 신라에서 가장 군사 지정학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4대 핵심 방어 거점을 지키는 왕의 직속 군주였던 것이다.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 정옥이의 일기

최정옥

정옥이의 일기

최 정 옥
창녕읍

1975년 어느여름

날씨: 등드리가 때끼때끼하민스 머리꼭대기 쏘시도록 햇빛이 쏘아댐

와이라노 와이라노 이라지 마라카이

가시나멤은 이랬다 저랬다

와이라노 치아뿌라 그 입 다물으래이

자꾸 내한테 걸착되면 직이뿐데이

조석묵고 나이끼네 큰오라방 작은 오라방이 옥아 미꾸레이 잡아로 또랑에 가자
캐가 들씨랑 소꾸레이 들고 삼작 밖으로 나가싸 아임미꺼

또랑에 미꾸레이가 천지빼까리 있는데 큰오라방이하고 작은오라방은 이짜 저짜
히적만 쳐놓고 몇바리 잡도 문하고 퍼대지가 앓아놀아뿌고 내만 도랑 한복판서부
터 요래조래 땡기가꼬 한주쟁지 잡았다 아임미꺼.

요눔에 미꾸레이가 억수로 나부데사서 집에까지 오는데 쏘아 뿌마 우짜노 싶어
서 사박사박걸어 오는데 동네 아지매들이 주쟁지 함보자 함보자 캐가꼬 함비쫓드
만은 정옥이 미꾸레이 많이 잡았다꼬난리가 나뿌서예.

기분이 날라갈꺼 맨키로 해가 집에 왔드만은 주쟁지에 미꾸레이를 본 옴마가
대반에 소꾸리에 팍 부가꼬 소금을 확 흐치민서 옥아 담부락 밑에 호박입사구
꺼어오이라 내는 퍼뜩 뛰가가꼬 호박잎사구 꺼어다가 옴마한테 갖다쫓는데

소쿠리에 미꾸레이가 버끔을 막~ 내뿜으면서 옴마손에 들린 호박잎사구에 이리 치대끼고 저리치대끼고 씨시끼고 있는거로 한참을 구경 하고 있는데

오빠강 동네 친구들이 놀자 캐서 비석치기 하로 나가 빼서예 좋은 돌뼈를 쭈어야 마 다이길길인데 생각하민서 오만테를 다 치다보고 돌뼈조스려 땡기다가 완전 대끼리로 좋은거를 두 개나 쭈어가꼬 한 개는 끈티다가 세 놓고 한 개는 손에들고 껏껏이 뛰가 가고 있는데 옴마가 부른다
이거 또 다 내가 이길관인데 안가뿌마 마 죽으까 싶어서 퍼뜩 집에 들어가뻗는데

추어탕 한술을 끼리가꼬 아부지 퍼뜩 상차리드리고 우리는 평상에서 산지땡이 아지땡 학포땡이 아지땡하고 모다기리 안자가꼬 배가 부르도록 묵었다 옴마랑 아지땡들은 발일하러 나가고 나는 팽상에 발랑 눕어뻗따아임미끼
우리동네 하늘이 너무 씨프르딩딩한기 참 예쁘다 매미 소리 들으민서 살픈 잠이 들었빼서예

그때 그 시절 미꾸레이 국끼리 주던 우리 옴마는 벌써 세상 비릿뻗고예 추억만 남아있어예.

효도가 별끼있습니꺼 살았을 때 잘해드리야 되는데 보고싶어도 인자 볼수가 없으니까는 추어탕만 보마 옴마 생각이 억수로 나네예 호박잎사구로 미꾸레이 치대던 우리옴마는 내가이래 잘살고 있는거 하늘에서 치다보고 계실깁니다.

사투리대회로 나갈라꼬 하니끼네 옛날생각 더듬다가 어릴때 일기 한번 빼끼가꼬 오뻗습니데이

내가 나고 자란 창녕은 아직도 그 또랑에 미꾸레이가 천지뻗까리로 있어예 인자는 친정집 삼작앞에 그또랑이 지금 보마 내물팍 까지도 물이 안올라 오는기라예.

어릴때는 허리 끄지왔는데 한번 들어가보까 싶다가도 인자는 그때 그시절 동무도 없고 같이가줄 오라비들도 다 늙었네예.

창녕에 또랑에 미끄레이도 잡고 매미소리 들으민서 평상에 낮잠한번 자보고 싶으시모 언제든 놀러 오이소 아직 까지 친구랑 미꾸레이 잡을 실력안죽었심더 세월이 많이 흘러가꼬 나도 인자 중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창녕은 아직 그대로 물도 맑고예 산도 좋고예 농사도 역수로 잘되고예 사람들도 참 좋은 내고향이라예 언제 한번 꼭 내 고향 창녕으로 놀러오이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2023년 12월 18일

오늘은 창녕 장날입니데이

창녕 최고라예♥



시와 한시 / 서예작품



- | | |
|------------------|------------------------------------------------------------------------------------|
| ◇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 하재훈 |
| ◇ 평양 공작대 - 팔경대 | 신익교 |
| ◇ 문암공 | 신익교 |
| ◇ 늪 | 이우걸 |
| ◇ 도동서원 가는 길 | 김희덕 |
| ◇ 서예작품 | 청아 사공순/석호 하명술/고야 최상교/우만 성태기
덕산 신한순/성지 김동식/인곡 하인종/효산 김경옥
여실 김애영/창암 김영수/혜암 이두채 |

昌寧文化院 文化遺蹟地探訪

창녕 문화원 문화 유적지 탐방



관암 하재훈

昌寧文化院同人
창녕 문화원 동인

창녕문화원 회원들이

四月獻春到內藏
사월 헌춘 도내장

사월 이른 봄에 내장산에 도착하니

奇巖怪石生動氣
기암괴석 생동기

기암괴석이 생동이 근원이고

白羊古木茂林珍
백양 고목 무림진

백양사 고목의 우거진 숲이 진기하네.

麥籠油菜豐登滿
맥롱 유채 풍등만

보리밭 유채가 잘 여물어 가득하고

高敞黃土田野新
고창 황토 전야신

고창 황토의 온 들이 새롭네.

風翠滋閒壯志會
풍취 자한 장지회

푸른색의 산기운 이곳에 큰 뜻으로 모여

山峯火旺地祇伸
산봉 화왕 지기신

화왕 산봉의 지기를 펼치자.

癸卯 孟春 23. 4. 20.

계묘 맹춘

冠巖 河 在 焄

관암 하재훈

평양 공작대(共作臺) 팔경대(八鏡臺)



해송 신익교

계 환 야	溪還野	물이 있고
유석무계	有石無溪	돌이 없으면 물은 의미없는 돌과 같고
석 불 기	石不奇	돌이 있으되 물이 없으면
차지유계	此地有溪	그 돌 모양이 기이하지 않은 법인데
겸유석	兼有石	이곳은 물과 돌이 함께 있어
천위조화	天爲造化	하늘은 조화를 이루고
아 위 시	我爲詩	내 시를 짓노라

작 암곡(巖谷)

고려 11대 인종(仁宗)16년 무오(서기 11038)급제
 금자 대부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 平章事)
 시호(諡號) 정의공(貞懿公) 평양 대동강
 공작대(共作臺)를 팔경대로 지어 전해옴. 일설에 신경(辛鏡)공은
 자신이 살던 중국 산서성 대수현(大瘦顯) 천축산(天竺山)
 비슷한 영산 영축산 아래 안거

신익교 윤킴

문 암 공



해송 신익교

현청에 말회초리도
민폐라 걸어놓고
될마로 옥천산하

등지를 엮었어라
바위에 홀로 앉아서
시절을 묻는다

눈



이우걸

햇볕, 들다 만 고요의 수렁이라도
눈에는 범할 수 없는 초록의 혼이 있다
우포는 수십 만평의
그 혼의 영토다

새가 와서 노래를 하고
풀씨가 꽃을 피우고
깨어져 혼자 떠돌던 종소리도 쉬다 가지만
생명의 여인숙 같은
이곳엔
거절이 없다

편한대로 닿아서
스스로 생을 가꾸는
배려와 위안의 따뜻한 나라여
눈에는 범할 수 없는 초록의 혼이 있다

-
- 1946년 경남 창녕 부곡 출생
 - 19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과 졸업 (교육학석사)
 - 25권의 저서가 있고 많은 문학상을 받았으며 경남문인협회 회장, 경남문학관 관장.
 -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동아일보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 매일신문 신춘문에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교육계 이력으로는 진해고등학교 교장, 대청고등학교 교장, 밀양교육장 등을 역임한 바 있음

道東書院 가는 길

도 동 서 원



유사 김희덕

2022년 11월 8일 음10월 15일

10월의 보름아침 焚香을 가는 길에
분향

燦爛한 丹楓잎에 거리를 繡놓았고
찬란 단풍 수

琵琶山 시루峰에 太陽이 떠오르니
비슬산 봉 태양

洛東江 蒼波에는 물안개 피여 나네
대동강 창파

黃金빛 銀杏나무 반갑게 맞아주니
황금 은행

찾아온 道東書院 눈부신 壯景 일세
도동서원 장경

四季節 變化따라 感歎을 느끼면서
사계절 변화 감탄

세계의 文化遺産 아끼고 保存하리
세계 문화유산 보존

한글 봉서(封書)를 쓰다

청아 사공 순

그릇을 받든 와 한 연이 시름을 못타고
 지어 놓을 시가 보구 출구 댕이 부근
 모나스 가 예늘 댕이 부근
 모나스 가 예늘 댕이 부근

하형 동구 주 출 와 출 수 회 회
 미 제 날 경 안 회 여 수 시 여 가 지 회 나 출 나 의 회
 출 나 이 회 여 가 구 가 출 구 출 구 출 나 의 회
 랑 나 출 출 시 구 나 이 라 봉 서 를 쓰 라 됨 아 사 공 순

옛 비빈(妃嬪)간의 안부편지

퇴계(退溪)선생 시

석호 하명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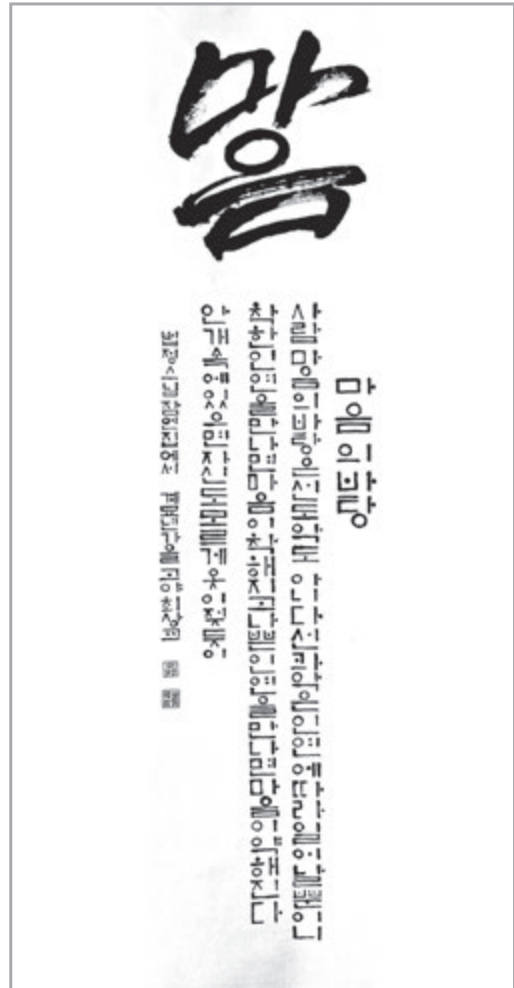


野曠天高積雨晴 碧山環帶翠濤聲
야광천고적우청 벽산환대취도성

들넓고 하늘 높을제 장마비가 처음 개이니
푸른매는 둘러있고 물결소리 들려온다

법정스님 잠언집 '마음의 바탕'

고야 최상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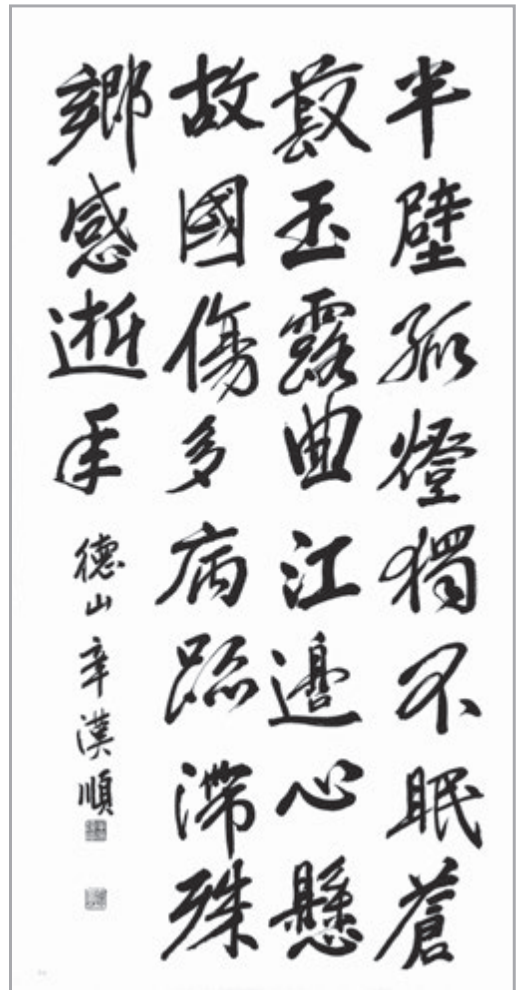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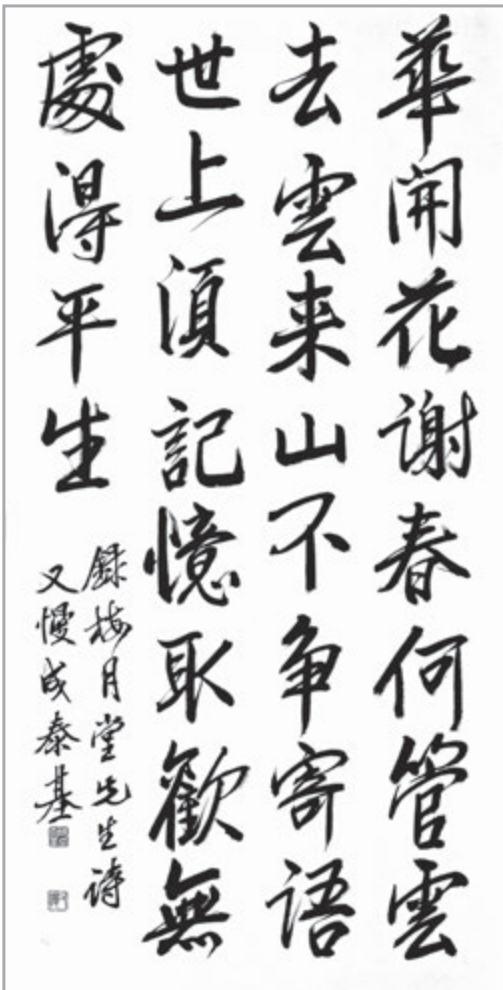
사람의 마음가짐은 원래 선도 악도 아닌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

사청사우(乍晴乍雨)

흑산추회

우만 성태기

덕산 신한순



화개화사 춘하관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봄이 어찌 관리하리.

운거운래 산부쟁
구름이 가고 온들 산은 다투지 않네

기어세상 수기억
세상에 말하노니 꼭 기억해야 하네

취환무처 득평생
기쁨을 취할 수는 있어도 평생 얻을 곳은 없네

반벽고등 독불면
벽의 의로운 등불이 잠 못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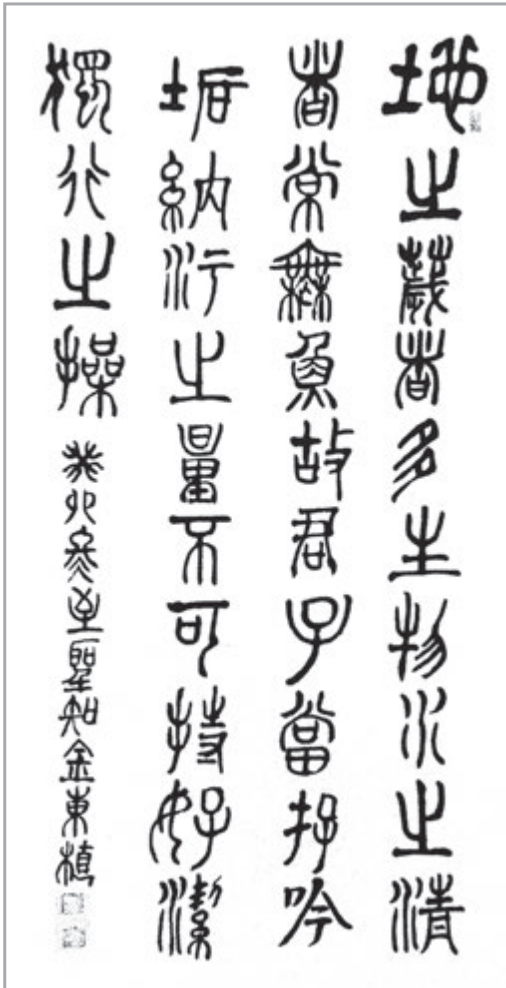
창가옥 노곡강변
굽은 강변 푸른 갈대에 이슬만 가득하네

심현고국 상다병
마음은 고국에 있어 병이 되고

적체수향 감서년
봄은 타향에 있어 가는해 슬퍼하네

지지에(地之穢)

성지 김동식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많이 자라고
 맑은 물에는 항상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때묻고 더러운 것도
 용납하는 아량을 지닐이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행하려는
 작은 지조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

숙산사효출 (산사에 머물다 새벽에 떠나다)

인곡 하인종



萬壑雲生去路迷(만학운생거로미)
 골짜기마다 구름 일어나 돌아갈 길 잃었는데
 一聲清磬斷稿西(일성청경단고서)
 맑은 풍경소리 끊어진 다리 서쪽에서 들리네
 前林月落僧歸院(전림월락승귀원)
 앞 숲으로 달 지니 스님은 절로 돌아오는데
 獨上層巖聽曉溪(독상층암청효계)
 홀로 바위에 올라 새벽 계곡 물소리 듣노라

숙산사효출

호산 김경옥



만학은생거로미
은 고을에 구름이 자욱 나갈 길을 모르노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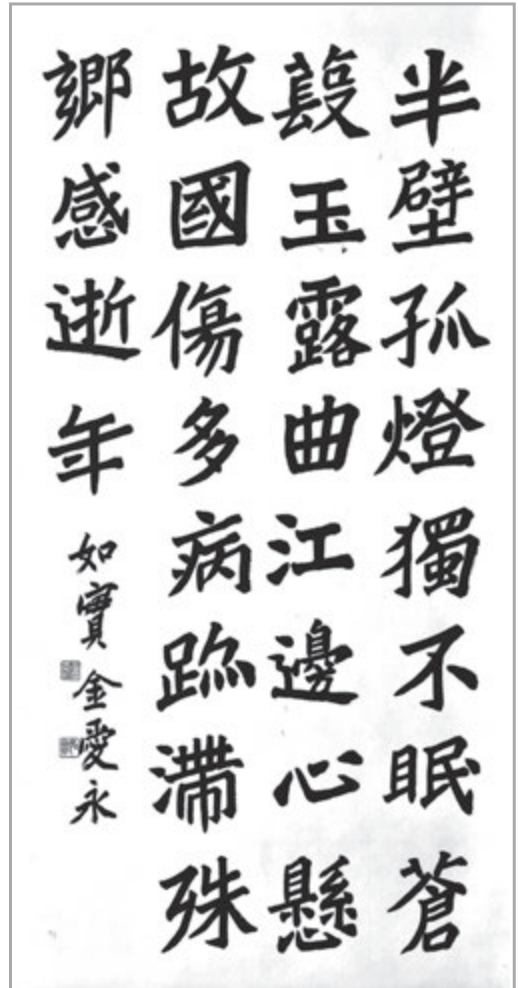
일성청경단고서
서쪽다리 저편에서 들려오는 맑은 소리

진림월락승귀원
숲속에 달이지니 스님들 절로 돌아 오는데

독상층암청효계
나 홀로 바위에 올라 새벽 냇물소리 들을레라

흑산추회

여실 김애영



반벽고등 독불면
벽의 외로운 등불이 잠 못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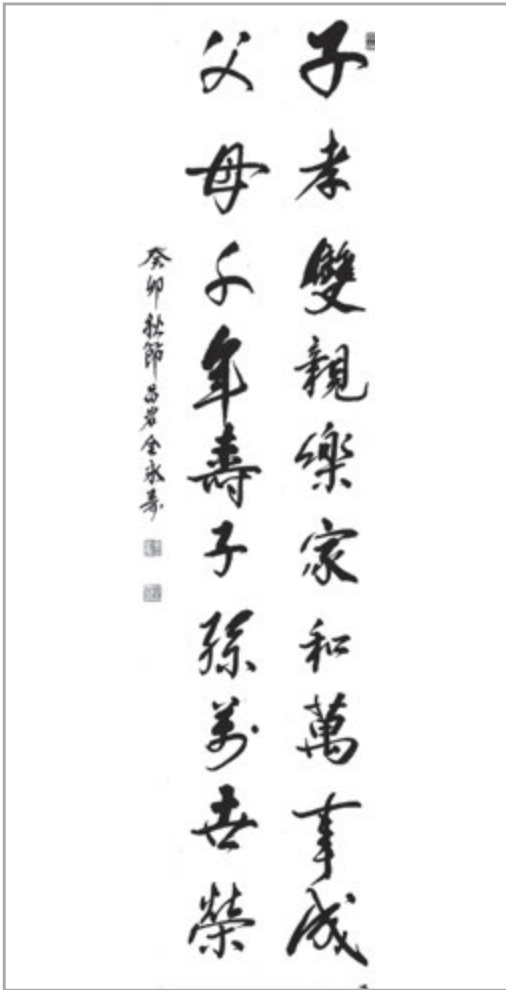
창가옥 노곡강변
굽은 강변 푸른 갈대에 이슬만 가득하네

심현고국 상다병
마음은 고국에 있어 병이 되고

적체수향 감서년
몸은 타향에 있어 가는 해 슬퍼하네

自效雙親樂家和萬事成
父母千年壽子孫萬世榮

창암 김영수



自效雙親樂家和萬事成(자효쌍친락가화만사성)
父母千年壽子孫萬世榮(부모천년수자손만세영)

아들이 효도하면 두 아버지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 지도다.

富不驕人富不盡,貴無
凌賤貴無窮

해암 이두채



富不驕人富不盡,貴無凌賤貴無窮
(부불기인부불진, 귀무능천귀무궁)

부자가 교만하지 않으면 항상 부 할 것이요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항상 귀할 것이다.

역사문화 및 여행기



- | | |
|----------------------------|-----|
| ◇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방문 기고문 | 곽정기 |
| ◇ 보훈사적지 문화탐방을 다녀오다 | 한삼윤 |
| ◇ 대마도 문화탐방에 대한 소고 | 한삼윤 |
| ◇ 전남 백양사, 전북 고창 청보리밭을 다녀와서 | 정숙연 |

국제 문화교류단,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초청방문을 다녀와서



곽 정 기
창녕문화원 부원장

창녕문화원에서는 2023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탐방을 가졌다.

실질적으로는 2019년부터 문화교류는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상호협약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바 이번 기회에 상호협약식을 거행하기로 상호 협의해서 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 향토사 연구위원, 문화원 대표동아리 (한국무용, 난타) 2팀과 창녕 예총 회장, 군청 미래전략추진단, 단장 등 28명이 만옥정 공원 뒤편 주차장에서 부산 공항으로 출발하여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 일정이 시작되었다.



〈야니기와 뱃놀이〉

일본에 도착하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운 날씨였으나 구름이 있어 별문제는 되지 않았으며, 비가 올 것 같아 좀 걱정이 되었다. 예상대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으나 행동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 첫째 코스 태재부 천만궁관광과 야나가와 뱃놀이 체험을 했다. 뱃놀이시 쪽닥배 2척에 일행이 나누어 타고 뱃사

공의 출발신호로 신나게 타고 즐기면서 가는데 아~일본 뱃사공이 우리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아~ 한 곡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앵콜 요청을 하자, 바로 두

번째 곡을 부르기에 본인이 빠른 동작으로 틱을 주니 4곡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계곡 하천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뱃놀이를 마치고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 전통 예능 축제장 입구에 도착하니 미리 준비된 일본 학생들로 구성된 환영팀이 양옆으로 서서 우리들을 열렬히 맞이하였다.

그것도 우리나라 태극기를 흔들면서 너무 환대해주어 와~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여 예능장으로 입장하여 2층으로 이동하여 현장 확인을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오니 현관 안쪽에 창녕의 부곡온천, 우포늪 등의 사진이 전시되어 감동하면서 관람을 한참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를 찾고 서로서로 일본 방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하루 일정이 마무리되어갈 즈음 예정된 다이와로이넷긴자도리 호텔로 왔습니다.

호텔은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첫인상이 깔끔하고 깨끗해서 잘 정돈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장의 진두지휘 아래 각 2~3명씩 방을 배정받아 각자 방에 입장해보니 생각대로 규모는 적지만 모든 것이 절약 정신에 의한 내용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일본의 생활패턴이로구나 하고 느낌이 들었으나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원장님과 같이 룸메이트로 같이 입소하여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현지식으로 마치고 나와 뒤편에 있는 시장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별사람도 없고, 우리 시장과 너무 달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바깥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숙소에 들어와서 일행과 연락하여 가져간 소주와 안주로 우리 방에 몇 명이 (술을 좋아하는 분만) 모여 첫날밤을 위해 간단하게 한잔하고 바로 헤어져 각자 방으로 가서 취침함으로써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은 06시경 일찍 기상하여,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문화원장님과 산책 겸 아침 운동도 할 겸 하여 호텔을 나와 해안가 주변으로 한 바퀴 약 1시간 30분 가량을 걸으면서 주변 건물, 숲 등을 감상하면서 주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길거

리는 물론이고, 해안가나 좁 구석진 곳 어느 곳을 가더라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것을 보면서(쓰레기, 담배꽂초 등) 일본 국민성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 마음 한 구석에는 착잡함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 어찌할꼬

호텔로 들어와 조식 후 2일째 일정이 시작되어 준비된 관광버스 (일본 현지 버스)을 타고 구마모토성을 처음 관람을 하고, 사쿠라노바바 조시이엔을 둘러 보고, 스이젠지 조주엔에 오전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 스이젠지 조주엔은 1632년 히고호소카와 가문의 (肥後細川家)의 3대 호소카와 다다토시공 (細川忠利公) 은 초대 구마모토 번주(藩主)가 됩니다. 그 후 부젠 라칸지에서 구마모토와 있던 주지스님 겐타쿠를 위해 구마모토성 동남쪽에 절을 건립하여 “스이젠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한 그곳에 다실을 지어 ‘스이젠지다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이젠지 조주엔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대 번주(藩主)호소카와 미쓰나오공(細川光尚公) 3대 번주(藩主) 쓰나토시공(細利公)에 걸쳐서 정원이 조성되고, 1671년에 현재와 거의 같은 규모의 정원이 완성되어 도연명의 시에서 유래한 “조주엔”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아소산의 복류수가 가득한 회유식(回遊式) 정원은 1929년 국가의 명승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스이젠지 전경사진〉

우리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특히 ‘스이젠지다실을 보면서 한참 설명을 들으면서 즐기다가 오찬 장소로 이동해서 맛난 음식을 회원 모두 웃으면서 즐겁게 오찬을 실시한 후에 예정된 오후 일정 공연 리허설이 있어 공연장에 모두 입장하였습니다.

공연 동아리팀은 옷을 한복으로 갈아입고,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 관계관들과의 상호인사와 소개 등을 마치고 공연팀의 리허설 준비와 현지 공연장 답사, 실지 공연의 연습이 시작되었고, 회원들은 연습하는 것을 좀 보고 있다가 1층으로 이동하여 다과와 현지인과의 담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일째는 예능제 (현지공연장)에서 일정을 보내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맛난 저녁 식사와 현지 일본 술을 한잔씩 하면서 즐겁게 만찬을 마치고 차량으로 40분 정도 이동하여 호텔(가고시마 ART)로 들어옴으로써 2일차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모든 회원들의 표정이 첫날과는 좀 다르게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해 보여 다음 일정 (협약식, 공연 등)을 위하여 각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편히 쉬었습니다.

3일째 아침 기상 후 간단한 운동을 마치고, 아침 식사 후 예능장 (행사, 공연장)으로 이동하여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 단체와 계획된 우호 협약식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호협약식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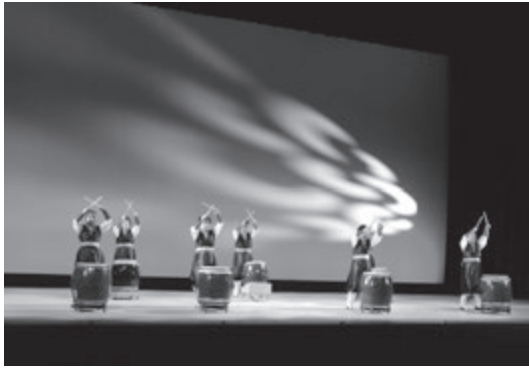
협약식에는 우리 단체 15명과 현지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 단체 10여 명이 참가하여 성대히 거행되어 상호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협약식 행사가 끝나고 중식은 협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마치고 우리들은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의 행사장에서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과 난타 공연이 14시부터 계획되어 공연팀 외는 관람석에 모두 착석하였으며, 공연팀은 무대 뒤편에서 공연을 준비했고, 시간이 되어 한국무용부터 먼저 시작하여 난타 등을 공연하였는데 아~~그곳에 참석한 모든 관람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환성과 박수가 이어졌으며, 일부는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면서 큰 관심을 보여주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환호보다 큰 느낌은 현지 일본인들 관람자들의 (시장, 협회 이사장, 임원 등) 질서정연하고, 한 사람도 퇴장 없이 관람하는 태도, 반응 등 정말 감사한 마음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일본 문화에 대하여 높이 평가되는 날이라 생각하면서 가슴 뭉클하였습니다.

창녕문화원 동아리 공연 등 행사를 마치고 잠간의 휴식을 가진 후에 사쓰마 센다이시에서 준비한 만찬에 입장하는데, 와~~~~~입장 준비와 환영 행사를 하면서 정말 특이하게 반겨주어 우리 참석자들이 어안이 병병한 마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환대와 만찬준비를 보니 일본인들의 검소한 것을 아는 우리는 간소할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식으로 많이 차려서 좀 예외였다는 마음과 창녕문화원을 이렇게 잘 대우하는가 하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만찬장에는 통역을 2명 배치하여 사회자와 같이 통역을 아주 잘하고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었으며, 창녕문화원 원장 (한삼운)님의 인사와 시장, 협회 이사장 인사 후 본격적인 만찬이 실시되어 만찬이 무르익어갈 즈음 우리 문화원의 임원과 간부, 공연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주 주도적으로 만찬을 이끌어 화기애애하였고, 상호 우호 증진이 아주 즐겁고 멋지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장님, 협회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녕문화원(난타동아리)



문화협회(봉춤)



문화협회(무용)



문화협회(통소연주)

3일 차 일정은 문화원공연과 환영 만찬으로 잘 마무리하고 여운을 안고 우리는 호텔(가고시마 ART)에서 휴식과 마지막 날 밤 1박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하는 4일 차는 좀 여유롭게 조식을 마치고 후쿠오카인 베이사이드 플레이스를 다 같이 답사하면서 인근에 시장과 마트가 있어 마지막 쇼핑을 겸하여 둘러보고 2층으로 이동하여 한식으로 중식을 현지식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서 국장이 주선하여 비행기 탑승 준비를 마치고 각자 티켓을 받아 짐 운송소속을 마치고 탑승을 기다리면서 일본 방문 4일 일정을 알차게 보낸 것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면서 16:05분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해 17:00경에 도착 하였습니다. 부산 김해 공항에서 미리 와 기다리는 우리나라 관광버스를 보는 순간 정말 반가웠습니다. 짐을 찾아 모두 타고 창녕으로 향하면서 밖을 쳐다보니 그렇게 정겨울수가?!

버스는 아무 탈 없이 창녕문화원에 도착하여 아쉬움을 뒤로하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행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궂은일 마다않고 해주신 관계자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창녕문화원과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 문화 교류를 통하여 3박 4일간의 느낌을 저 나름대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교류 여행을 통하여 어느 나라 (일본 등) 를 평한다든지 하면 어찌 잘못 생각하면 그 나라에 대한 편견과 개인의 생각, 과오를 범할지 모르지만 보고 느낀데로 쓰면서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1910.8.29. ~ 1945.8.15.)를 통하여 많은 고충과 특히 정신대 할머니들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세대들은 “왜놈”이라 불렀고, 또 더 앞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침략도 있었으며, 가슴 아픈 한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함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점만 보고왔나? 하고 의심도 있을거고, 그런 내용을 물어온다면 대답을 선뜻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 78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대열에 들어섰고, 경제적으로도 일본 못지않은 위치에 와서 한번 짚어볼 내용이 아닌가 하고 느낀데로 한번 쓸까 합니다. 이해와 판단은 본인의 몫임.

일본 놈, 일본 놈하고 무조건 나쁘게 욕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일본을 성찰해 볼 시기와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렇게 다르구나

일제강점기 35년 (일반적으로 36년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일본인들이 많이 지배 했다 라고 자기들의 계산으로 햇수를 가지고 산정 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35년도 14일이 모자라는 기간이다) 의 78년이 지났으며 이 시점에서 한번 비교(상호 다른 문화)해본다.

배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배우지 못하면 무지한 사람이 되기 싫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이지만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번에 일본 문화협회와 문화교류를 통하여 느낀 점을 한번 나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특성을 가지고 잘못된 점들은 가능한 시정도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점은 살려서 우리에게 맞도록 고쳐서 활용해 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인은 귀한 손님을 모실 때면 외식을 즐긴다.

그래야 제대로 대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인은 귀한 손님은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그래야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인은 상다리가 휘게 차려 먹어야 잘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냉장고는 반찬으로 꼭 채워 숨 쉴 틈이 없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공깃밥에 단무지 몇 쪽, 김 몇 장이면 족하게 여긴다. 냉장고는 늘 비어있다.

셋째,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은 자립심이 강하고, 부모 돈은 부모 돈, 내 돈은 내 돈이다. 특히 일본인은 집의 크기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일본의 각료들도 평균 20평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집에는 아주 작은 소형자동차 주차장도 함께 있다.

넷째, 일본인은 근검절약과 검소함이 몸에 배이고, 이것이 부자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 겨울에도 반바지 차림으로 학교 보내며 추위를 이기는 극기 훈련으로 간주한다.

가다가 일본인을 만나면 '하이 하이'하며 깍듯이 대한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와 비교가 아니 될 수 없구나 생각한다. 우리들은 우리보다 뒤떨어진 외국인을 만나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하고 느끼면서 혹시나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고 경계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았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며 이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국민성이 아닌가? 하면서 좀 착잡한 느낌이 든다.

제가 몇 번이고 일본을 가볼 기회가 있어 갈 때마다 와~~~! 하고 항상 느끼는 사항이라 한번 적어 보면서 우리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한번 반성해 본다. 이것은 결코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 본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일행 28명을 무탈하고 무사히 3박 4일의 여정으로 마무리하고 창녕문화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신 창녕문화원 한삼운 원장님과 계획부터 실행까지 일정을 치밀하게 도맡아 관리해 주신 정숙연 국장님 그리고 함께 다녀온 전 회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원 전 회원은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양국 간의 상호 문화단체 우호 협약식을 통하여 맺은 약속을 굳게 철저히 지키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녕문화원의 “더 아름답게! 나누자(大) 받들자(明) 누리자(充)”

구호와 같이 힘찬 전진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보훈사적지 문화탐방을 다녀오다

智光 한삼윤
창녕문화원장

올해 두 차례 (6.25 금 / 8.25 금)에 걸쳐 보훈사적지 문화탐방을 가졌다.
2023. 6. 5. (월)부로 국가보훈처(차관급)가 국가보훈부(장관급)로 격상된 이후라 그 의미를 더했다.

1차 탐방은 6.25.(금), 문화가족 44명이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과 15세기 당시 왜구 방비를 목적으로 쌓았던 진해 웅천읍성(경남도지정기념물)을 둘러보고 고성에 있는 유서 깊은 고찰, 옥천사를 다녀왔다.

이어서 2차 탐방은 8.25.(금) 문화가족 43명이 거제시에 소재하는 동백섬 지심도(只心島)를 둘러보고, 창원(마산)에 있는 3.15의거 기념탑과 3.15의거 발원지인 기념관을 탐방했다.

보훈사적지 탐방의 의의는 국가의 존립과 주권수호를 위해 공훈을 세운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뜻을 기린다는 보훈(報勳)의 정신을 숭상하고, 역사적인 교훈과 정신적 가르침을 되새기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심보감에 “불경일사(不經一事)이면, 부장일지(不長一智)”라고 했다.
우리 삶에서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한가지 지혜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삶을 통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여행은 되돌아보기 위해 떠나는 ‘돌아보기의 과정’이다.
보훈사적지 탐방의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이름하여 ‘사랑(인/仁)’과 ‘정의(의/義)’다.

맹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따라갈 생각도없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으려 하지도
않으니 참으로 슬프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 하면서도 자신
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데 있는게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데 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보훈사적지 탐방은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인 ‘사랑(仁/인)’과 ‘정의(正義/정의)’를
찾는 여정이었다.

고성 옥천사와 거제 지심도(只心島)는 자비와 사랑을 되새기게 했고, 주기철 목사
기념관과 진해 웅천읍성, 3.15의거 기념탑과 기념관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새삼
되돌아보게 했다.

2,500년 전 맹자는 잃어버린 우리의 본마음(本心/본심)인 양심(良心)이 방치되어
있다해서, 그 잃어버린 마음을 ‘방심(放心)’이라 했고, 그 방심(放心)을 찾는 것을
‘구방심(求放心)’이라고 표현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인 본심(良心/양심) 속에 본래부터 프로그램 되어 있는 마음이
사랑(仁/인)과 정의(義/의)다.

“구름은 바람 없이 갈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는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온다.

사랑(仁)이 있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내가 당해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해주는 것’이다.
정의란 ‘내가 당해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을 가져왔다.

지심도(只心島)의 다른 이름은 동백섬(冬柏섬)이다.
동백(冬柏)의 꽃말은 ‘끊임없는 사랑(abiding love)’이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자양분임을 절감한다.
‘지심도(只心島)’라는 이름에는 “일체유심(一切唯心)”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라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있다.
모든 법, 실정법의 근거는 양심(본심, 자연법)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봤다.
이번 탐방에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보는 소중한 시간여행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차례에 걸친 탐방에 따른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느낌의 일단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걸어온 성장 70년, 꽃피울 희망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창녕문화를 위해서!!



제1차 보훈사적지 탐방 (2023. 6. 23. 금)
〈주기철 목사기념관, 진해 울천읍성, 고성 옥천사〉



제2차 보훈사적지 탐방 (2023. 8. 25. 금)
〈거제 지심도, 3.15의거 기념탑, 3.15 의거발원지 기념관〉

제1차 보훈 사적지 탐방 ▾

진해 웅천읍성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에 조선 초기 수군절제사영(水軍節制使營)으로 구축한 석성.

- 1407년 일본과의 개항으로 일본인의 불법 입주를 막기 위해 1439년(세종 21) 축조
- 1451년(문종) 왜구 방비를 목적으로 동·서·북에 수로를 내고 성을 확장
-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

주기철목사 기념관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을 펼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의 신앙정신, 애국애족 및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

2015년 목사님의 고향인 창원시 진해구 웅천에 건립

- 제1전시실 : 독립운동 당시 현장 복원 모형
- 제2전시실 : 순교에 관한 자료전시
- 옥외마당 : 무학산 십자바위 (명상장소)



고성 옥천사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雙溪寺)의 말사(末寺)로 670년(신라 문무왕)에 의상(義湘)이 창건 대웅전 뒤에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옥천사라고 불림

주요 건물로 옥천사자방루(경남 유형문화재 제53호)와 옥천사 대웅전(경남 유형문화재 제132호)이 있다. 자방루는 지은 지 300년이 넘는 우아한 건물이며 대웅전은 1745년(영조)에 창건된 목조 건물이다.

유물로는 옥천사임자명반자(壬子銘飯子:보물 제495호)가 있고 이는 고려 1252년(고종)에 동으로 만든 악기로서 불교 의식에 사용하였다.

제2차 보훈 사적지 탐방 ▼

거제 지심도



지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에 딸린 섬으로, 면적 0.356km, 해안선 길이 4km, 인구는 21가구 37명(2015)이다.

지세포에서 동쪽으로 6km 해상에 위치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의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 전체가 거의 동백나무로 뒤덮여 있다. 너비 약 500m, 길이가 1.5km쯤 되는 지심도는 섬이 작다 보니 상주인구도 37명 정도이다.

지심도는 일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일제시대 일본 해군기지로 사용되었는데 해방 후 진해 해군통제부 소유로 관리 전환되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아름다운 동백섬인 지심도는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고 섬 여기저기 피어나는 야생화와 해변의 용바위, 형제바위, 마당바위 등 기암괴석들로 가득 차서 가파른 절벽의 해안 절경을 감상하는 낭만이 있다



대마도 문화탐방에 대한 소고

智光 한삼윤
창녕문화원장

창녕문화원에서 국외 유명 문화유적지 탐방 일환으로 일본 대마도를 다녀왔다. 2023.11.20.(월)~11.21.(화), 1박 2일 일정으로, 참가 대상 인원은 원장인 필자를 비롯하여 이사, 감사 등 총 23명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대마도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지만 창녕문화원 임원들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관련이 깊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서, 문화탐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그 소회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 탐방 일정 및 개요 :

- 2023.11.20.(월) ~ 11.21(화) [1박 2일]
참여 23명(고문,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 진주시 소재 (주) 남양관광[대표 강해기] 주선
- 쓰시마링크호(선박), 부산-히타카츠항(比田勝港)로선, 현지 전용차량(버스) 이용.

〈첫 날〉

05:30 창녕(공설운동장) 출발, 08:40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항,

09:50 대마도 히타카츠항(比田勝港) 도착.

- * 날씨에 따라 달라 보이는 미우다 해수욕장
- *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군 상륙지 도노자키 공원
- * 대마도 교통의 요지 만제키바시 만관교
- * 전쟁의 신 하치만구 신사
- * 대마호텔(이즈하라 시내 중심) 투숙

〈둘째 날〉

16:30 대마도 히타카츠항(比田勝港) 출항, 17:40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도착,

19:00 남지에서 석식 후 20:30 창녕 도착 해산

- * 이즈하라항(嚴原港) 시내 일원
- * 역대 대마도주가 거주하던 성 가네이시성(金石城)
-조선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비(德惠翁主碑)
- * 쓰시마 조선통신사역사관
- * 바다의 신(神)이라 불리는 와타즈미신사(和多都美神社)
- * 대마도 섬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에보시다케 전망대
- * 아유모도시 자연공원 [청류천(清流川) 청류교(清流橋) 계곡]
- * 슈시강 단풍길 등

▣ 주요 견문(見聞)사항 및 소회(所懷)

일본열도는 남북으로 2,800km에 걸쳐 길게 늘어져 있다. 국토는 크게 주요 섬인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4개 섬이며, 4,000여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다. 대마도(쓰시마)는 일본 남부 규슈에 속하지만, 거리상으로 가까운 후쿠오카(福岡)현에 속하지 않고 나가사키(長崎)현에 속하며, 일본에서 본토 4개 섬을 포함하여 8번째로 큰 섬이라고 전해진다. 현지 차량번호판에는 ‘長崎(장기)’ 일색이었다.

대마도(對馬島/쓰시마)는 1900년대 메이지시대에, 아소만과 만제키 운하개설로 인해 북쪽에는 상도(上島/가미지마), 남쪽에는 하도(下島/시모지사) 2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의 부산과 가까운 상도에는 히타카츠항(比田勝港), 일본 후쿠오카(福岡)와 가까운 하도에는 이즈하라항(嚴原港)이 중심항구이다.

부산-대마도 노선은 부산~히타카츠 간(49.5km), 부산~이타카츠~이즈하라 간(132km) 2개 노선이다. 이 중 이번 탐방에는 현지 사정으로 입출항 모두 부산~히타카츠항(上島 소재)을 이용했다.

부산-대마도 배편은 대표적으로, 쓰시마링크호(큰 배)와 니나호(작은 배) 2개 선박이 운행 중이다. 이번 배편 운행시간은 쓰시마링크호로, 편도 1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 쓰시마링크호 : 총 톤수 669톤, 배 길이 52.4m, 선 폭 11.8m, 최고 시속 40노트(74km)

대마도의 면적은 제주도의 38%, 거제도의 1.8배 정도로 보고 있다. 섬의 90% 이상이 산으로 이뤄져 섬이라기보다는 ‘바다에 떠 있는 산’으로 명명되고 있고, 전답이 거의 없어 자급자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라고 한다.

섬의 90% 정도가 해발고도 400m 내외의 산으로 이뤄져 있고, 해안은 절벽이 대부분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열도 사이의 중계자리에 위치하여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역사적으로 백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아비루’라는 성씨는 백제계의 ‘아직기’ 후손들이라는 설이 전해진다.

인구는 27천명 정도이며, 대부분 남쪽 섬 중심도시인 이즈하라(嚴原)에 살고 있다. 섬의 위치는 부산항에서 49.5km, 일본 본토에서 132km, 본토와 대마도 중간에 위치한 이끼 섬과는 47.5km로써 대부분 생활권역이 한국이다.

섬의 길이는 남북 82km, 동서 18km 정도로써, 남북은 3일, 동서는 반나절이면 돌아볼 수 있는 거리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경주(계림)에 속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년)에 정식으로 대마도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기후는 11월의 경우, 최고 17도, 최저 7도, 평균 7.5도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하나 일교차가 적고 비교적 따뜻한 편이었다. 여름엔 비가 많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겨울엔 눈이 거의 없다 한다.

주요산업으로는 어업과 수산양식, 진주양식업, 서버스업, 광업이 발전하였고, 쓰시마의 수목 전체를 돈으로 환산할 시 일본 총 인구의 4년차 식량을 구입할 만큼의 금액이 될 정도로 대마도는 수목이 경제림이며 산소공급장이라고 했다. 특산물인 쓰시마의 오징어는 나가사키현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한다.

‘대마도(對馬島)’라는 섬의 유래는 여러 설이 전해지지만, 한국의 마한(馬韓/백제의 옛 이름)에서 맑은 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마도를 개척하려 간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이 ‘마한을 마주하는 섬’이라는 의미로 ‘대마도’로 명명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대마도를 ‘쓰시마’로 부르는 이유는 712년에 편찬된 일본이 자랑하는 역사서 ‘고사기(古事記)’에 대마도가 ‘진도(津島:나루섬)’로 표기돼 있는데, 그 뜻은 한반도와 교역을 하기 위해 오가는 배들이 들러서 잠시 쉬어가는 ‘나루 섬’이라는 의미로서, 일본어로 ‘진(津)’은 ‘쓰’이고, ‘도(島)’는 ‘시마’이니, 글자 그대로 ‘쓰시마’가 된다는 것이다. 신숙주 선생의 ‘해동제국기’에도 당시 조선에서 세견선을 할 당한 기록이 있다고 전해진다. 나루(津)섬 진도(津島)를 일본어로 ‘쓰시마’로 명명했음을 볼 때, 일본보다 한국과 가까운 문화적 토양을 갖춘 곳이라 여겨진다.

고대 역사서인 ‘환단고기’에는 ‘임나일본부’의 위치가 한국 남부가 아니라 ‘대마도’라는 기록이 있으며, 광개토왕비에도 대마도 통치 기록이 있다고 전해진다.

미우다 해수욕장

대마도 여정의 필수코스로서, 1996년 일본의 해안 100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대마도에선 보기 힘든 매우 고운 입자의 천연 모래해변이 못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해변에 가까운 작은 바위가 핵심 포인트였다. 작지만 아름다운 해안을 가진 곳이다. 맑은 물과 함께 수심이 얇아 가족끼리 연인끼리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에메랄드 그린의 바다는 남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서 일찍부터 사진 찍기의 명소가 되었다. 이 곳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개인별 끼리끼리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인증샷으로 추억을 담아왔다. 한국의 태안반도 꽃 섬이 생각나는 정말 멋진 관광명소였다. 2019년도 자전거 라이딩 시에 보였던 포장마차 오뎅, 커피 판매 상인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도노자키 국립공원

도노자키 해안은 암벽이 험한 지역으로, 대마도 해전 당시 러시아 병사 상륙지로 알려져 있으며, 러일전쟁의 전승지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세계 5대 강국이 되었다.

맑고 청량한 바람과 아름다운 경치가 탐방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역사의 아픔이 서린 곳이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지보니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이끄는 발틱 함대를 쓰시마섬 인근에서 일본 제독인 도고 헤이하치로가 격파하면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도노자키 국립공원에 러시아 함대 격파이후 부상 당하고 포로가 된 러시아 제독인 지노비 로제스트벤스키에게 직접 문병가는 일본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와의 만남을 재현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 공원은 미우다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 인근에 위치하여 동 해수욕장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어, 실로 장관이었다.

*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 1934년생, 일본 제국의 해군 제독, 1904년 러일전쟁의 막바지,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해군을 승리로 이끈 일본 연합 함대사령관.

만제키바시만관교(萬關橋)

대마도의 북과 남을 연결해 주는 다리다. 이 다리는 1897년 굴삭을 시작하여 1900년에 완공시킨 일본 군사용 운하에 놓인 다리다. 당시 일본 해군이 함대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해협에 다리를 세웠다고 한다. 길이 210m인 다리 아래에는 만제키바시 운하가 흐른다. 3차로 보강 건설된 오늘날의 다리는 1996년에 완성되었다. 당시 해군 전력상 세계 최고로 손꼽히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일본이 대마도로 유도시켜 대승을 거두었다.

현재는 상도(上島)와 하도(下島) 두 부분으로 나뉜 대마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 작용하고 있다. 만조 시에는 조류가 여러 겹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한다. 러일 전쟁이 아름다운 명소를 만들었다. 사람이 건너고 물자고 건너고 마음이 흐르는 다리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건너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번뇌망상이 깊은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알고 보면 모두가 마음(心)이다. 일체(一切)가 유심(唯心)인 것이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불현듯 ‘번뇌(煩惱)가 바로 깨달음(菩提)’이란 불가(佛家)의 명구(名句)가 떠올랐다. 건너간다는 의미는 따로 무엇인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닌, 함이 없이 하는 무위(無爲)의 행(行)임!

하치만구 신사

하치만구는 일본어로 ‘팔번궁(八幡宮)이라고 불리운다. 어부와 병사들을 보호하는 신사이다. 일본 전국의 팔번궁 신사는 약 3만여개 이상으로 그 수가 엄청 많다. 이곳 하치만구 신사는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쓰시마를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최익현 선생이 대마도로 끌려와 처음 3개월간 수용 생활을 했던 장소가 하치만구 신사의 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가네이시성(金石城)과 덕혜옹주비

이즈하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성(城)으로 역대 대마도주가 거주하던 곳이다. 덕혜옹주가 이곳 소 타케유키와 정략결혼을 했다. 내부에서는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도 볼 수 있다. 금석성 안으로 통하는 정문(노문)과 성벽 일부는 1990년에 복원된 것이며 대마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대마도의 역사를 탐방하면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 중 하나인 덕혜옹주비는 한일관계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조선 왕조 26대 고종황제의 왕녀인 덕혜옹주(德惠翁主)는 1931년 5월 쓰시마변주 소 다케유키(宗武志) 백작과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正惠)이 있었으며, 1955년 이혼 후 1961년 귀국한 덕혜옹주는 1989년 낙선재에서 별세했다. 이 비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뜻으로 건립되어, 2001년 11월 10일 대마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었다.

쓰시마 조선통신사 역사관

쓰시마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이 되어있던 2017년 3월 29일, 쓰시마 시(市)의 지역 활성화 단체가 ‘조선통신사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구상된 것이다. 그 후 기본계획 책정과 기본, 실시계획을 거쳐 정비에 착수하고 2021년 10월 30일에 개관하였다. 이 역사관은 조선통신사를 배우는 성신(誠信)의 교류를 주제로 하여 통신사의 역사, 쓰시마의 관계,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신(誠信) 외교 등에 관한 소장 자료와 가이드스 시어트(극장)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는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에도(江戸) 시대까지 조선국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 절단이다. 사명은 양국의 교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 국서를 일본에 전하고 일본 국서를 조선국에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각 시대의 조선통신사 중에서도 특필되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에 의해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양국 간에 평화구축과 유지에 공헌한 에도시대 조선통신사이다.

에도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12번째 조선통신사는 학자와 예술가 등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인품도 지니고 있어, 조선통신사와 일본 각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가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양국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0월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11건 333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되었다.

이 중 일본에는 48건 209점, 한국에는 63건 124점을 소재하고 있다고 전한다. 의상 체험 코너에서 정사 금관조복을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일행이 많았다.

와타즈미신사(和多都美神社)

본 신사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아소만 입구에 있는 신사이다. 탐방 시 한국인 방문객에 대해서는 경 내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창 밖으로 보면서 가이드의 설명만 들어 아쉬움이 많았다. 일본인에게는 아직도 한국사람들이 무례한으로 인식되고 있어 씁쓸함이 컸다. 5개의 도리이 중 바다 위에 있는 2개의 도리이는 조수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어 잔잔한 아소만과 어우러져 신비를 연출한다고 한다.

* 도리이(torii) : 일본 신사의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내는 의식적인 관문으로 하늘 천(天)자 모양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문(門).

에보시다케 전망대

대마도 내에서 유일하게 360도 동서남북 사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다. 아소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이름나 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아소(淺茅)만은 겹겹이 둘러싸인 산과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 등 등 웅대한 모습을 자랑한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대한해협 너머로 한국의 산들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란 다. 우리 일행이 탐방한 시간에도 부산의 해변을 어렵פות이 볼 수 있어 향수를 달랬다.

아유모도시 자연공원

해맑은 청류천(淸流川) 위에 ‘청류교(淸流橋)’라는 출렁다리(구름다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이즈하라 계곡 천연 화강암 자연공원이다. 이즈하라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아슬아슬하게 출렁 다리를 건너는 쓰릴 있는 재미도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아유’는 ‘은어’를 뜻하며, ‘모도시’는 ‘돌아 온다’는 의미란다. 은빛 은어가 돌아올 정도로 물이 깨끗하다는 걸 체감했다. 곳곳에서

절경을 폰에 담은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온다. 산책하기에는 최적이다. 일본 여정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자판기 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도 예외는 없었다. 주차장 주변 곳곳에 자판기가 눈에 띄었다. 자연에 스며든 인간의 문화이니 일본인들 어쩔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다.

슈시 강의 아름다운 단풍길

슈시 강을 따라 약 7km에 이르는 길에 하늘을 찌르는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단풍 길을 만났다. 피톤치드의 효과를 한없이 느끼면서 기분 좋은 산책으로 1박 2일의 아름다운 여정에 마무리 심표를 찍었다. 가을 단풍철에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란 다. 2019년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매년 단풍축제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다.形形色색의 단풍이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계묘년 내장산 단풍을 거의 볼 수 없어 아쉬운 차에 이곳 단풍을 마음껏 감상하고 나니 모두가 흥겹고 즐거운 여정이 된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웠다. 나가사키현에서도 단풍이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란 다.

■ 탐방(探訪)에 대한 종합 소견(所見)

일본을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 일본인의 철저한 친절, 질서, 청결의식이다. 우리가 평소 배우고 익혀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다.

혹자는 일본 국민성을 한마디로 “언필신(言必信)/행필과(行必果)”라고 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실천해서 반드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남을 지나치게 많이 의식하는 “메이와쿠”, 민폐 끼치는 것을 지나치리만큼

싫어하고 민폐를 끼칠 시 조직이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이지메”,

이런 덕목들이 오늘의 일본 정신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다.

한국사람은 한국사람 다워야 하겠지만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쓰레기를 버리려 해도 버릴 휴지통이 없다. 청결해질 수밖에 없다.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친절해질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두 가지란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너도 피해를 당한다.”
“남을 존중하라. 그래야 너도 존중 받는다.”

선진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몸에 익히고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과제인데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실천하기에는 팔십 먹은 노인도 어렵다는 말이 실감난다.

일본 교육은 수치심을 주어 다시 그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한다고 들었다.
숙소인 이즈하라시내에서 이른 아침에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일련의 학생들이 줄을 서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즈하라시내의 청결한 모습과 모든 차량들이 한 치의 위반 없이 질서를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비교해 보니 부끄러움이 한없이 밀려온다. 지난 5월 중순 일본 센다이시 방문 시 들었던 일본 사람들의 몸에 배인 친절의식이 떠오른다. 이름하여 “오아시스 덕목”이다.

일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입에 달고 살아가는 생활 덕목이라 이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받들며,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면서 ~

〈오/아/시/스〉

1.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 안녕하세요
2. 아리카토 고자이마스 => 감사합니다
3. 시츠레이쓰마스 => 실례합니다
4. 스미마생 => 죄송합니다

전남 백양사, 전북 고창 청보리밭을 다녀와서

정숙연

창녕문화원 사무국장

창녕문화원 1,200여명 회원이 일년 중 가장 기다리는 단체 나들이 “문화 유적지 탐방”이 따스한 봄바람과 같이 다가왔다. 바쁜 농촌의 농번기를 피해 4월의 마지막 주 평일로 날짜가 정해졌고 삼삼오오 마음 맞는사람 끼리끼리 350여명이 신청하여 버스 9대로 여행하게 되었다.

드디어 출발

아침 7시, 창녕공설운동장 주차장에 9대의 버스앞에서 인솔자에게 명찰을 받으면서 출석도 부르고, 서로서로 반가운 인사를 하고, 잘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시끌벅적한 정담을 나누었다. 한참 후 인원 파악이 끝나고 간식을 개인별로 배부받고 군수님의 배웅을 받으며 기쁨과 설렘으로 탐방길에 올랐다.

이번 탐방은 전남의 천년고찰 백양사와 전북 고창 청보리밭 이다.

창녕에서 전남 백양사까지 208km 약 3시간, 백양사에서 전북 고창 청보리밭 까지 48km 구불구불 산을 넘고 국도를 따라가 약 1시간 10분 남짓 걸리는 거리이다.

창녕에서 백양사로 이동 중 거창 휴게소와 강천산 휴게소에 잠시 들러 쉬었다가 달려 11시에 백양사 입구에 도착해 한삼윤 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문화원 원훈*을 구호로 외치고 아름다운 백양사 전경을 배경으로 단체사진도 촬영했다.

* 문화원 원훈 : 『더 아름답게! 옛 것을 본받아 새 것을 창조(法/古/創/新)』

나누자(大), 받들자(明), 누리자(充)



〈전남 장성군 백양사〉



〈전북 고창 청보리밭〉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백양사를 향해 절로 쪽 올라가다 개울가에서 추억 남기려고 한 컷 샷을 찍는 가족, 친구, 산악회, 직장동료 등이 많이 보였고, 잠시 걷다 정면에 나타난 백양사의 자태는 백암산의 우뚝 솟은 흰 바위 백학봉 아래 단정하고 고즈넉한 절 분위기에 빼어난 기와지붕의 모양새는 순간 숨을 멈추게 했고,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먼저 종무소에 들러 창녕문화원 도착 소식을 전하고 나오니 바로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회원님들이 빼곡히 자리를 하고 진심을 담아 삼배를 올리고 있었다. 한쪽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함을 느꼈다.

해설사에 의하면 백양사는 1,400년 전 백제 무왕시대 창건한 고찰로 전북 지역의 가장 오래된 사찰 가운데 하나란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시대 선조때 환양 선사가 불경을 설할 때 마다 흰 양들이 설법을 듣기위해 모여들었다 해서 백양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회원들 모두가 이를 듣고 경건해지면서 한편으론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백양사는 역사가 깊어 문화유산이 많이 있으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보물 3점이 있고, 특히 대웅전 마당 끝자리에 자리 잡고있는 350년 된 고불매는 천연기념물(제486호)로 지정되어 있고 오랜 세월만큼 나무 부분부분이 썩어 있었지만 진분홍빛 매화가 진풍경이었다.



〈천연기념물 제486호 고불매〉

마지막으로 가을철에 유명한 백암산 단풍과 백양사 앞의 호수와 쌍계루는 내장산 계곡 단풍과 견줄 만큼 유명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가을 단풍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려 점심을 예약한 절 입구에 있는 백양사 맛집 “산아래

집밥”이라는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다.

340명이 한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버섯전골과 도토리묵, 파전으로 허기를 달래고 약간의 동동주로 흥을 돋구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3:10에 고창 청보리밭으로 출발해 14:10에 도착 자유관람을 하기로 했다.

마침 축제 기간이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주요 생태자원 중 하나인 청보리밭을 주제로 한 고창군의 대표축제로 2004년부터 개최한 이래로 해마다 국내 각지에서 평균 50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 경관농업의 1번지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청보리밭 축제는 매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23일 동안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 약 100만㎡의 땅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축제는 “가자! 싱그러운 초록 낙원 청보리밭”을 주제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4월 15일 유채와 보리밭을 배경으로 축하공연과 함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세계무형문화유산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진행하는 청보리밭 농악놀이와 어울마당, 보리밭 사잇길 버스킹 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보물찾기, 보리빵 만들기, 보리새싹 키우기, sns 포토존 운영, 고창 방문의 해 이벤트, 고창 관광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청보리밭 축제의 으뜸은 청보리밭 체험길 걷기로 트릭아트 길, 보리밭 사잇길, 노을길, 마중길 등에서 문화와 낭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1.5km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친환경 청보리밭을 찾은 관광객에게 탁 트인 청보리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

또한 축제 기간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먹거리 코너를 준비하였으며, 품질 좋은 농특산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부스등 휴일에는 정읍역에서 청보리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고창군 시티투어버스 운행시 청보리밭을 경유 할 수 있도록하여 관광객이 편리하게 고창을 여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창녕문화원 전 회원 단체사진〉

싱그러운 청보리밭을 감상하며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고 행복도 키우며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내년을 기약하며 2023년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을 마무리하고 창녕으로 돌아왔다.

수십번을 챙기고 확인해도 과하지 않은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와서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교양 및 정보



◇ 왜 한자를 배워야 하는가?

성낙은

◇ 주역으로 보는 2024 갑진년

한삼윤

왜 한자를 배워야 하는가?

成樂殷

향토사연구위원

1.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오래전부터 다방면에 걸쳐 중국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 서로의 특산물은 물론 풍속과 문화 등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은 까닭에 중국과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하게 되었다.

2. 한자는 한자문화권의 공용어였다.

한자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유물인 기와조각에서 발견되는 문자(文字)와 ‘광개토대왕비’, ‘진흥왕순수비’를 비롯해 각종 금석문에 새겨진 유려한 한문 문장을 살펴보면, 삼국시대보다 훨씬 전에 한자가 이 땅에 들어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과 문화적인 교류가 잦았던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들여오게 되었고, 그 한자를 생활 속에서 널리 쓰게 되었다. 더구나 아직 우리 고유의 문자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자는 일상의 문자로 통용된 것이다.

3.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자로 문자 생활을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사용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한문(漢文)이 문자 생활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한자 문화의 영향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있다.

4. 한자 학습은 결국 우리말 사용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자, 한문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중국의 문자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수 천 년 동안 한자로 기록된 우리의 문학, 역사, 철학을 배우자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말 속에 스며들어 우리말이 된 한자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말을 정확히 구사하고 어휘력을 넓히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어휘의 60~70%가 한자어가 차지하는 현실이고 보면 한자, 한자어의 학습이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자 학습을 통하여 우리와 이웃한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한자를 사용한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한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로써 그 역할을 담당한 글자이다. 때문에 한자를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 문자가 아닌 특별한 문자를 익힌다는 호사가적 취향의 발로가 아니며, 또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자가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그 문화를 한문으로 기록하며 이것을 후세의 우리에게 남겨준 것인데, 우리가 이를 해득하지 못한다면 전통문화가 없는 미개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겠는가?

5. 한자 발전과 해서체 확립

1) 한자는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한자는 B.C 2,700년 경, 중국의 창힐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자란 인류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결승(結繩), 도화(圖畫), 부호(符號) 등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힐 창조 설은 설득력이 약하다. 원시사회 말기, 하(夏)나라 때에 문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발견된 것 중 한자의 기원과 관계되는 것은 반과(半坡) 등 *양소(仰韶)문화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의 도문(陶文)들인데, 많은 문자 학자들로부터 문자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또한 4,000~5,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도화(圖畫)식 도문(陶文) 중 하나로 상형 부호가 있는데 이는 태양, 구름, 산(또는 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소문화 : 중국 황하 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문화로써 하남성 승지현 양소(仰韶)촌에서 처음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름 붙여졌다.

2) 한자의 글자체는,

갑골문→金文→古文→篆書→隸書→楷書→行書→草書의 순으로 변천하였다.

고대의 문자 기원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한자 역시 회화(繪畫)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은허(殷墟)에서 발견되는 갑골문자(甲骨文字) 등이 한자의 원형이라고 하겠는데, 이 상형문자(象形文字)는 회화적(繪畫的)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자 자체(字體)의 변천을 「그림에서 기호」로 발전했다고 본다.

3) 한자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글자이다.

한자의 글자 수는 얼마나 될까? 1세기경 후한(後漢) 때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실려있는 글자는 9,000여 자이다. 그 뒤 18세기경 청나라 때 만들어진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49,030자가 실려있다.

그러나 현재는 약 60,000여 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허신의 ‘설문해자’는 당시의 글자를 소전(小篆)에 근거하여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한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 존재했던 글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최고의 자전이라는 가치를 인정한다면 漢나라 이후로 그동안 상당한 정도의 글자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자는 ‘만들어지고 있는 글자’인 것이다.

4) 우리나라는 한자를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시도를 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본다. 여타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래되었을 것이므로, 유입경로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이라고 추측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우리말에 알맞게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두(吏讀), 향찰(鄉札), 구결(口訣) 등이 그것이다.

한자로는 우리말을 그대로 옮겨쓰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한자의 뜻, 음을 적절히 이용해 나름대로 편리하게 문장을 구사했던 것이다.

5) 정자 · 속자 · 약자

正字 : 중국 청나라 성조(聖祖) 강희 55년에 간행한 강희자전(康熙字典)의 자체(字體)를 기본으로 한 글자체 (해서체에 해당)

俗字 : 본래의 글자인 正字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속체(俗體)의 문자이다. 속자는 한자가 전서-예서-해서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희자전’에서 정자 이외의 異體字(同字, 古字, 俗字, 通刺)를 통틀어 말한다.

*속자의 특징 : 體 (体 약자도 속자에 속함)

- ① 획수가 간략화되면서 字意가 분명해진다.
- ② 획수가 늘어나면서 뜻이 구체화된다.
- ③ 쓰기 편하게 직선화된다.

略字 : 정자의 획 일부를 생략하여 쉽고 간략하게 한 글자를 말한다. 세속에서 간략히 줄인 글자라는 의미인데 속자의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속자와 약자의 구분이 모호한 것도 있다.

약자는 일본에서 많이 쓴다.

*한편, 약자는 이름 또는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는 사용할 수 없고, 기타 정중함을 요구하는 문구에는 사용해서는안된다.

주역으로 보는 2024 갑진년(甲辰年)

智光 한삼윤
창녕문화원장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격변이 예상되는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았다.

주역으로 보는 갑진년, 과상을 통해 알아본다.

주역(周易)은 "음양변화의 이치"를 설명하는 음양철학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했다.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이치다. 주역은 상황에 맞게(中) 바르게(正) 처신하는 지혜를 준다.

일음일양지도(一陰一陽之道)를 설명한다. 음(어두움)과 양(밝음)이 반복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주역에서 ‘바르다(正)’는 것은 ‘음양이 바름(貞)’을 말한다.

굳세게 해야 할 땐 굳세게 하고, 부드럽게 해야 할 땐 부드럽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주역은 점서(占書)이면서 철학서(哲學書)다.

주역에서 말하는 점(占)이란 ‘극수지래지위점(極數知來之謂占)’으로써, 헤아림을 다해 다가올 미래를 안다는 뜻이다.

주역의 핵심은

“知時識變(지시식변) 隨時變易(수시변역)”이다.

때를 알고 변화를 알아,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2024 갑진년(甲辰年)은 간지(干支)상,
천간(天干)으로는 첫 번째 갑(甲)이며, 지지(地支)상으로는 다섯 번째 진(辰)에
해당된다.

어질고 어린 푸른 용(龍)의 해, 즉 “청룡(靑龍)의 해”다.

주역의 괘(卦)는 상괘(上卦)와 하괘(下卦)로 구성되어있다.

상괘(上卦)는 주역 팔괘 중 첫 번째 괘인 건괘(乾卦)이며,

하괘(下卦)는 다섯 번째 괘인 손괘(巽卦)가 된다.

그래서, 주역 44번째 괘 천풍구(天風姤) 괘가 갑진년의 기본괘(본괘)가 된다.

천풍구괘(天風姤卦)는 ‘인연(因緣)’을 뜻한다. 구(姤)는 만남(遇)을 의미한다.

‘천생연분이 따로 있다’는 풀이다.

주역의 효(爻)는 천간과 지지의 숫자를 더하여 도출한다.

갑진년의 천간과 지지의 숫자를 더하면 6(1+5)이 된다.

따라서 천풍구괘의 여섯 번째 상구(上九)효가 2024년 갑진년 주역의 괘효(卦爻)가
된다.

2024년 하반기 운세는 지괘(之卦)로 판단한다.

지괘(之卦)는 움직이는 효(動爻 or 變爻)로써,

본괘 해당 효의 음양(陰陽)을 바꾸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음(陰)이 극에 달하면 양(陽)이 되고, 양(陽)이 극에 달하면 음(陰)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릇이 가득 차면 기울게 되고, 뜻이 가득 차면 뒤집히게 된다는 이치와 통한다.

※ 器滿則傾(기만즉경), 志滿則覆(지만즉복)

여기서 본괘인 천풍구 괘의 지괘는 변효(變爻)인 상구(上九)의 양을 음으로 바꿔서 보면 된다.

따라서 28번째 괘인택풍대과(澤風大過)의 6번째 효(爻)인 상육효(上六爻)로 하반기 운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주역 44번째 괘인 천풍구괘(天風姤卦)에 대해 알아본다.

상(象)의 모양, 괘상(卦象)을 보자면, 상괘(上卦)는 하늘(天/乾), 하괘(下卦)는 바람(風/巽)이다. 그 모양으로 보면,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부는 모습이다.

바뀌 말하자면, 장녀가 아버지를 받드는 모습이다.

괘덕(卦德)으로 보면, '손이건(巽而健)'이다.

곧, 공손하고 튼튼하다.

음(陰) 하나가 양(陽) 다섯 아래에 위치하여 시선을 제일 많이 끈다.

구(姤)는 만남으로써,

유(柔)가 강(剛)을 만나고, 음(陰)이 양(陽)을 만나며, 소인(小人)이 군자(君子)를 만난다는 뜻이다.

괘에 대한 설명인 괘사(卦辭)는 이렇다.

구(姤), 여장(女壯) 물용취녀(勿用取女)

위의 다섯 양효가 모두 초효를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만남', '인연'의 코드가 된다.

구(姤)는 '만나다'의 뜻이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역사를 이어간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이 이뤄지면 서로가 곤란해진다.

제대로 된 인연은 하늘이 정해 준다. 준비된 인연은 따로 있다.

구(姤)괘는 만나야 할 자를 아름답게 만나는 지혜를 알려준다.

만남이 이뤄지는 상황에서의 지혜는 무엇일까?

그 상황은 여자가 홍일점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에 여자가 씩씩하다고 했다.

남녀의 비율이 1대 5라면 희소가치가 있는 여자의 콧대가 높을수 밖에 없다.

이럴 때 대처방안은 단 한 가지다.
여자를 취하려 용쓰지 말라는 것이다.
이성을 사귀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뜻이다.
때가 되고 인연이 맞으면 자연스레 아름다운 만남이 이뤄진다.
역지로 함부로 인연이 아닌 자를 만나면 후회하게 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세부지침이라 할 수 있는 효사(爻辭)에 보면, 구체적인 자세가 나온다.

上九(상구), 姤其角(구기각), 吝(인), 无咎(무구)
상구는 그 뿔에서 만나니 막힌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뿔에서 만난다는 것은, 가장 궁색한 상황에서 만난다는 뜻이다.
그 뿔에서 만난다는 것은, 위가 다하여 인색해진다는 뜻이다.

'위'라는 것은, 상구(上九)를 말한다.
'위가 다했다'는 것은, 더는 올라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색해진다'는 것은, 만나고자 하는 의욕이나 마음, 바뀌말해, 그 명분이나 목적의식 등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별다른 의욕 없이 그저 만나고 본다는 식의 성의 없는 태도를 말한다.
그(그녀)와 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 원인은 바로 자신에게 있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기를 바로잡고, 눈을 낮춰서 바른 만남을 도모해야한다.

하반기 운세는 주역 28번째 태풍대과(澤風大過)괘와 본효의 여섯 번째 괘효인 상육효(上六爻)에서 잘 드러나 있다.

태풍대과괘의 전체적인 의미는, '난국(難局)이니 돌파구를 찾아라'는 의미다.

大過(대과), 棟橈(동요), 利有攸往(이유유왕), 亨(형)
크게 지나친 상황이다.

용마루가 휘니, 가는 바가 있음이 이롭다.

밝게 통하라는 것이다.

상육효(上六爻)엔,

上六(상육), 過涉滅頂(과섭멸정), 凶(흉), 无咎(무구).

지나치게 건너가다 이마를 잃으니 흉하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커졌다. 얼굴을 들 수 없으니 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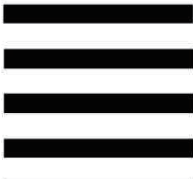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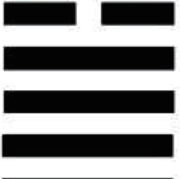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음흉한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과오는 크게 뉘우치고 새롭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고대 복희, 문왕, 주공, 공자 네 분의 성인이 만든 인생 지침서다.

주역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며, 세상의 흐름을 안다는 것이다.


2024 갑진년, 천풍구괘(본괘)와 태풍대과괘(지괘)를 주목해볼 일이다.

(천)		(택)	
(풍)		(풍)	
-천풍구(姤)괘 [본괘]-		-태풍대과(大過)괘 [지괘]-	

〈참고자료〉

- * 손기원 박사의 코드 주역,
- * 김재홍 박사의 소통의 인문학, 주역.

회원동정 및 수상소식

- 
- ◇ 제3회 창녕군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수상소식
 - ◇ 영산향교 신용태 전교 사진 회사
 - ◇ 사단법인 신돈역사연구회 「편조왕사 신돈 이야기」출판기념회
 - ◇ 향토사연구소 '김화영 위원' 제23회 황우문화상 수상
 - ◇ 글길 문경주 시인 문집 출판기념회
 - ◇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하진돈 위원' 국민포장 수상!
 - ◇ '창녕 도천농악단' 제14기 경상남도지사기 경남 어르신 농악경연 대회 장려상 수상
 - ◇ 윤수근 회원 (사)한국조경수협회 중앙회장 취임
 - ◇ '최정옥 회원' 제17회 경상남도지사배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장려상 수상
 - ◇ 제34회 비사별문화제(시조창발표회, 수석전시, 서예전시)

제3회 창녕군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수상소식



- 일 시 : 2023. 9. 12. (화) 08:00
- 장 소 : 유어파크골프장(유어면 미구리 소재)
- 여자부 1등 수상 : 하창선 이사
- 남자부 1등 수상 : 김명수 색소폰 동아리 회원

영산향교 신용태 전교 사진작품 회사



- 제목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작가 : 백태진 작가(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장)
- 기증 : 신용태 영산향교 전교
- 일자 : 2023. 10. 13.

사단법인 신돈역사 연구회 - 「편조왕사 신돈 이야기」출판기념회



신용태
영산향교 전교 /
신돈역사연구회 회장

- (사)신돈역사연구회 “조선 건국 세력이 ‘요승’ 낙인”
- 관련 역사 연구 토론회·세미나·탐방 등 꾸준한 활동
- 학계, 고려 말 민생 해결·정치 질서 회복 등 업적 재평가
- 연구회, 신돈 업적 조명 소설 ‘편조왕사 신돈 이야기’도 출간

향토사연구소 '김화영 위원' 제23회 황우문화상 수상



수상 자격

군민 또는 출향인사로서 덕망 있고 문화 창달에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또는 단체

• 수상자: 김화영(창녕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 공적내용

2011년 창녕문화원에 입문하여, 2015년 향토사 연구위원에 임명된 이래 2023년 2월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창녕의 설화(2016년), 창녕이 겪은 6.25전쟁(2017~2018년), 근대문화유산총람(2019년),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2021년) 및 창녕문화원 70년사(2022년) 등 창녕문화원 책자 편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또한 2015~2022년 “창녕문화”지에도 향토문화 관련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등 향토문화 보전과 숨겨진 문화유적 발굴에 기여.

글길 문경주 시인, 문집 출판기념회



- 일시 : 2023. 11. 11. (토)
- 장소 : 경화회관

문 경 주 시인

시집 1권, “무릎 맞댄 두레상, 행복, 그거 별거 있더나.”

시집 2권, “인생 뭐 별거 있나? 재미있게 살다가는 거지.”

“나의 스펙트럼은 어떤 색깔까?”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하진돈 ‘국민포장’ 수상!



- 일 시 : 2023. 6. 28. (수)
- 장 소 :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 대 상 :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하진돈’
- 수 상 : 국민포장

내 용

한국자유총연맹 창녕군지회장으로써,

2023년 6월 28일(수),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민생, 세대 계층 상생에 힘쓰며, 6.25전쟁 전사자 발굴 등 안보 의식 제고 활동으로, 자유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러운 국민포장을 수상

‘창녕 도천농악단’ 제14기 경상남도지사기 경남 어르신농악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일 시 : 2023. 10. 13.(금)
- 장 소 : 산청엑스포축제장 메인무대
- 참가단 : 경남 시·군문화원 18개팀 / 1,000여명 참가
- 대 상 : 창녕도천농악단
- 수 상 : 장려상

창녕 도천농악단 소개

도천농악단은 2000년 2월에 창단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왔으며 각종 축제 및 대회출전으로 7회의 수상경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 청주시에서 개최한 ‘제4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도천면 보리타작소리’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동요를 겸한 두레농악으로 열심히 연희활동을 하고있음.

윤수근 한국조경수협회 제33대 회장 취임

지재호 기자 | 입력 2023.02.24 17:22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윤 신임회장, 수익창출로 재무구조 개선과
“올해를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 밝혀
남성현 산림청장 “여러분 편에서 함께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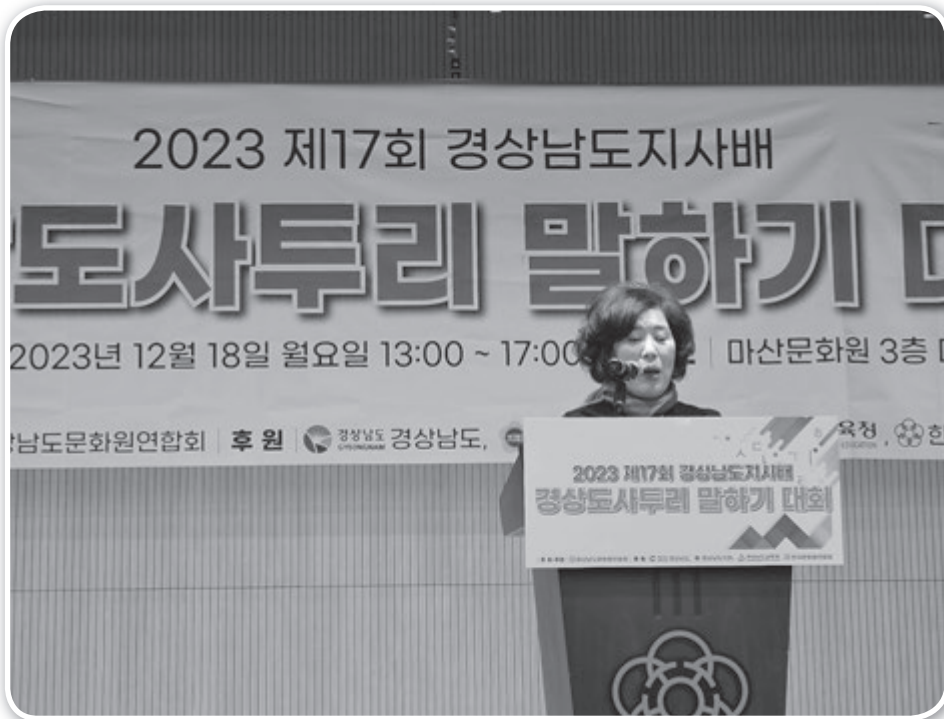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윤수근)는 지난 23일(목)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제5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윤수근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조경수협회는 지난 1967년 12월 5일 창립됐다. 지난 55년간 국토녹화와 녹색 환경을 창조하는 조경산업에 기여하며 성장해 왔다. 회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우리 조경수협회도 조경수 생산기술과 유통 및 운영체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도약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앞으로 중요 역점 사업을 몇 가지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에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에 부합하는 협회의 역할과 진로 모색, 중앙회와 협회의 각 지회의 유대가 활성화 돼 회비 중심에서 나무병원 운영, 조경수 수출 등 수익 창출로 재무구조 개선,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임업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상생으로 도시숲 조성,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 올해 10월 수원시에서 경기지회가 주관하는 제8회 조경수산업발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점으로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정옥 회원’ 제17회 경상남도지사배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대회 장려상 수상!



- 일 시 : 2023. 12. 18.(월)
- 장 소 : 마산문화원
- 대 상 : 초, 중·고등부, 일반부 / 200여명 참가
- 참 가 : 창녕문화원 회원 최정옥
- 수 상 : 장려상

내 용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사투리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고 귀중한 자리를 만들고 사라져가는 경상도 사투리를 보존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향토사랑 및 전통계승 의미를 부여하고자 함.

제37회 비사벌문화제 「시조창 발표회, 수석전시 및 서예전시」



제37회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비사벌문화제에
창녕문화원 부설단체 시조창, 서도회, 수석회가 참여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전시를 하였고,
부설단체 시조창은 10월 15일에는 시조경창발표회를 선보였습니다.

창녕의 대표 축제에서 창녕문화원의 부설단체가 적극적인 활동과 다양한 볼거리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소통의 시간이 됨.

창녕소식을 빛낸 사건



-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정
- ◇ 창녕 부곡온천,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 ◇ 창녕 성산 각료암 전통사찰 지정
- ◇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물로 지정
- ◇ 창녕 도암재 강당 도문화재자료 지정
-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 지정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 유산명 : 가야고분군
-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고분군 (경북)고령 지산동고분군 (전북)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 등재유형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등재기준 :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9월 17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확정되었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그 중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5~6세기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비화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신라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가야 정치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창녕양식 토기,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 출(出)자형 금동관, 녹나무제관 등은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한 비화가야의 국제성을 보여준다.



창녕 유네스코위원회 현장에서의 문화유산 등재 기념사진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창녕 부곡온천,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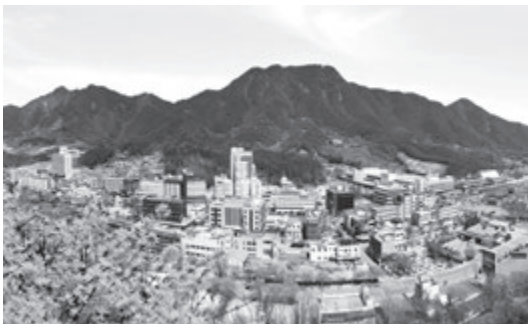
부곡온천은

조선 성종 때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의 영산현조에
‘온천이 현의 동남쪽 17리에 있더니 지금은 폐했다’라는 기록에서 보듯 유래가 깊다.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꽃어 넘치는 원수를 온천 이용
업소마다 적당한 온도로 전환해 목욕과 객실 난방용으로 활용.

온천수는 유황 성분과 황산 나트륨(NaSO_4)을 함유해
피부 노화 억제와 미용 효과가 뛰어나고,
당뇨와 암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인체 내 활성산소 제거에도 효과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천의 온도와 성분이 우수하고, 관광 등
온천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



부곡온천 온천도시

창녕 성산 각료암 전통사찰 지정



- 지 정 : 2023.1.31
- 등록번호 : 제119호 전통사찰
- 소속종단 : 조계종 (주지 이우영)
- 소재지 : 창녕군 성산면 안심산림길 376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물로 지정



- 지 정 : 2023.3.9.
- 소속종단 : 조계종 (주지 이상덕)
- 소재지 :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창녕 도암재 강당 도문화재자료 지정



- 지 정 : 2023.3.30)
- 소 재 지 :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386
- 소 유 자 : 창녕조씨 만호공파 조도암 종중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 지정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의 많은 불교 문화유산과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관룡산의 수려한 경관 등이 조화를 이뤄 경관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에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됨

- 지 정 : 2023.12.28.
- 소속종단 : 조계종 (주지 이상덕)
- 소재지 :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2024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일시	사업명	장소	내용
1월	제1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2월	갑진년 설 합동 세배회	본관 3층 대강당	기관 및 사회단체장,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300여명 참석. 1부- 합동 세배회 2부(웃놀이 13개 단체참여)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문화원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사진, 건강체조, 시조창, 바둑 등
	제2차 이사회	본관 2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71차 창녕문화원 정기총회	본관 3층 대강당	문화원 회원 및 기관단체 참석 400여명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3월	문화학교 개강	별관 2층 강당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시조창, 바둑, 사진 등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부설단체 및 분원장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부설단체장, 분원장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4월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국내유적지	전 회원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5월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6월	202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경남지역 오디션	경남문화원연합회	부설단체 참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우포농협 마을축제 및 한마음대회	관내	부설단체 참여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대상 :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일시	사업명	장소	내용
7월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제3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8월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9월	2024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본선참가	서울	경남오디션 본선 진출팀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 참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특설무대	부설단체 2팀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대회 참가	미정	참가 농악팀, 임원 및 향토사연구위원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0월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전 회원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비사별 문화제 동아리 참여	젊음의 광장	색소폰, 민요, 난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시조창 참여
	제4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3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향토사 연구위원 워크숍	미정	임원 및 연구위원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1월	제18회 경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경남문화원연합회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문화 나눔 봉사공연	관내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등)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2월	제5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제12호 창녕문화보, 제44호 창녕문화 발행	우편발송	전 회원 및 기관단체
	창녕문화원 “문화의 날” 행사	본관 3층 대강당	부설단체 공연 회원 200여명 참석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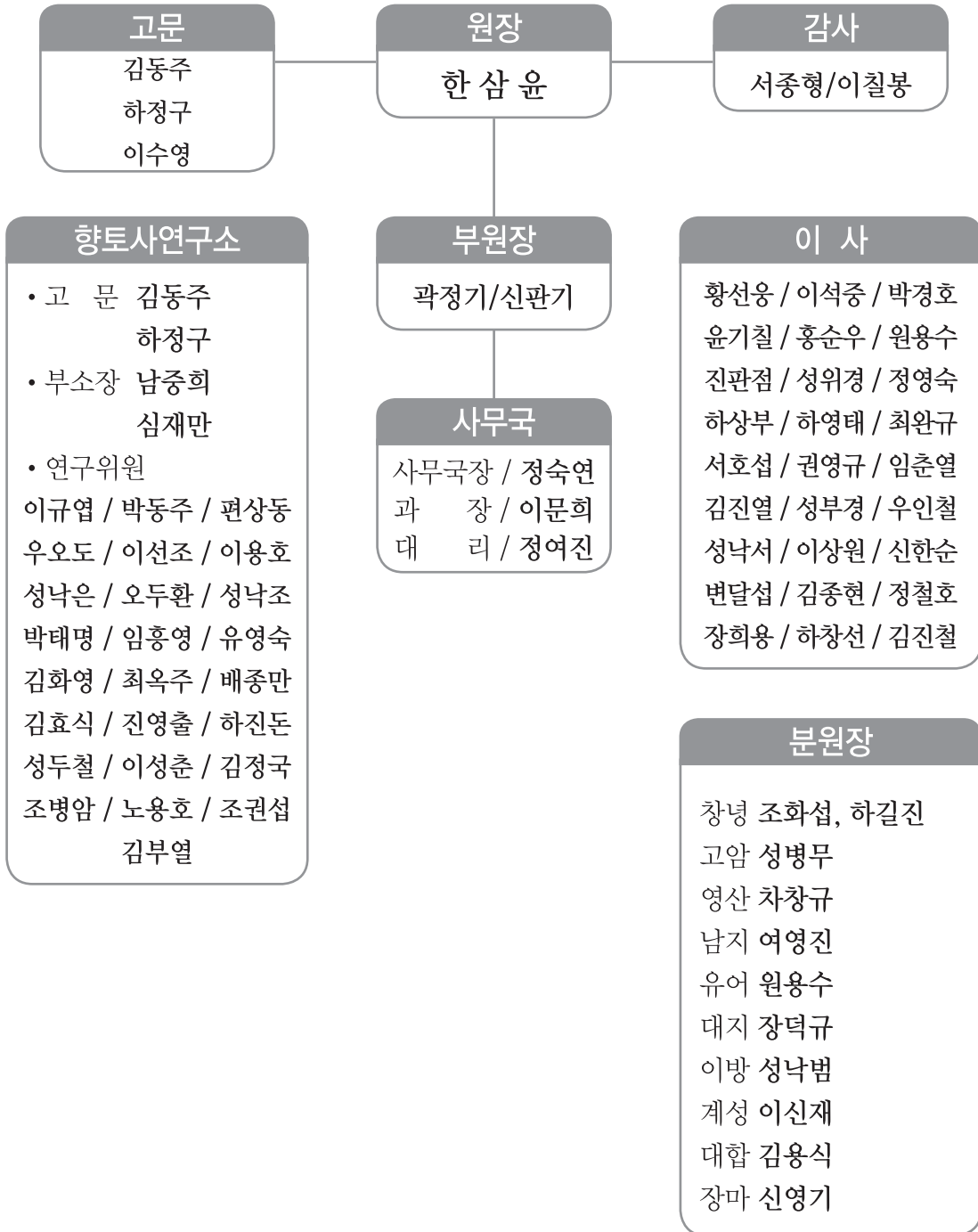
연 번	강 좌 명	요 일	시 간	장 소
1	바둑교실	월	10시~12시	별관4층 문화사랑방
2	요가	월	19시~21시	별관 2층
3	색소폰(중급)	화	10시~12시	별관 2층
4	시조창	화	10시~12시	별관 3층 2강의실
5	서예	화	10시~12시	본관 2층 서도회
6	건강체조	수	10시~12시	별관 2층
7	한문	수	10시~12시	별관 3층 2강의실
8	민요	수	14시~16시	별관 2층
9	댄스스포츠	수	19시~21시	본관 3층 강당
10	색소폰(초급)	목	10시~12시	별관 2층
11	사진	목	19시~21시	별관 3층 1강의실
12	한국무용	금	10시~12시	별관 2층
13	난타	금	19시~21시	별관 2층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수강신청

- 모집기간 : 2024. 2. 1 ~ 2. 20
- 수강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개 강 : 3월(예정)
- 개설 과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사무국 533-3777 / 532-6663

창녕문화원 조직도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 현황

부 설 단 체	직 책	회 장	회원수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심재만/남중희	30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탐방	총무	배종만	72
파크골프 (울타리파크회)	회장	김용식	28
시조창	회장	손선애	28
요 가	회장	이인자	39
서 예	회장	성태기	21
색소폰(중급)	회장	조화섭	22
색소폰(초급)	회장	김일식	28
건강체조	회장	이순미	32
댄스스포츠	회장	박순덕	32
한 문	회장	양창석	20
민 요	회장	이순선	18
한국무용	회장	이윤경	12
난 타	회장	유옥련	30
바 독	회장	성낙은	13
사 진	회장	김희수	15
수석회	회장	하진돈	28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 창녕문화 책자에 게재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창녕문화원이 매년 1회 발행하는 책자로 시, 수필, 여행기, 독후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 및 기사 보내실 곳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 길 10
 - 전화 : 055)533-3777 / 532-6663
 - 팩스 : 055)533-3775
 - E-mail : cc635cn@hanmail.net
 - www.cnccenter.co.kr
- 

昌寧文化 제43호

2023년 12월 인쇄

2023년 12월 발행

| 발행처 | 창녕문화원

| 발행인 | 원장 한삼윤

| 편집인 | 창녕문화편집위원회

| 제 작 | 일성프린팅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9

E-mail ilsungpr@hanmail.net

昌寧文化院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0

Tel 055,533,3777 Fax 055,533,3775

E-mail cc635cn@hanmail.net

홈페이지 <https://cnccenter.cafe24.com>

본 책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비매품>